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질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Forced Air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가평 법흥사 등
웰빙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1월 3일(음력9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498호

거리엔 찬 바람 불고 갈곳 없는 노숙자들

교계 자활지원 '썰렁'



시설 총 8곳 역부족… "자매결연 · 거리상담 등 필요"

10월 23일 거리 노숙자 쉼터인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만난 정현득(49 · 가명)씨. 3개월간 영등포 등지를 떠돌며 노숙하다 쉼터에 입소한지 2주 됐다는 정 씨는 삶에 대한 애착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다. "사찰에서 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씨는 "여기 있으면 밥 세끼 해결되는데, 낯선 곳에는 뭐하러 가느냐"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쉼터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다는 이우종(53 · 가명)씨는 이제는 쉼터를 벗어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한다. 앞서 정 씨에게 했던 질문을 이 씨에게도 던져봤다. 이 씨는 "정기적인 일거리만 있다면 당장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일 밤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는 잠자리를 마련하려는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2004년 9월 현재 노숙자 수는 약 4,300명으로 추산됐으나 노숙자 시설 실무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노숙자들이 많아 실제 수는 약 2만 여명 이상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거리 노숙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교계 노숙자 쉼터들의 수용인원도 평소 정원보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불교계의 노숙자 시설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보현의 집' 4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이 중 여성 노숙자 전용 시설로는 본동사회복지관과 '(사)우리는 선우'에서 운영하는 화엄동산이 있다.

불교계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억지 포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타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강요받았던 노숙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교계 시설은 자활 의지를 가진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수송 보현의 집 정윤훈 사무장은 "여러 프로그램을 해 봤지만 노숙자들이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꾸준히 시행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며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사무장은 가까운 조계사에서 불사를 하거나 행사 일손이 필요할 때 쉼터 노숙자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일거리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쉼터 노숙자들에게는 한 번의 사찰 노역도 소중한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부산 보현의 집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산 보현의 집은 '사찰 휴경지 경작 프로그램'을 마련해 쉼터 노숙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한다. 이런 활동은 노숙으로 피폐해졌던 마음에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총무부장은 불교계 전반에 노숙자 자활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거리 노숙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자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지킬만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계 노숙자 시설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자활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불교계 봉사단체들의 거리 상담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매일 밤 9시부터 '전국실직노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최부식 신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소장 황운성)' 등을 비롯한 노숙자 지원 단체들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를 돌며 실시하는 거리 상담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활동, 영화 관람 등을 장려하고, 사찰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영등포 보현의 집 오진환 부장은 "사찰 신도회와 노숙자들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자활 의지를 북돋아주면서 직업 훈련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세계불교포럼'으로 교류 확대

한 · 중 · 일 교류 10년… 베이징서 뜻모아

한 · 중 · 일 불교교류를 확대하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 세계불교포럼이 창립된다.

'평화 · 협력 · 발전'을 주제로 10월 22~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3국 불교는 세계불교포럼 창립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포럼을 위해 중국 측은 △간행물 '황금유대(가칭)' 발간 △정례 학술대회 및 성지순례 △인재(유학승)교류 강화 등의 사업들을 제안했으며, 세 나라는 포럼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세 나라는 또 2005년 10월 서울에서 제8차 대회 개최, 한중 · 중일 선수행체험단 교류확대, 테러와 전쟁 등 폭력에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협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중일 불교교류 10주년을 맞아 3국 불교교류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993년 시작된 3국 불교교류는 그동안 자비와 평화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영광사(주지 성휘)에서 각국대표와 신도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통해 "불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평등심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공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듯 화합과 평가가 세상에 넘쳐나도록 용맹정진 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들과 참관인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조용수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태고종은 10월 28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수계산림을 열고 264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사진=이준엽 기자

"무상도 증득하리"

태고종 264명 득도 수계

태고종 제2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서 264명의 사미(니)가 본격적인 출가 수행의 길로 나섰다.

태고종은 10월 2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남행자 192명, 여행자 72명 등 총 264명이 28일간의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는 종단 최대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0여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수계법회에서 전계사 운산 스님(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출가 수행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여 무상도를 증득해야한다"며 "일하는 승려, 일하는 사찰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비승들은 수계산림 기간동안 경전강독, 강의, 울력 등의 교육을 받고 3만배 참회정진을 했다. 관련기사 6면

이준엽 기자

해인총림 발전 토론회

7일부터 4차례 열려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원택)가 해인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해인총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해인총림과 교구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7일과 28일, 12월 12일과 26일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해인사 종풍 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석자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1월 7일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해인사에 바란다'를 주제로 일면 · 법등 · 종림 스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명우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정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대법회

■ 일 시 : 2004년 11월 5일(금요일) 10시 ■ 장 소 : 치악산 구룡사

치악산 구룡사는 신라시대 문무왕 6년(AD 666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호국명찰로써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이 수행한 화엄십찰로서 전통사찰이며 호국안보, 조국통일,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중창불사와 만일기도를 정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웅전 원형복원을 실측보고서에 의하여 준공하고 삼존불불상(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점안 봉안과 탱화(후불탱화, 신중탱화, 감로탱화) 점안 봉안 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신라시대는 북원경으로 이조시대에는 강원감영으로 한반도 강원도의 호국 중심 도량인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대법회에 동참하여 새천년의 역사를 기원하고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48년 10월 일

■만등불사
1인 1등 : 일만원(영가 1위 오천원)
성 금 : 십시 일반(일만원 이상)
■동참계좌
농 협 307011-51-036037
우 체 국 201327-01-001841
국민은행 303-01-0579-463
■문 의
구룡사 종무소 TEL. 033)732-4800
FAX. 033)732-1211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 룡 사 주 지 (자광) 원 행 합장



복지불사에 더욱 박차를

불교 내지 교단의 변화모색은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과제이자 성찰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았고, 현실 속에 적용하는데 충실해 왔다.

불교의 변화는 엄격히 말해 교단의 변화 또는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교단이나 구성원의 전도된 모습에서 다시 부처님의 본래적 가르침으로 여법하게 돌아가느냐에 변화의 평가는 엇갈려 왔다.

우리는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해탈이라고 배워왔다. 이 해탈을 이룰 수 없는 이상향으로만 바라본다면 불교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불자나 교단이 해탈을 목표로 삼아 자비문과 지혜문을 사회 각계각층, 생활 저변에서 수행삼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불교는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자비 실천의 첫째 '가치'

승단 인식 변화로 활기 찾아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의 질에서부터 환경, 복지, 통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혼돈의 홍수에 휩쓸려 있다. 불교계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계 전체가 해탈이란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 오로지 나아가며, 처해진 상황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아 하루하루 나아진 삶, 상승된 삶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간다. 사회복지 분야를 놓고 본다면,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은 대부분 건실한 운영을 통해 서민계층에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자비라는 명제가 얼마나 이 사회에 큰 등불인가를 일깨우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불교계는 사회복지사업을 중요한 대사회포교의 장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교계 모 신문사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스님들의 50% 가까이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결과를 보고 우리 불교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사회복지는 '필요' '불필요'를 따질 분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분야다. 자비의 수행덕목을 그 어느 종교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불교계에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은 불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자비라는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해탈의 문으로 나아가는 종자를 싹 틔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교의 역할은 그만큼 절실하다. 사회복지가 곧 중생구제요 불은(佛恩) 회향의 공덕을 쌓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비실천의 수행이 활성화될 때 불교는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이춘성(부산 남구 용호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포교의 '틀' 바꾼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정체성 확립 등 10대 과제 선정

조계종 포교원이 내년 1월로 다가온 별원 승격 10주년을 앞두고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신포교 계획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 과제는 △신도 정체성 확립 △핵심신도 양성 △신도 교육 수행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포교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화 △미디어 포교 활성화 △종단 의례의식 한글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도시포교 활성화 △국제포교 활성화 등이다.

10월 22~24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또 종단의 특수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이라는 전제하에 △조계종학의 정립 △신도 위계정립을 통한 조직화 △신도 수계단계 체계화 △신도법계 제도 연구 △간화선 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 형성 △참(좌)선 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민선방 지원 및 관리 △간화선센터 운영 △참선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세부 사업들이 제안됐다.

10대 핵심과제 하에 제안된 사업은 이외에도 신도교육 인프라 구축, 포살법회를 통한 사부대중 신행공동체 형성, 사찰음식박람회, 영상포교행정체계 수립, 불자사회 네트워크 구축, 포교 콘텐츠 개발 로드맵 작성, 한글 상용의식집 간행 · 보급 통한 의례의식 통일화, 1사찰 1쉼터 갖기 운동, 관혼상제 프로그램 운영, 한국불교 해외 홍보시스템 구축 등 130여개에 이른다.

과제와 사업은 11월 중순경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에서 박희승 포교연구실 차장은 "중생에게 불법을 가르쳐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포교이념이었다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는 것이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신포교 이념"이라고 전제한 뒤 "종단 차원의 전략과 포교시스템, 인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해마을=강지연 기자

밀교학술대회 日서 열린다

진각종·고야산大 12월13일, 체험행사도

밀교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교류대회가 한 · 일 양국 밀교종단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에서 열린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과 일본 고야산대학 밀교문화연구소(소장 나마이지 쇼)는 12월 13~17일 와카야마 고야산대학에서 '한 · 일 국제학술교류대회와 밀교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밀교행법중의 금강계37존'을 주제로 12월 14일 열리는 학술교류대회는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와 오치 고야산대학 문학부장의 양국 밀교와 금강계 37존에 대한 기조강연, 양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은 이번 한 · 일 국제교류대회에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등 종단 주요 인사와 밀교학 관계자 등 5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범어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19억여 원의 횡령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10월 28일 문화재청에 의해 내려졌다. 이번 환수 조치된 19억여 원은 국고보조금과 국,시비를 포함한 22억 중 공탁금 3억을 제외한 19억 9천만 원으로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 재무국장 스님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알려진 금액 전액이다. 총 51억 여 원의 국고보조금 중 공사비로 쓰인 약 30억 여 원의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천미희 기자

"종교단체 고유 규율 적용돼야"

조계종 선암사대책위, 대법원에 탄원서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 · 조계종 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10월 29일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세속의 재판부가 종교 단체 내부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 오로지 사회법적인 판단과 기준만으로 재단한다면 어찌 종교 단체의 품격과 권위를 지켜갈 수 있겠냐"며 "사회법과 종교 단체 고유의 규율이 구분돼 적용돼야 할 기본적인 경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사회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단의 기강을 흔들거나 종교 단체 고유의 본분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며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호계원(원장 월서)은 "종단화합과 종무행정의 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해 재판부가 종단 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종교 침탈이자 훼불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법계 받들어… 조계종 제4회 3급 승가고시산림이 10월24일 김천 직지사에서 회향했다. 이번 승가고시에는 비구 54명, 비구니 50명 등 총 104명의 승랍 10년차 스님들이 응시했으며 이중 비구 44명, 비구니 49명 등 총 93명의 스님들이 합격해 중덕과 정덕 법계를 받았다. 사진=배지선 기자

새 위원장에 도공 스님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도공 스님(보은 법주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도공 스님은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1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5대 4로 범여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에게 한 표차로 앞서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도공 스님은 1973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 12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사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분단 상처 치료하는 상징…"

금강산 신계사 상량문 공개

11월 20일 낙성식이 봉행되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의 상량문이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공개됐다.

신계사 대웅보전 상량문은 금강산과 신계사의 역사와 연혁, 복원불사의 의미 등을 790cm 길이의 한지에 기록했다.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신계사 복원 상량문' 제하의 글은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지었으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가 감수하고 조종래 조계종 총무부 부국장이 썼다.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는 "신계사 복원 불사는 민족의 분열된 마음을 화해시키고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일불사인 신계사 복원에 즈음해 부처님 전에 상량문을 올리고 세세손손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고침 본지 497호 14면 '김충현 은관 · 송춘희 씨 화관' 기사 중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광옥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으로 고칩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및 주지임명 절차이행금지 가처분(2004카합1969) 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조계종단의 종헌 기구로써,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며, 율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승려법에 의거 수행자가 충분히 참회하고 자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정확한 조사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심판하는 교단 내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계율은 교단을 유지 운영하는 근간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부처님의 율장에 근거하여 수행자를 경책하고 근신 · 참회토록 하는 것이 승단 고유의 징계체제이다. 징계를 받은 수행자는 자숙하고 참회함으로서 대중의 화합을 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태도이며 행해라 할 것이다.

전 선암사 주지 김용민(정야)은 종단의 일원으로서 종단 징계에 불응하고 징계에 정면으로 대응, 이를 사법기관에 제소하였다. 이는 종단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신성한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무지몽매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받아 들여 부산 선암사의 전임 주지 김용민(정야)에 대한 조계종단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조계종단에서 새롭게 임명한 주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종단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김용민(정야)을 직무대행자로 한다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단의 화합과 종무행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자에 대하여 재판부가 종단내의 자율적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종교단체내의 자율적 판단을 세간의 잣대로 재단하고 사회법으로 저울질하는 재판부의 종교 침탈이요, 훼불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명백한 조사와 호계원법의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예단과 추론만으로 판결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교권 침해이다.

우리 호계원의 호계위원들은 종교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해하려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선암사의 유구한 역사와 삼보정재를 사유화하려는 김용민(정야)의 불순한 의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금번 결정은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단의 교권을 심각히 훼손한 매우 오만하고 부당한 결정이며 종단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흉한 결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진정한 정의, 진실을 묵살하고, 부정하고 그릇된 이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땅에 정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부의 오판과 사시화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불전에 맹세하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부산 선암사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호계위원 일동은 종단의 자주성 회복을 천명하고 올바른 법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2548(2004)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김월서외 호계위원 일동

"친환경,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불교환경워크숍…실천방안 쏟아져

"쓰레기를 줄이고, 공양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11월 중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불교환경워크숍이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최로 10월 28~29일 김포에서 열렸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 조계종 前 기획실장 현고 스님을 비롯한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의제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불교환경 워크숍에서 현고 스님(왼쪽에서 두번째)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실천점검 시스템 도입을=참석자들은 불교환경의제21의 전체 내용을 모두 실천하기 어려운 만큼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선정해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 역시 '불교환경의제21 실천에 대한 제안'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며 각 주체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정 실장은 2004년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각 사찰이 제출한 △경내지에 나무 심기 △합성세제 쓰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등의 예를 열거하며 "전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것에 기본정신이 있는 만큼 쉬운 일들부터 각 주체가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의제는 실천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조별토론에서도 △환경예산 1% 편성 △교구본사 불사위원회 설치 △월 1회 이상 전 체대중 발우공양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종단차원에서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은 "공식 발표 이전에 반드시 실천 가능한 의제를 선별하고 점검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조승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행환경 지키기가 조직이 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에 각인시키려면 불교계 스스로 수행환경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 참여율 여전히 저조=그러나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구본사 담당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했다. 전체 24개 교구본사 중 7개 교구본사만이 참석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섰던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지금까지 3차례 환경워크숍을 했지만 스님들이 이렇게 적게 온 것은 처음"이라며 교구본사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은 3차 불교환경워크숍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접 불교환경의제21을 선포할 예정이다.

김포=유철주 기자


지율 스님이 10월2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환경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강유신 기자

'천성산지킴이' 梨大서 환경특강

"신문을 통해 수십일간의 단식을 세 번이나 한 지독한 비구니, 혼자서 몇 조원씩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막는 비구니로 알려졌을 텐데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웃음)…."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제4차 단식에 돌입한 다음 날인 10월 28일, 서울 이화여대를 방문해 '천성산 살리기'를 주제로 한 환경 강연을 했다.

지율 스님은 "불교에서는 만물이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스님들이 선방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세상일은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요.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벌로 단식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네요"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율 스님은 이어 "막상 사회에 나오고 보니 너무 잘못된 게 많았어요.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건만 괜찮다'고 하는 무관심, '설악산도 뚫었는데 천성산 같이 작은 산을 뚫는데 왜 반대하냐'는 비웃음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깊이 참회했다"고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스님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100일 간 혼자서 천성산 공사현장을 지킬 때였다고 회상했다. "나는 공사의 진행을 막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만큼 위급한 순간에 처했다.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큰 비구니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듯 떠나버려 괴로웠다"고 말했다.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지율 스님은 "사실 나를 가장 걱정한 사람은 나와 싸우던 현장 노동자였던 것 같다"며 "천성산 살리기는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일깨우려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유신 기자

지율스님 4차 단식 돌입

환경부 장관 고발

지율 스님이 10월 27일 또다시 4차 단식에 돌입했다. 8월 26일 58일간의 단식을 끝낸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지율 스님은 "환경부가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다 부산고법이 천성산 환경에 대한 자체 감정을 취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과 도롱뇽 시민행동은 10월 27일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법원의 모든 약속을 깬다면 다시 원점이 되는 일"이라며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환경영향평가 위반혐의와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고검에 고발했다. 도롱뇽소송 광주전남 시민행동도 27일 곽 장관을 고발한데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고소·고발이 동시에 접수됐다.

도롱뇽 시민행동 부산 공동대표인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부산고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율 스님은 곧바로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화운사 송전탑 문제 타결

한전, 절과 협의해 건설키로

2년여를 끌어왔던 용인 화운사(주지 혜완) 인근 송전탑 건설 문제가 공사업체가 협의 이후 원만하게 공사를 한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타결점을 찾게 됐다.

'화운사 고압송전철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성효·이하 비대위)'는 10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10월 19일 '화운사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찰 가시권 밖으로 변경설치)에 대해 화운사와 원만하게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회신한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해결점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가 지난 2002년 10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용인-동백송전선로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후 송전탑 건립이 추진된 지 2년여 만이다.

화운사 송전탑 건립 문제는 2002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사찰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경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가, 2003년 해 12월 16일 "(송전탑 주변 토지소유주등)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로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다시 논란을 빚었다.

강유신 기자

韓中 청소년 지도자 대회

10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부산 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련)과 함께 한·중 청소년 지도자 교류대회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중국 청소년 단체 지도자 100여명이 초청되는 이번 교류대회는 산업시찰, 토론회, 레저문화체험, 한국사찰체험, 한국가정방문, 인천 및 서울 투어 등의 주제로 9박 10일간 진행된다.

한·중 청소년 지도자들은 체험기간 동안 농심 견학을 시작으로 에버랜드, 해인사 불국사 탐방, 국제영화소 보문단지, 해운대 유람선 및 아쿠아리움, 김치·한지공예·풍물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한국가정 홈스테이, KTX 탑승, 동대문 야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코엑스, 인천 경제자유특구 시찰, 기아자동차 봉은사, 난타 공연관람, 월드컵경기장, 남대문 명동, 국회의사당 및 방송국 등을 돌며 한국의 전통·산업·생활을 체험한다.

강지연 기자

"종단 운영 3권 분립 엄격 적용을"

교단자정센터, 종책제안서 제출

"불교방송 동국대 등 주요 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종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제165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11월 3일 개원하는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종단 중앙종무기관 소임간 겸직금지 원칙 등을 강화해 종단 운영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높이자'는 내용의 종책 제안서를 10월 27일 총무원, 중앙종회 등에 보냈다.

교단자정센터는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명분 아래 종단 사법기관 위원 선출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면책특권을 보유하면서 권력집중화와 같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중앙종회는 3권 분립의 철저한 정착을 위해 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의 겸직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에 따르면, 호계원, 법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종단 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직책을 겸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 경우가 적지않다.

강유신 기자

불교-가톨릭인 교환 홈스테이

상호 이해·상생 토대 마련
성지순례·대화모임 추진

불교와 가톨릭의 종교인들이 교환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가톨릭 평신도들의 모임인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손병두)는 10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종교간 상생(相生)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손안식 부회장, 최연 사무총장 등과 가톨릭측의 손병두 회장, 오덕주 부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중앙신도회는 가톨릭측에 '이웃종교 가족교환 그룹 홈스테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에 따르면 두 종교는 2005년부터 분기별로 1박 2일 동안 5~10개 가족이 참여하는 홈스테이를 실시해 종교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 두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성지순례 행사와 '대화모임'을 지속적으로 열어 종교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교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갈등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해인사에 큰 지혜를 주십시오

해인사의 종풍(宗風)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 종합수도원(총림)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25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행도량이며, 또한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法寶)종찰입니다. 조계종 출범이후에는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서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선종(禪宗)의 가풍을 진작함으로서 모든 수좌, 선객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해인사가 교단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서 더욱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인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와 같이 부탁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기간 : 불기 2548(2004)년 10월 5일 ~ 12월 말일까지
◆ 의견내용 : 1. 해인총림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2. 해인사 교구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총림 및 교구발전에 필요한 수행·교육·포교·문화 사회분야 및 각종불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인사에 도움되는 각종 의견
◆ 의견접수 : 우편접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편집실 055)934-3111
팩스 : 055-934-3112 / Email : haein3111@hanmail.net / 홈페이지 : haeinsa.or.kr

불기2548(2004)년 10월 7일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 위원회

● 증 명 : 방장 법전 대종사
● 고 문 : 도견스님, 지관스님, 정원스님, 송월스님, 원융스님
● 지도위원 : 종성스님, 도선스님, 중천스님, 원각스님, 효광스님, 관후스님
● 상임공동위원장 : 원택스님 ● 공동위원장 : 종림스님, 여연스님, 향적스님, 혜능스님, 종묵스님, 도각스님, 선각스님
● 실무위원장 : 능도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현 해인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고하고, 해인총림의 설립취지를 구현, 그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사부대중을 모시고 4차에 걸쳐 아래와 같은 주제로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인총림과 교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사부대중이 동참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해인사와 한국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차 토론회
① 주 제 : 해인사에 바란다.
② 발표자 : 일면스님, 법등스님, 종림스님, 반야스님, 원규스님, 혜원스님
③ 일시·장소 : 2004년 11월 7일 오후 1시, 보경당

◆ 2차 토론회
① 주 제 : 해인사 수행 풍토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② 일시·장소 : 2004년 11월 28일 오후 1시, 보경당

◆ 3차 토론회
① 주 제 : 사회·문화·포교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② 일시·장소 : 2004년 12월 12일 오후 1시, 보경당

◆ 4차 토론회
① 주 제 : 불사(동판·복지·문화재보존·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일시·장소 : 2004년 12월 26일 오후 2시, 보경당

※ 매 토론회 발표자 의견 개진 후 참석대중 누구나 10분 이내 자유발언 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48년 10월 26일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원택 합장



중국 베이징에서 10월 22일 열린 제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스님들. 앞줄 왼쪽부터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 (한사람 건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 일본대표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

우호증진 속 주도권 경쟁 치열

한·중·일 불교교류 10년 평가·전망

'황금유대(黃金紐帶)'

이번 대회기간 동안 사용된 한중일 3국 불교 교류 10년을 함축하는 말이다.

'우호·협력·발전'을 주제로 시작된 한중일 불교교류는 1993년 10월 당시 중국불교협회장 조박초 거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94세를 일기로 지난 2000년에 타계한 조 회장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혁명원로로 중국공산당 서열 4위까지 올랐던 실력자였다. 그의 제안으로 95년 북경에서 첫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렸다. 역사적 근원이 하나인 한국·일본·중국불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단절된 불교전통을 복원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3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96년 9월 서울대회, 97년 10월 나라-교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종교를 통한 3국의 우호협력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98년~2000년 까지 한국 대표종단 조계종이 분란에 휩싸이면서 대회개최가 어려워졌다. 대신 이 기간 동안 '한중일 불교교류위원회'를 열어 3국간의 교류 실무를 담당할 조직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00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으로는 한·중 두 나라는 불교선수행체험단의 교차상호방문을 시작했다. 97년 제3차 대회에서 '양국 불교의 우호·협력 증진'이라는 취지로 결의돼, 이듬해 한국측 수행단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다. 올해 4회를 맞았다.

2001년 10월 북경에서 다시 재개된 3국 교류대회는 '불교와 환경보전'을 주제로 열려 현실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참여를 제기했다. 이때부터는 '우호교류대회'와 '교류위원회의'도 같이 치러진다.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는 3국의 우호 교류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한 점이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인적 교류 확대… 상호 동질감 회복
세계평화기원법회 개최 큰 성과

이런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북경대회는 '세계불교포럼' 창설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포럼은 한중일은 물론 아시아 불교권 국가를 비롯한 소·대승, 출·재가, 모든 계층이 참가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교육문화, 자선구호, 환경보존, 전쟁반대, 평화수호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는 취지로 중국불교협회와 '3안(홍콩, 마카오, 대만)' 불교계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세계불교도우의회'나 '세계불교승가회' 같은 태국, 대만, 일본 등이 주도하는 단체들을 견제하고 세계불교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 불교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3안'을 자연스럽게 통합 시키겠다는 속셈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교류위원회의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대표 홍파·중국대표 성휘·일본대표 고바야시 스님 등 각국 대표들은 포럼 창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한·일 운영위원들은 포럼창립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결국 홍파 스님의 제안으로 각국 대표들은 추후 세부적인 실무를 논의하기위한 간사회의를 2005년 3월 제주도에서 갖기로 하고 이번 회의를 마무리 했다.

중국 측 대표 성휘 스님은 이날 한국 일본 대표들의 견제를 의식한 듯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포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각 나라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한국측 단장으로 대회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세계불교포럼의 창립을 비롯해 공식적 활동은 반드시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매 2년 씩 한중일이 상임대표를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교류 10년을 맞은 한중일 불교계가 '세계불교포럼'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베이징=조용수 기자

급성장하는 중국불교 배경과 전략

"불교를 국교로" 정부, 불자 양성 '심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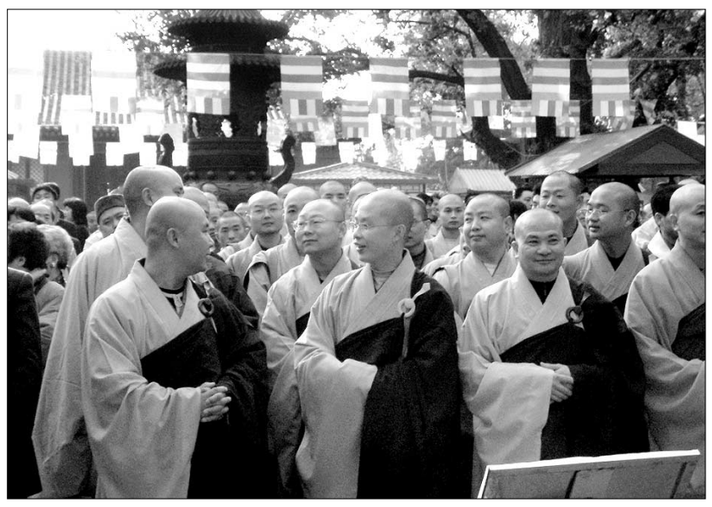
"한중일 교류 10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93년 조박초 거사의 제안 당시만 해도 중국불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산화 50년 동안 문화혁명까지 겪은 탓에 불교는 껍데기만 남은 탓이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지금 중국불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불교의 깊이는 여전히 바닥이 얕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세계불교포럼' 창립 과정도 역시 중국불교의 성급함을 드러낸 결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한마디로 현재 중국 불교는 비익(飛翼)하고 있다. 2002년부터 중국불교협회는 종교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문화재 관리인 취급을 받던 중국 스님이 10년 사이에 25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났다. 사찰의 운영도 승려가 직접 한다. 중국불교는 자신들의 원류를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된 한국에서 찾고 싶어 한다. 중국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큰 존재다.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불교의 행보가 너무나 공격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10월 24일 회량옥(回良玉)부총리를 만났을 때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중국정부는 기독교문명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불교문명의 중심 국가로 중국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족통합, 사회갈등해소, 전통문화복원, 불교를 통한 정신문화의 세계제패가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얼마전 방한한 왕유 종교국 부국장도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었다."(문화관광부 이보경 종무실장)

이번 대회 기간동안 중국불교를 바라본 한국측 대표단은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다. 급격한 중국불교의 발전에 놀라면서도 일방적인 중국중심의 사고가 주변국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 참가단은 별도로 우리의 교구본사에 해당하는 항주의 '영은사(靈隱寺)'와 상해의 '옥불선원(玉佛禪院)' 두 곳을 참배하기도 했다. 그들은 두 곳 사찰을 통해 중국불교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휴일이었던 10월 24일 중국 선종 10찰의 하나인 항주 영은사에 도착했을 때 한국스님들은 참배 내내 수만 명의 인파에 떠밀려다녀야만 했다. 넘쳐나는 불교인구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참배한다는 임제종 계열의 상해 옥불선원에서는 젊은 방장(주지)의 나이에 적잖이 놀랐다. 1999년 29세에 방장이 된 각성 스님은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1970년생이었다. 중장년층 승려가 없는 중국불교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중국 스님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전까지 스님을 현재의 3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올림픽이전 스님 30만·신도 5억명 목표
불교문명 중심국가 부각시키기 의도
"행보 너무 공격적" 패권화 우려 시각도

중국불교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불교를 주창한다. 불교인구는 전체 13억 인구 가운데 2억 명. 전국 각성 마다 하나씩 있는 불학원이 현재 36곳, 2년제와 4년제 과정이 혼재돼 있다.

현재 승려수는 3만명 가량.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이전까지 승려수를 25만~30만 명까지 늘리고 신도도 지금의 2배인 4억~5억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 종교(기독교)활동을 규제해온 중국정부로서는 개방이 본격화될 올림픽이전에 불교를 국교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중국정부와 중국불교협회 조급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원광대에서 유학 했던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주임 보정 스님도 "중국불교는 공산화 이후 단절된 불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수행전통이 살아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한·중 불교계의 협력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스님은 한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계불교포럼' 창립을 통해 동북아권 대승불교의 세계화를 노리는 중국불교의 성장에 놀라면서도 이런 배경에 종교 외적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앞서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춘광 스님은 "오랫동안 도제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정체하고 있는 한국불교계가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대승불교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大韓民國 寺刹은 悠久한 歷史와 燦爛한 文化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찰 Home page 開設로 많은 衆生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世界에 전파하십시오. 貴人이 最先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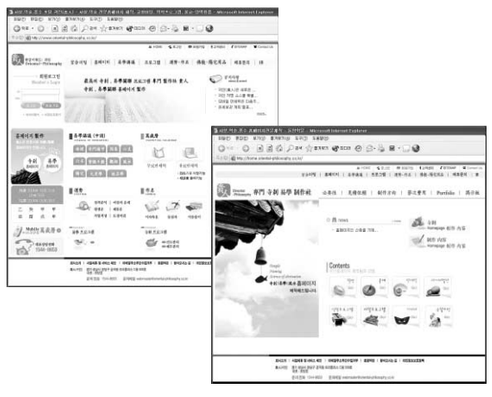
귀인(貴人)은 最高의 寺刹Home page를 만들어 드립니다.

貴人 Oriental-Philosophy 專門 寺刹 易學 制作社

귀인의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차원 높여드립니다

貴人 寺刹 Home page 特別 行事期間 (10월 27일~11월 11일) 特典

1. 最新 업그레이드된 貴人 作名 3.0 1set 無料支給
2. Mobile 萬歲曆 1set 無料支給
3. 貴人 有料 萬歲曆 3년 使用權 無料支給
4. 土亭秘訣, 黨舍柱, 오늘의 운세, 觀相, 꿈해몽 3년 無料링크
5. 日辰 달력 무료링크
6. 무료 이름풀이 3년 무료링크
7. 貴人에서 開發되고 있는 最高의 寺刹프로그램 (신도, 재무) 50% DC된 價格에 提供
8. 마지막으로 寺刹 Home page 계약시 13% DC해 드립니다.





야후(yahoo)에서 귀인, 네이버(naver)에서 동양학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www.oriental-philosophy.co.kr
한글인터넷주소 : 귀인, 동양학문, 신도관리, 사찰관리, 기문, 기문둔갑, 사주대전, 육효, 자미두수, 양택, 오운육기
● 대표전화 : 1544-8653 대표 : 최 양호 H.P : 019-217-3505



성철 스님 봉훈관 조감도.

성철 스님 체취 '가득'

법문원고 · 일기 등 친필 4백여점 전시
성경구절 · 종정 재추대 사퇴서 '눈길'

성철 스님 열반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성철종사 봉훈관(奉訓館)이 부산 해월정사(회주 천제)에 건립된다.

11월 2일 부산 해월정사에서 기공식을 가진 성철종사 봉훈관은 '스님의 뜻을 받드는 공간'이란 뜻으로 성철 스님의 맏상좌이자 조계종 법규위원장인 천제 스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5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430여 평,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봉훈관에는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 3백여 점이 전시되는 유필전(遺筆殿)과 법당, 강당, 사무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유필관에 전시될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는 모두 300~400여점에 이른다. 성철 스님의 사서실장을 지내며 가까이에서 스님을 시봉했던 천제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친필 원고는 법문 원고, 서간문, 일기 등으로 성철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들은 백일 법문 자료, 금강경 해설, 철학 등 종교와 철학 전반에 대한 내용과 승려의 자세, 교리 등 한국 불교의 기준을 잡고, 종지를 바로 세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1965년 8월 22일 날짜가 인쇄된 달력 뒷면에 쓴 친필에는 1947년 봉암사 결사 당시 품었던 불교 중흥의 꿈, 한국 전쟁 과정에서의 좌절, 50년대 비구 정화 사태에 대한 입장,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의 생활 등 성철 스님 생전의 감회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 밖에도 법문 인용을 위해 영어로 적어 놓은 성경 구절, 종정 재추대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사퇴서 등도 눈에 띈다.

봉훈관이 건립되는 해월정사는 1978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휴식 차 머물렀던 도량으로 천제 스님이 직접 불사를 진행했다. 성철 스님 입적 후 법당과 요사채 불사를 진행했지만 스님이 주석했던 요사채와 서재는 그대로 보존했다.

"요란한 불사를 말라"는 성철 스님의 뜻에 따라 불사를 진행하지 않던 해월정사는 봉훈관 기공을 시작으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원을 건립키로 하는등 다양한 불사를 계획 중이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정법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봉훈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월정사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이어가는 도량이 되도록 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월 정기법회 때마다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를 복사해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뜻을 풀이해줬던 천제 스님은 봉훈관 건립이 마무리될 때 즈음 친필 원고집 출판을 검토 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민과 함께한 '개산대제'

은해사 '수림葬' 계획도 발표

10월 24일 영천 은해사. 일주문을 지나자 지역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 알타리 무, 사과, 호박 등이 불자들과 행락객들에게 한껏 풍성함을 뽐내고, 솔밭에 꾸며진 무대에서는 경북도립국악단의 전통우리음악 향연이 솔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10교구본사 은해사가 1195돌 개산대재를 맞아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 솔밭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법회에는 주지 법타 스님과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류성엽 영천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법타 스님은 봉행사에서 "올해 개산대재는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북 도농 네트워크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경내 농산물 장터 운영과 북한 불교사진전, 돌그림, 수예 특별전, 도자기 공예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은해사를 지역의 정신적 요람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또 "장묘시설에 대한 고심 끝에 수습한 유골을 경내 소나무뿌리에 묻는 가장 친환경적 장례문화인 수림장을 한국불교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은해사 1195돌 개산대법회가 2천여명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 열렸다.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 대응

포항사암련, 대책위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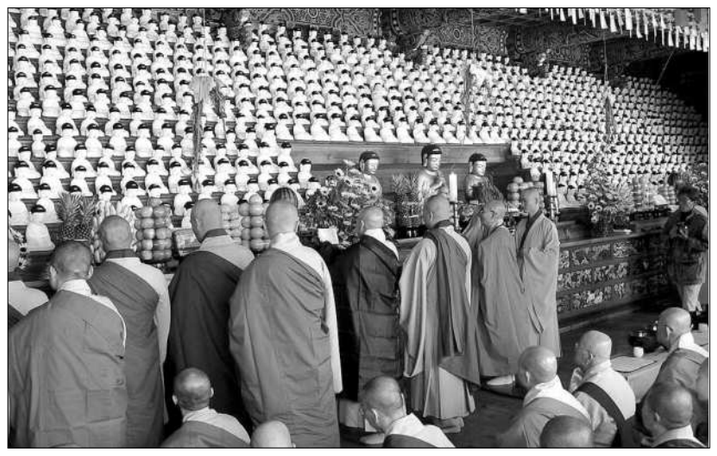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 편향적 활동으로 지역 불교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사암연합회는 10월 27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포항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계종 죽림사 주지 종문, 법화종 무량사 주지 법은 스님 등 포항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포항 거사림회, 포항 여성불자회, 포항불교 청년연합회 등 지역 신행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포항 사암연합회는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에 대한 포항불교 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위원장에 법화종 법은 스님과 부위원장에 천태종 경천, 조계종 종문 스님을 위촉했다.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대책위는 29일 정 시장을 방문해 홀리 클럽 탈퇴와 종교 편향 활동에 대한 대 시민 공개사과 등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지선 기자

직지사, 천불 개의불사 성만


10월 28일 스님들이 개의불사를 마친 직지사 비로전 현겁 천불 부처님께 헌화하고 있다.

김천 직지사는 비로전의 현겁 천불 부처님 개의불사가 성만됨에 따라 10월 28일 前 원로의장 도원 스님과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천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점안법회는 점안의식, 녹원 스님 법문, 시식으로 이어졌다.

점안법회 후 직지사는 11월 1~3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천개의 등과 향, 꽃, 과일, 차, 쌀 등 육법공양을 올리는 부처님 봉안 특별공양기도를 올렸다.

경주 옥돌로 근세에 조성된 비로전 현겁 천불 부처님은 92년 개금불사가 완료됐다.

배지선 기자

금오불교대학 신축 기공식

신행단체들 활동 중심지 기대



구미 봉곡동 다봉산 자락에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재가자들을 위한 포교의 요람이 들어선다.

금오불교대학(어린이회관)이 10월 23일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구미사암연합회회장 정우, 김천 자비원 원장 선해 스님, 김관용 구미 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불사 회향과 구미지역 불교 포교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기원했다.

금오불교대학(어린이회관)은 금오산 정상을 바라보는 구미시 봉곡동 500여 평의 대지에 52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 지상 5층 연건평 1138평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2층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당구 · 탁구장, PC방, 외국어 강좌실을 마련해 어린이 불교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3층과 4층에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 및 선 체조 · 요가 · 사찰 음식 강의실, 시민선방 등이 마련되며, 그동안 사무실 하나 없이 활동해온 구미의 많은 신행단체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송학사, 삼존불 점안대법회

양산 송학사(주지 용학)는 10월 24일 '무비 스님 초청 삼존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증명법사 여천 무비 스님, 법주 동우 명천 스님(향운암 주지)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점안식, 개문, 대웅전 현판식, 사시불공, 무비 스님 법문의 순으로 진행됐다.

봉불식에서는 조각가 유수관 씨가 조성한 삼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문수 · 보현보살이 봉안됐다. 무비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자체가 신심이며 봉불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번뇌 속에 살지만 우리마음의 구족한 자성을 밝히기 위해 일심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라밀 무용단의 불교의식무 바라춤, 살풀이 춤, 산사음악회와 22일부터 계속된 시화전 등 삼존불 봉안 기념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해운정사, 수계 및 참선지도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0월 28일 재가 오계 수계식 및 바른 참선 지도 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지혜 대종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를 증명으로, 진제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를 전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수계 이후 진제 스님의 지도로 바른 참선법을 배우는 시간이 진행돼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제 스님은 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녀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수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나를 찾는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라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공부 길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며 화두가 무르익어 일념이 지속되고 홀연히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선지식의 지도 아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신축 현상기본설계 공모

1. 사업내용

1) 사업현장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1번지 외 18필지
2) 부지면적 : ① 총 시설사업계획면적 : 9,032평
② 시설사업면적 : 4,082평
3) 토지현황 : 관리지역(준농림지)
4) 시설용도 : 불교전통문화교육원, 국제간화선(수행)체험센터, 각종 불교문화체험 및 교육시설.
5) 시설규모 : 연면적 4,000평 내외
6) 소요예산 : 총사업비 약 250억 내외

2. 설계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공모

1) 응모자격 : 건축법시행령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교육연수시설 13,200㎡(4,000평) 이상의 설계 실적이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및 전통건축 설계실적이 있는 설계사업자
2) 응모기간 : 2004년 10월 29일(공고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선정방법 및 절차 : 응모된 기본계획도서를 관계 전문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3. 신청접수 및 현장설명

1) 신청접수
① 접수서류 : · 응모신청서 1부(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열람)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설계실적증명서 1부
② 기 간 : 2004년 10월 29일 ~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③ 장 소 :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 현장설명
① 일 시 : 2004년 11월 5일 오후 2시
② 장 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마곡사 사업현장
3) 유의사항
① 신청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 참석업체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함.
② 사업지역이 전통사찰과 인접하므로 전통사찰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계획을 필요로 한다.
③ 본 시설은 유 · 무형의 전통불교문화체험 조형공간으로써의 성격을 가져야 함.

4. 문의 및 연락처

1)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2) 기관명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 전 화 : **02) 2011-1982, fax 02) 732-9928**

2004. 10. 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태고종 수계산림 이색 출가자들

퇴임교장·공무원·연극인도 '초등생' 보현 스님 단연 화제

지난 10월 27일 264명의 사미(니)를 탄생시킨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은 시작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0월1일 입제식에 앞서 수계산림 지원자는 304명에 이르렀다. 소양시험과 4주간의 교육에서 40명이 탈락하고 남행자 192명, 여행자 72명이 최종적으로 계를 받았다. 이는 태고종 사상 최대규모로 10년 전 50여명의 6배, 지난해 173명에 비해 100여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종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대를 이어 출가하는 '태고종 2, 3세 스님들'이 많아졌고, 종단구성을 4부중에서 6부중으로 바꾸어 결혼한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태고종단의 올 수계식은 여느 수계식에 비해 축제분위기였다. 1000여명의 가족과 은사가 찾아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된 것'을 축하했다.

28기 수계산림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수행자는 동진 출가한 보현(11 · 초교4년)스님. 서울출신인 보현 스님은 어려서부터 동네 용궁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5년 전부터 '스님이 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조르다가 이번에 계

'태고종 2 · 3세 스님' 급증 기혼 수행자 정체성 제고 계기

를 받았다. 수계식후 어머니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보현 스님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림 스님(60)은 경주와 구미지역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둔 지난 7월 퇴임하고 수계산림에 들어왔다. 도림 스님은 "40여년간 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정한 사람됨을 갈구해왔다"며 "지난해 KBS 사장을 역임한 지연 스님 출가소식에 자식들도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세면도구만 들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1969년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전매청, 전남대 등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정성 스님(68)은 "다음 생에나 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홀가분하게 출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15대 품바'등 배우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던 윤명 스님(31)도 "출가인연이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스님 흉내를 많이 내곤했다"며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봉 스님(49)은 경북의대를 졸업한 후 20여년간 병원 원장으로 의술을 펴왔으며 도성 스님(43)은 문화재청 석조각부문 지정문화재이다.

선암사=이준엽 기자

16국사 700년만의 나들이

송광사 6~7일, 진영 이운 및 헌공다례 봉행

승보종찰 송광사 16국사가 700년만의 나들이를 한다.

송광사(주지 영조)는 11월6~7일 송광사 일원에서 '제1회 송광사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국사전(국보 56호)에 봉안된 16국사 진영을 이운, 헌공다례의식을 봉행한다.

16국사 진영이 일주문 밖으로 나오기는 국사전 건립(1369)이후 처음으로 6일 이운의식에는 사중스님 100여명과 신도 1000여명이 참여한다.

16국사 진영은 송광사를 상징하는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과 함께 사부대중의 장엄 속에 국사전에서 송광정까지 1km에 걸쳐 이운된다.

송광사는 국사진영 이운에 이어 헌공다례를 올리고 '중생의 마음이 부처마음'이란 주제의 본격적인 불교문화축제를 시작한다.

문화마당으로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16국사 및 선사 유물특별전'에는 국사 진영과 보조스님의 유품인 목조삼존불감, 목욕신발인 '목욕혜' 등 진품이 일반에 선보인다. 또한 송광사 근세의 선지식 효봉, 구산 스님의 유품과 북한 자수 영정이 함께 전시된다.

제1회 불교문화축제… 삼존불감도 공개 선사 유물특별전·옛 사진전 등 마련

사자루에서는 전통등연구회가 제작한 각양각색의 전통등 60여점이 전시되며, 송광사의 과거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에는 160여점의 옛 송광사 사진이 공개된다. 이밖에 산사음악회에서는 국악실내악단 '도드리', 타악그룹 '땅의 소리'와 가수 안치환, 김원중 씨가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6국사 진영을 모시고 송광사 경내를 돌아보는 의식을 통해 한국불교를 곧게 세운 선사들의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한다"며 불교문화축제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준엽 기자



"사부대중 화합 통해 거듭나라"

혜초 종정 선암사 주석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스님이 태고총림 선암사에 주석한다.

선암사는 10월25일 종정이운의식과 함께 '혜초 종정 대종사 주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혜초 스님은 "태고총림 선암사에 종정으로 방부를 들인다"며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선암사를 중심으로 수행종풍과 승풍을 진작시키자"고 말했다.

종정 주석법회에 앞서 선암사 대중 300여명은 부도전에서 혜초 스님을 영접하고 대웅전까지 '종정이운'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안내로 조사전, 칠전선원을 참배하고 무우전에 마련된 종정원에서 대중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혜초 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무각사, 주한외교관 템플스테이



남도문화 체험 차 광주를 방문한 주한외교사절단이 10월 23~24일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사진).

이번행사에는 스위스, 브라질, 뉴질랜드 등 15개국 주한외교 대사와 가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각사가 마련한 '새벽예불' '스님과의 대화' '산사걷기' '참선과 요가' 등 사찰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했다.

또 주지 광민 스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진지한 시간도 가졌다. 이준엽 기자

미황사, '달마범종' 타종식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23일 제5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주제는 '별이랑 달이랑 사람이랑'.

음악회는 창건 서사시를 시작으로 전병규씨의 창작곡 '미황사의 새벽' '미황사의 바다'가 펴져나갔다. 여기에 지역민들이 직접 공연하는 남도소리, 농요, 색소폰, 우리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대흥사 조실 천운스님, 주지 몽산 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500관의 달마범종 타종식과 미황사 괘불(보물 1242호)을 봉안하고 법문을 듣는 괘불재가 열렸다(사진). 이준엽 기자

'한마음으로 포교·복지 앞장'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창립

광주 동구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인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 스님)가 창립됐다.

10월 27일 무등산 동원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양형일 국회의원, 유태명 동구청장 등 지역기관장과 관내 30여개 사암 주지스님,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초대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국가행정이 지방자치제로 바뀌고 있는 이때 지역, 계층간의 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지역사암들의 연합활동이 요구된다"며 "지역불자들이 하나되어 포교는 물론 대사회복지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각 스님은 혜림(동곡사), 원명(학림사), 혜우 스님(혜룡사) 등 관내 원로스님들에게 원로위원 위촉패를 증정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홍천 천축사

"만다라 도량으로 가꾸어"



홍천 천축사는 만다라성지로 변모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만다라 전시회의 개막 테이프 커팅 모습.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의미의 칼라차크라 만다라(Kalacakra Mandara). 세계불교의 급속한 유입으로 대중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 만다라를 전시 · 봉안하는 사찰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들어선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개원하는 금학산 천축사(주지 동휘)가 바로 그 곳이다.

천축사는 2천여 평의 대지에 총 8동의 법당과 요사로 구성된 전통사찰로, 주지 동휘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만다라 도량으로 변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다라 문화원(원장 동휘)을 중심으로 만다라를 봉안하는 기념관 건립과 수행프로그램 연구, 각종 홍보 기획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1주일간 열린 만다라 산사축제와 매월 1회 열리는 만다라 수행 등은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만다라를 대표하는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주지 동휘 스님의 포부다.

15년째 만다라 수행 보급에 힘써 온 동휘 스님은 "새 세상을 여는 주체로서의 나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바뀌게 된다"며 "만다라를 통해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삶을 관조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곧 만다라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휘 스님은 만다라가 티베트불교의 아류 또는 한국불교와는 맞지 않는 밀교로 격하되는 것을 경계한다. 세계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티베트불교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이방의 불교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면당할 때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만다라 도량을 건립하겠다는 서원도 이 같은 현실을 넘어보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됐다.

전시회·산사축제 열고 성지건립 구체화 기념관 건립·홍보 등 티베트 알리기 노력

서원의 구체화는 만다라를 대중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여는 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깨달음의 눈-나처럼 보라'를 주제로 만다라 전시회를 연데 이어 올해 5월 청주 화장사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동휘 스님의 만다라 성지 건립계획은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도량에 들어서는 순간 만다라 성전에 들어서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가르침을 담은 만다라가 현실화되는 거죠."

박봉영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5차 최면- 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정별 교재 및 실습 테잎 제공

과 정 명	교육비	교육시간
최면-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최면-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1월 15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특 전] 이수증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지연 스님
거제 계룡사 주지
불교원융회 회장

인재·도량 불사 10년

"스님이 공부는 안하고 불사만 해서…" 말꼬리를 흐리지만 지연스님에게 불사는 곧 수행이다. 10년 전 계룡사는 다 허물어가는 도량이었지만 지금은 사찰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관음전, 산신각, 다목적 회관까지 갖추었다. 아직 남겨놓은 불사가 있긴 하지만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시민선방을 열고 불사회향 점안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스님의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학사업, 종교 화합, 봉사 등에도 앞장서는 스님은 최근 뜻 맞는 스님들과 불교원융회를 결성, 거제 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현제 스님
거제 백련암 주지

큰스님 초청법회 인기

'스님'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현제 스님. 처음 거제도와 와서 적잖이 놀랐다. 기복불교가 주를 이루고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에 효행하고, 팔정도에 맞게 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신통을 바라고 복을 비는 불교가 주를 이루는 거제 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스님은 쌍계사 말사인 세진암을 비롯한 조계종 사찰을 중심으로 대덕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거제에 정법의 씨앗을 심겠다는 각오다.



여진 스님
통영 미래사 주지

사철 꽃피는 도량 가꿔

꽃과 나무을 유달리 좋아하는 스님, 절에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스님이 바로 여진 스님이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 3천~4천 그루의 크고 작은 꽃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었다. 이제 미래사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꽃향기 은은한 통영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88년부터 경상전문대 병원 법당을 만들고 병고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살펴온 스님은 당시 의대불교학생회를 결성 지도법사로 활동했으며 지금도 든든한 후원자.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꽃나무를 키우는 스님의 생명 사랑은 이제 통영불심을 가꾸는 일에 쏠려 있다.



법진 스님
고성 계승사 주지
고성사암련 회장

지역화합의 구심점

올 4월 사암연 회장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각 사암 방문. 연합회의 근본은 화합이라 여긴 스님은 파악된 150여개의 사찰 중 이미 80여 군데의 사찰 방문을 완료했고 회원 사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06년 고성에서 개최되는 공룡 세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앞두고 고성 불교의 힘 모으기에 돌입한 것이다.

스님은 공룡 엑스포를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고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연합회 기금 1천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많은 부부들에게 불연을 맺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지성 스님
고성 옥천사 주지

연화산 12암자 복원

88년 지성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옥천사는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다. 1989년 사천왕 조성불사를 시작으로 사찰 진입로 포장, 성보박물관 건립, 극락전 복원 등을 이뤄냈다. 스님은 불사추진위를 꾸리고 천일기도를 봉행하며 법촌(法村)이라 불리는 연화산 자락의 열두 암자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교화연합회 경남지부장을 맡아 청소년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고성사암련 회장을 10년 동안 맡아 고성불교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개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고성경찰서 경승 등을 맡아 찾아가는 포교의 선봉에 서 있다.



승욱 스님
고성 청련암 주지
보리수동산 원장

100남매 키우기 원력

'100남매 키우기' 원을 세운 승욱 스님은 지금 65명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내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보니 아이들이 좋아졌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라 믿으며 살아왔다. 30년 전, 비어있는 청련암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천 번을 용서하자'는 게 스님의 좌우명이 됐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스님은 이제 아이들에게서 받는 즐거움이 더 커졌다. 하루가 다르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아이들을 볼 때면 큰 법당 지은 스님이 부럽지 않다. 아이가 바로 훌륭한 법당이기 때문이다.



성원 스님
거제 금강사 주지

새싹불자 육성 전문가

스님은 유아교육 전문가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93년부터 의정부에서 자비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거제와 통영에서도 유치원을 운영 중이다. 성원 스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엔 일주일에 한번 보시의 날이 있다. 거제에 들어와 베푸는 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유치원생들의 보시금으로 경로잔치도 열고 있다. 또한 전통 예절교육, 다도교육을 어린이교육이나 신도 교육에 접목시켜 전통문화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혜연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젊은 불자들과 '한호흡'

처음 통영지원으로 올 때만 해도 바닷가 사람들이 억세지나 않을까 내심 불안해했다는 스님은 4년이 지난 지금, 통영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과 양보심에 오히려 놀라고 있다고. 도심에서도 좀체 경적을 울리지 않는 통영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내면에 깃든 불심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통영지원은 스님의 믿음만큼 젊은 불자들이 주를 이루는 포교 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들을 포교할 정도여서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중점을 두고 새싹불자들의 꿈이 영그는 도량을 만들고 있다.



김만성 회장
거제
재가불자연합회장

재가불자들의 '대부'

김 회장은 1981년, 불교의 불모지 거제에 거제불교청년회를 창립하고 거제에 정법의 싹을 틔운 주역이다. 김 회장의 집에서 법회를 보던 거제불교청년회 창립을 시작으로 82년 대우불교청년회가 생겼고 90년 거제 거사림회가 결성되면서 거제에 비로소 법회가 시작됐다. 지난해, 거제에서 활동하는 대우불청, 거제불청, 거제 거사림, 보슬회, 보현법우회, 선정회의 협의체인 거제 재불련을 결성,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유아불교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은 불교 유치원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산업단지·해상공원 등 지역 특징 살리며

'나누는 불교' 가꾸기 한창

경남 거제·통영·고성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 공룡의 발자국으로 시공을 훌쩍 넘나들게 하는 고성. 세 지역의 불교 활동을 돌아보는 일은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오밀조밀 자리한 섬들이 자아내는 비경을 감상하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웠다.

거제, 통영, 고성의 불교는 지역의 생산 구조나 경제 사정, 인구 비례 등의 특성에 따라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간다거나,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들로 생긴 변화가 사찰들의 포교활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긴 했지만 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받는 불교'를 '나누는 불교'로 바꾸겠다는 것.

 # 거제 거제의 경우가 최근 들어 '나누는 불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굵직한 업체에 종사하는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복 불교를 탈피,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펴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왔던 거제로선 당연한 변화.

이 변화의 중심은 계룡사를 비롯, 세진암, 백련암 등의 쌍계사 말사와 최근 거제에 자리 잡은 비구니 스님, 재가자 모임이다. 특히 올해 초파일에는 계룡사, 용주사, 세진암, 신광사, 금강사, 대성암, 백련암을 주축으로 거제불교원융회를 결성, 불교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거제불교원융회는 매년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거제포로수용소 천도재 및 다례제 개최 등에 뜻을 모았다.

거제 불교의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계룡사는 보현법우회, 보슬회를 중심으로 타국 생활에 힘겨워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년소녀가장 돕기, 이미용 봉사, 노인급식, 장애시설 봉사 등을 6년째 펼치고 있다. 서예, 수지침, 염색 등의 교양 강좌와 불교교리 강좌를 열어 배움의 장으로도 자리를 굳혔다.

'나누는 불교'를 주도하는 사찰로 빠뜨릴 수 없는 곳이 금강사. 최근 거제에 불어오는 변화를 주도하는 비구니 스님인 주지 성원 스님은 96년 거제와 인연을 맺은 이후 거제와 통영에서 어린이 교육 불사를 이끌어 온 장본인. 또한 지난해에는 자원봉사금강회, 금강다도회, 신도회를 주축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역민 초청 한가위 잔치를 열며 거제불교원융회 태동의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세진암(주지 진성)은 기도 위주로 신도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한편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요사채인 육화실 중창불사를 발원하며 재도약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시설 반야원(원장 도성)은 교계 최초의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거제 불교 복지 실천의 장이자 일반인에게는 체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기복 불교가 판을 치던 거제에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 법회를 가장 먼저 연 것이 재가불자들이었다. 이들은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하는 열정을 보이며 신심을 다져왔다. 매년 개최하는 연꽃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불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매월 한번 꼴로 법회를 열어 대중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 통영 유달리 예술가가 많이 나는 도시로 알려진 통영엔 사명 스님, 효봉 스님, 석두 스님을 비롯 선지식들의 토굴이 많았다. 그만큼 불교의 기운이 성한 곳이다. 세존도, 연화도, 욕지도, 미륵도 등 불교적 지명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통영 불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정감어린 불교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통영 불교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효봉 스님의 토굴이 있었던 미륵산 미래사가 쓰고 있다. 통영 불교를 대표하는 불자들이 대부분 미래사 신도일 정도로 통영불교의 핵심. 자원봉사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미래사는 잘 가꿔진 도량만큼이나 복지나 포교에 대한 원력이 남다르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애인 차량 운영을 진행 중이며 치매 중증장애 노인 시설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관음회, 지장회, 보현회 등은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충무불교청년회, 공무원불자회, 통영 가족 법회인 룸비니회 등이 모두 미래사 창건주 구산 스님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라 외부 조직도 든든하다. 사찰보다는 통영 전체를 우선하는 일들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영에 있지만 거제지역 젊은 불자들 모임을 별도로 결성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도 눈에 띈다. 특히 어린이법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포교할 정도로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돼 있다. 통영 봉축 행사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아이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연화도 연화사(주지 도응)는 통영의 불교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988년 고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연화사는 연화도를 중심으로 한 불교테마 관광벨트 조성을 이끌어 내며 관음기도도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2에는 사명대사와 보원, 보련, 보월 세 비구니 스님이 수행했다는 토굴터를 복원한 보덕암 불사 회향법회를 열어 통영팔경으로 이름난 연화도에 기도도량의 이름을 하나 더 보태게 된다.

통영 불교의 교육사업은 충무불교교양대학(학장 노낙현)이 도맡아왔다. 1990년 설립돼 노낙현 학장과 고인이 된 송정년 지도 법사의 지도로 통영 불교의 일꾼들을 대거 배출했다.

충무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염불봉사, 불우이웃돕기, 지역 청년불자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주최하며 통영불교에 활기를 불어넣어왔다.

 # 고성 2006년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고성. 고성불교는 세계적인 축제 공룡엑스포를 불교가 주도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뛰고 있다.

2005년 공룡세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열어 고성을 알리고 고성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본사인 쌍계사를 능가하는 사세로 고성불교의 중심역할을 해온 옥천사를 비롯 신라고찰로 주지 법진 스님이 고성사암련 회장을 맡으며 고성불교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계승사, 보리수동산을 운영하며 복지와 포교의 양 바퀴를 굴리는 청련암, 고성읍 포교당 보광사(주지 도홍) 등의 활동들이 고성불교의 맥을 잇고 있다. 공룡의 거대한 발자국이 오늘날 공룡엑스포 개최의 인연으로 이어졌듯, 고성불교는 먼 미래에 전해질 불교의 새 역사 쓰기에 분주하다.

거제 · 통영 · 고성=천미희 기자

거제
'원융회' 통해 화합·배움 열기 고조

통영
연화도 불교테마 관광벨트 주목

고성
내년 '공룡세계 엑스포'에 불심 집중



통영의 불교교육을 주도해온 충무불교교양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불자들. 사진=천미희 기자

▌주목! 미래사의 특별한 해우소

사방 흐르는 물에 부레옥잠·물고기 살아



미래사 해우소(사진)는 냄새가 없다. 꽃과 나무를 유달리 좋아하는 여진 스님이 특별 고안한 해우소는 사방으로 물이 흐르고, 물에선 부레옥잠이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닌다. 물이 암모니아 질소를 흡수하고 냄새를 말끔히 없애며 그 작용으로 생기는 이끼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해우소. 풀과 물의 특성을 이용해 정화작업을 마친 물은 다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미래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해우소 앞까지 왔다가도 물고기, 부레옥잠 같은 것을 보고 해우소가 아닌 줄 알고 돌아서곤 한다.

친환경적 해우소의 본보기인 미래사 화장실은 또 한 가지 특별한 변화를 예감하고 있다. 11월 중 공사를 시작해 곧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 여진 스님은 "장기적으로는 법당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싶다"며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첫 출발로 장애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해우소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 삼광사는 지난해 12월 동지때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을 위해 대형가마솥에 4만여명분의 팥죽을 끓여 나누어 주는 행사를 열었다.

◀법회때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참석인원은 삼광사의 힘을 보여준다. 이는 복지 · 문화 ·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으로 이어져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철야정진 생활화

'천수천안' 으로 산다

애국·생활·대중 불교 실현에 35만 신도 '일사불란'

특별법회 때마다 연극 공연 통해 재미·감동 전달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 구룡사
3 능인선원
4 부산 삼광사
5 안국선원
6 한마음선원

부산을 찾는 중국, 일본 등의 불교지도자나 외국 귀빈,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사찰로 손꼽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다. 도량의 규모나 신도 수뿐만 아니라 부산 불교계에서 삼광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한국불교를 알리는 창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삼광사.

삼광사의 등록 신도 수는 35만 명. 3만 5천여 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5천 평 규모로 조성된 대가람. 연 건평 3천 평 규모로 1만 여 명을 동시 수용해 각종 대법회나 문화행사를 봉행할 수 있는 매머드급 종합 불교회관인 지관전. 최첨단 종무 행정 시스템. 정기법회 참석 인원 2만여 명. 백양산 자락에 자리한 삼광사를 설명하는 숫자들은 모두 부산 최고, 혹은 한국 최고의 기록들이다.

1969년, 상월 원각스님의 증명 아래 첫 법회를 연 삼광사 신도 수는 단 3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도의 가정집, 극장, 예식장 등을 오가며 법회를 열던 부산신도회가 33년이 지난 오늘, 신도 수 35만 명을 자랑하는 부산 최대 도심 사찰로 급부상했다. 결코 길지 않는 시간동안 부산 최고의 사찰로 성장한 삼광사의 승승장구 뒤에는 천태종지를 받들며 정진해 온 승가와 재가의 노력이 숨어 있다. 삼광사 발전의 역사 속에는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그리고 '대중불교'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대명제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051)808-7111, www.samkwangsa.or.kr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외국인선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행복교실'로 통하는 삼광사 한글학교는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삼광사 지관전에서 공연된 '흥부전'.

■ "부산 발전 삼광사가 앞장선다"

10월 25일 밤 11시 30분 삼광사 지관전. 10월 관음기도 회향법회가 열리고 있다. 매월 일주일 동안 철야로 진행되는 특별정진을 회향하는 이날 5천 여 명의 신도들이 운집했다. 매일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3시 30분까지 이어졌던 관음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국운융창과 평화통일'을 위한 묵념과 관음정근을 빠뜨리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5천 여 명의 사부대중이 관음정근을 이어가는 시간,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된다. 바쁜 일상을 쪼개고 졸음을 쫓아가며 이어온 일주일간의 기도 공덕을 국운융창을 위해 회향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삼광사는 애국불교의 기치 아래, 나라가 잘되는 길,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중심에 서 왔다.

삼광사 신도라면 누구나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의 중심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진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미얀마 선수단 시민 서포터즈 활동이 그러했고, 주지 도원스님이 아 · 태 장애인경기대회 후원회장을 맡은 일이나 현재 부산 최대의 관심사인 APEC 범시민지원협의회 후원회장을 맡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삼광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약에 기독교 단체가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불교계 시민운동, 사회 참여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불교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았다. '무슨 일이든 삼광사가 하면 최고로 한다'는 인식은 곧 불교에 대한 격상된 평가로 이어졌고, 삼광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산의 일꾼이 되었다.

■ 행복지수 높이는 문화도량

삼광사는 개개인의 행복을 중히 여기는 도량이다. 규모가 큰 대형 사찰은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조직이 크다 보니 개인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삼광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양강좌, 문화교실 등으로 '찾고 싶은 사찰' '머물고 싶은 도량' 가꾸기에 매진해 왔다.

삼광사에서 가장 행복이 넘치는 곳은 한글학교.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한글을 깨치며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행복 교실'로 통한다. 졸업식 땐 눈물에 젖은 편지를 가족들에게 띄우며 '삼광사에 오길 참 잘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 밖에도 삼광한의학강좌, 삼광한문교실, 서예교실, 청소년 독서실 등은 대중들의 다양한 욕구를 알뜰하게 챙겨주는 강좌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난다. 크고 거창한 일보다는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보낸 33년의 시간이 삼광사라는 거목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인 셈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욕구에 민감하되, 결코 대중의 욕구에 휩쓸리지는 않는 것, 이것이 삼광사 행복 만들기의 절대 원칙이다. 매년 초파일, 백중, 동지 등 특별 법회가 열릴 때마다 무대에 올리고 있는 연극 공연은 삼광사의 이러한 원칙을 입증한다. 말초적인 즐거움보다 깊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하고자 연극을 기획, 무대에 올린다.

대중과 함께 하되 대중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지 도원 스님의 지론대로 불교적 소재를 극화해 무대에 올려진 연극은 보살들을 울리고 웃겼다.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극장이라곤 가 본적조차 없던 사람들도 연극이 주는 감동에 젖어 들었다. '호랑각시' '목련존자' '심청전' '흥부전' 등 삼광사 지관전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들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불교 연극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도 들었다. 문화포교가 이뤄낸 커다란 성과물이다. 이 밖에도 민속명절인 칠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칠석예술제, 다도 시연, 삼광합창제 등으로 신도들의 문화지수를 한껏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강좌나 문화 포교는 개인을 수행과 기도로 건네주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삼광사는 철저한 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에서 행복의 절대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삼광사에 다니면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삼광사는 신도 한사람 한사람의 기도와 신행을 특별히 강조한다.

■ '나' 아닌 '우리'의 불교로

삼광사는 엄격한 교육과 신행을 강조한다. 체계화된 초심자 교육을 마치면 매월 관음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 7일간 이어지는 철야기도에 동참하는 인원이 매일 5천여 명을 훌쩍 넘길 정도다. 심지어 종무소 직원들까지 월 5일 이상의 철야기도가 의무화 돼 있고 1500명에 달하는 신도회 간부들에게도 일주일 철야기도, 매년 두 차례씩의 하안거, 동안거 정진이 요구된다.

특히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 종도들이 함께 하는 특별 행사는 천태종도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신심에 불을 당기는 기폭제가 되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삼광사에서는 행사 때만 얼굴을 내미는 간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가 기도하고 수행해보니 불법이 이렇게 좋은 것이더라"하고 신명나게 불법을 전하는 일등 포교사들이 15개 구별 지회에 포진해 부산 전역을 향한 전방위 포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도량이 24시간 개방된다는 것. 이런 저런 이유들로 밤이면 굳건하게 잠겨지는 여느 사찰의 법당과 비교한다면 바쁜 일상으로 낮에는 사찰을 찾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겐 좀체 만나기 어려운 배려이고 희소식이다. 도량의 24시간 개방은 도심에 있는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도심 사찰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행 체험을 통해 불심이 싹트게 되면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싹튼 감사함이 불은(佛恩)을 갚겠다는 봉사의 마음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삼광사 신도들이 이웃이나 소외 받은 이들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된다. '나 혼자' 만의 불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누리는 불교로 승화되는 것이다.

84명의 종무소 직원, 1천 5백 명의 신도회 간부를 비롯, 전통요리연구회, 삼광사차문화연구회, 봉사회, 일심회, 부일회, 합창단 등 크고 작은 신행단체 회원들은 사찰 안팎으로 일어나는 대소사에서 발로 뛰며 봉사하고 있다.

신도회 간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35만 신도들의 신행과 수행을 챙기는 한편, 지역 사회를 위한 갖가지 활동들에 동참하고 있다. 무급 봉사지만, 불은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타인을 위한 봉사에 망설임이 없고, 몸을 아끼지 않는다. 성애원, 정화양로원, 천마재활원, 평화의 집, 그리고 부산교도소 등 부산 전역에서 삼광사 신도들은 불보살의 천수천안을 대신하고 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인 터 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시대 문화 선도하는 사찰 만들겠다"



"삼광사가 부산에 있음으로써 부산시민 모두에게 공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또 새로운 사고와 지혜로 대중들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설 것입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사진)은 언제나 종교와 사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시대 문화를 선도해야 할 곳이 사찰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 고려 시대에 불교가 사회, 문화전반을 주도했듯 현대의 사찰도 사회 전반에 지혜를 주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소신은 삼광사의 활동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문화 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탁월한 감각을 갖춘 스님은 삼광사를 부산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량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꾀하며 삼광사만의 색깔과 멋이 녹아 있는 무대를 선보이기 위한 스님의 노력은 연극, 칠석예술제 등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아직 스님의 고민은 진행형이다.

"직접 해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맛보아야 하는 체험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스님은 향후 그림, 사진 등 문화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과 일반 시민들이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공간, 체험 공간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이미 맛깔스런 사찰 음식을 만들기로 소문난 삼광사전통요리연구회와 함께 사찰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대중 공양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경제도 살리는 템플스테이



촛불 기원을 하고있는 참가자들. 이들은 한국의 불교 문화에 감탄하면서 그런 문화만큼 한국경제도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한국시장' 연등 불빛처럼 피어오르길…

구미공단, 외국기업CEO 투자설명회…직지사서 사찰체험

"구미시가 한국의 현대사업이 태동한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직지사는 아주 오랜 문화와 정신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투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오랜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최첨단의 개발을 이끌어가는 구미의 정신을 모든 세계가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 홀도르즈 : B.khuldorj, 주한 몽골 대사관 상무관)



9살 동준이가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차를 달여 올리고 있다.

그들에 '잊을 수 없는 도시' 심어주자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몽골 · 폴란드 · 독 · 프랑스 등 주한 외국대사관의 외교관과 CEO 16명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지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체험했다.

경북 구미시(시장 김관용)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의 후원으로 구미4공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구미시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갖는 행사다.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최고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직지사 템플스테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걸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중 구미시는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작년 구미시가 개최한 투자설명회의 성공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변정환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발우공양 '눈 감고 쭈욱~ that's good'

28일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구미4공단 투자설명회를 듣고 구미공단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구미4공단 투자현장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오후 5시경 직지사 일주문에 들어섰다.

"Beutiful!" "Great!"

산사체험에 대한 설레임으로 상기된 참가자들은 연신 심호흡을 통해 가을 산사를 빨아들이며 주위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다.

드디어 방사가 배정되고 수련복이 주어졌다.

"다닐 때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법당을 들어갈 때는 중앙을 피해 들어가세요."

간단한 사찰예절 안내와 함께 산사체험이 시작됐다.

입제식에 이은 발우공양시간. 처음 보는 발우도 신기하고 예법도 특이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발우공양의 절정은 그릇 씻은 물을 마셔야한다는 것.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그릇을 깨끗이 닦았다.

"이제 이 물을 마시세요."

서로 둘러보며 웅성거린다. "이 물을 마시라니…"

스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모두 눈을 꼭 감고 물을 쭉 들이켰다.

순간 유일한 꼬마 참가자 스테판(steffan, 7)이 벌떡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한마디 한다. "잘했어요(That's good)!"

스테판의 칭찬에 설법전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한국불교문화가 하나씩 하나씩 모습이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전해졌다.

의젓한 '꼬마 선비' 다도 시연에 감동…감동

저녁 7시 30분, 만덕전에서 다도시간이 이어졌다. 직지사 다도회 회원 18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을 단풍으로 다상을 한껏 장식했다. 사방으로는 오미자, 식혜, 구절차, 연꽃차가 정 중앙에는 녹차가 준비됐다. 먼저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이 진행되고 직지사 다도회 회원들은 큰 절로 이방인들을 환영했다.

갓을 쓴 꼬마 선비(동준 · 9살)가 스승을 찾아가 차를 다려올리며 가르침을 청하는 스승맞이 차례 시연에는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고정됐다. 특히 스테판은 꼼짝도 않고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뚫어져라 쳐다본다. 또래 아이가 절을 올리고 차를 올리는 모습에 감동한 빛이 역력하다.

한국 불교와문화, 다시과 다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다담시간이 끝나고 연꽃으로 장식된 컵초가 하나씩 주어졌다. 만덕전을 시작으로 대웅전을 지나 천불전 박물관 앞의 삼층석탑을 돌아 설법전으로 돌아오는 탑돌이가 이어졌다.

산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은 설법전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스토포, 인도네시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제드 다양, 필리핀)

나라와 모습은 다르지만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서원은 같았다.

"이렇게 좋은데 투자 안할 기업인 있을까요…하하"

29일 새벽3시, 어둠을 가르는 목탁소리에 잠을 깼다.

스님과 함께한 새벽예불, 처음 듣는 법고와 범종소리가 산사를 울리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무엇인가' 알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구냐(Who am I)?'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를 곰곰 의심해 보세요."

직지사 천불선원장 정묵 스님의 법문에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귀기울였다.

대나무비로 도량마당을 쓸어보기도 하고, 한국 불교와 문화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만덕전에서 펼쳐진 탁본체험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사업차 자주 한국에 왔지만 절에 온 건 처음이라는 나탈리(Elkhiati Nathalie, 49, 프랑스 사업가)는 "평화롭고, 자연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을 연발했다.

핸드폰에 사용되는 세라믹 핀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스테판 아버지 아민 알버(Armin Alber, 독일)는 관련업체인 삼성에 관심이 많다. 발우 공양 때 '깨끗한 물을 받았으니 깨끗한 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관 스님의 말에 감명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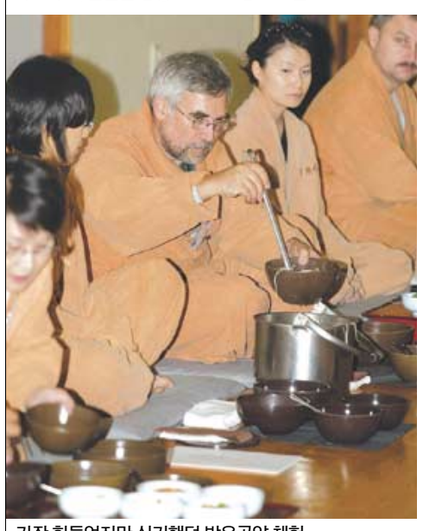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산업무역통상부에 근무하는 스토포(Sutopo 47)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교역과 산업투자 관련 임무를 띠고 한국에 왔다. 무슬림이라는 그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는데, 참선 시간 스님이 같은 물음을 던져 남다른 감명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그는 "이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 기업가들이라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빙그레 웃었다.

제드 다양(Jed Dayang)은 "차를 마시고 공양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을 느꼈고, 한국문화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새벽예불, 은은한 범종소리가 마음을 울린다.



가장 힘들었지만 신기했던 발우공양 체험.



진지하게 탑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



마당을 쓸며 번뇌도 쓸고…



"잘 안되네…" 탁본하고 있는 참가자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 시	교통편	기 간	일 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임시정부, 옥불사 참관 호텔휴식
11월 28일	고속페리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페리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 항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서호유람, 영은사, 육화탑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응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신행의 돛 올렸다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 산하 경찰서 13곳중 처음으로 불교회를 창립하고 '해양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인천해양경찰서 10월 27일 불자회 창립

"경찰포교 더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해양경찰불자들이 구도의 첫 돛을 올렸다. 10월 27일, 해양경찰서로서는 처음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됐다. 이로써 경찰포교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해양경찰청에 불풍(佛風)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대한경불회)는 1989년 경찰청불교회의 창립을 시작으로 전국 14곳 지방경찰청 중 전북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3곳 지방경찰청에 불교회를 창립하며, 경찰불심을 일으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서 13곳 중 불교회가 창립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찰불자들 활동 바다로 확대

인천 연안부두 해양경찰서 3005호함 선상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바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기념법회 현장.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원 100여명과 인천경찰서 공무원 및 인천 수미정사 · 법명사 신도 300여명이 함께 한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격려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법어,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경승단장 도영 스님(포교원장)은 원철 스님(포교원 신도국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많은 해양경찰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고 서로 탁마해,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경승실장 선일 스님도 법어를 통해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창립은 경찰불자들의 활동범위가 육지에서 바다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해양경찰불자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윤혁수 총경 또한 김수경 경무과장(인천해양경찰서)이 대독한 축사에서 "초발심으로 불교회 회원 개개인의 성불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달라"고 축하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 불자회 성낙관 회장(경정)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열띤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 근본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후,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는 민생안전을 위해 사망한 해양경찰 및 전경들을 위한 호국영령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해양경찰불자들의 구심점 자임

직장 · 직능단체 중 단단한 조직력과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한경불회. 4년여 동안의 짧은 역사동안 대한경불회는 전국 106곳의 경찰기관에 불교회를 창립시키고 경찰법요집 발간과 소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찰불자들의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에 있어서만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해양경찰서가 잦은 해항과 순회근무 등으로 정기적인 법회와 신행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경불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해양경찰포교로 잡고 해양경찰청 산하 경찰서 13곳을 대상으로 불교회 결성 유무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방경찰청들의 협조와 자매결연 등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서로서는 처음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됐다. 대한경불회는 우선적으로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찰법요집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를 비롯해 인천 강화서, 중부서, 인천공항경찰대 불교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부산과 목포 해양경찰서 등 나머지 12곳의 불교회 창립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역시 경승실을 개원하고, 종연 스님(수미정사 주지)과 경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을 경승으로 위촉해 불교회의 조직을 다졌다. 또한 해양경찰들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매월 정기법회를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사찰참배 등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 12곳 불자회 창립 장려

사실 해양불심이 피어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앞서 부산해양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이 불교모임을 운영하며 신행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공식 불자회가 아닌, 경찰서 내 불자들 소수가 모여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개별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자체적으로 지도법사 스님을 위촉하기도, 마땅히 신행활동을 펼칠 장소와 교재 등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천해양경찰서 불자회의 창립은 대한경불회의 포교영역 확대 및 해양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 시작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창립될 해양경찰불교회의 선례라는 의미가 강하다. 불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창립 후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불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과 경승단, 경찰불자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종단은 해당 경찰청에 경승위촉과 경승실 마련을 촉구하고, 경승단은 불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회지도 및 상담자 역할을, 경찰불자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불자회 역할과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인 터 뷰

"바다에 연꽃 피우기 작은 일부터 해나갈 터"



"바다 곳곳에 연꽃을 피우겠습니다."

10월 27일 인천해양경찰서 불교회 초기회장으로 선임된 성낙정 경정은 "우선 경찰서 내 불자들을 불교회 활동에 동참시키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공무원 10명 중 불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자임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물 속에 잠자고 있는 불자들을 깨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월 두차례 법회를 통해 회원들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성 회장은 "이밖에도 해양경찰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해전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 및 전경 등을 위해 천도재 등의 뜻 깊은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차고 달리며 화합 다져

대구 운불련 3개조로 나눠 첫 체육대회



대구 운불련은 3일간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우리 운불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친절 서비스에 이름을 걸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10월 26일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는 대구 운불련(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신상용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 쩌렁 울려 퍼졌다.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가 제 1회 체육대회를 10일, 24일, 26일 3일에 걸쳐 조별로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에 열린 1조의 체육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축구, 족구, 이인삼각 달리기, 400 계주, 줄다리기 등으로 이어졌다.

3D업종이라 불릴 만큼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신심과 포교에 대한 열의로 포교일선에 앞장서 온 대구 운불련 회원들은 공을 차고 달리며 현실의 어려움을 벗고 모처럼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대구 운불련 회원들은 몸의 부딪힘을 통해 어느덧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배지선기자

국회 정각회 '재도약' 다짐 법회

24일 국회법당에서 … 회보 발행도

국회 불자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 · 한나라당)가 11월 24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들어간다.

정각회는 창립법회에 앞서 '열린불교사람들-정각뉴스'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불교계 주요법회 및 행사소식 등을 담은 4페이지짜리 회보를 발행하고, 불자의원을 비롯해 무종교 의원들의 정각회 가입을 독려하는 등 내실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 관련 현안과 여론을 수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중인 정각회원들의 의정활동에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각회는 제11대 국회인 1981년 정식 출범해 활동을 지속해오다 1998년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서 회장을 맡느냐는 문제를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7월 10일 조계사에서 양당의 국회의원 13명이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재개했다.

김은경 기자

국정원 세기법우회, 8주년 기념법회 가져

국정원 세기법우회가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8일 국정원 내 국가정보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 및 법우회 회원 80여명이 함께한 이날 자리는 지난 활동을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법산 스님은 "창립 8주년을 축하드리며, 신행활동은 물론 국가의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잉)-양곤-인천

✲문화탐방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미안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마하간디용수도원,만달레이언덕 순례 샤가잉 이동후 쉰우퐁야산,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로카찬다옥불사,차욱탓지파고다,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아침공양후 쌍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미안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호텔 조식후 쉐다곤파고다,아웅산기념탑 경우 쉐도파고다,로카찬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HOTEL | HUPPIM HOTEL CLASS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보트 국내선	17:05 18:35	호텔 조식후 인따족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작지 외발노젖기 관광 팡도우파고다,인펭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호텔 조식후 2,5000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쉐산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호텔 조식 후 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 관광 차욱탓지파고다,아웅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포교당 -
- 위치 : 서울 강북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500만원
- 위치 : 충북 괴산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1억5천만원
- 위치: 대구근교
- 법당 요사 : 60평
- 부지: 800평
- 가액: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중앙동
- 평수 : 55평(온돌방)
- 시설 : 삼존불, 삼존탱화 (법당 외에 방 6칸) 욕실 大, 주방 2개
- 시설비 : 2천 8백만원
보증금 : 3천 5백만원, 월47만원
- 합 : 6천 3백만원

010-9469-003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 부산 10분거리
- 대지 : 179평, 법당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
- 전세 : 4천만원 월세 :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일체 없음
- 즉시 법회 가능

055)335-36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8억

① 서울 사찰 15억 미만 급히 구합니다
② 충청, 강원도 암자 2억 미만 구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포교 최적지
- 2층건물 중 2층
- 건물: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 (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사 찰 안 내
① 대전시 서구오동
- 대 280평
- 대웅전 38평 (원목 목조 건물)
- 대중처소 37평
- 스님처소 1
- 심야전기,주차장,텃밭 (비구니스님적합)
- 융자 : 1억 5천가능
- 가액 : 3억 7천

② 대구 팔공산동화사길
- 대 110평
- 건 70평
- 2F 법당 20평 1F 방 4개
- 4차도로접
- 가액 : 1억 8천만원
- 전세 : 6천만원

③ 청양칠갑산자락
- 대 212평
- 건 35평
- 임법당 25평
- 스님방 1
- 허공산신
- 전세 : 2800만원

017-409-95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3억
- 위치 : 강원도 화천
- 부지 : 1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7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 3천2백평
- 법당, 요사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9415-6831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중심지역대지상가주택
- 1층상가 6개. 2층사찰 대지 110평 건평120평 자신있게 갖춘 도량임
- 가액 총 4억8천 준비금 2억 8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이전 상가에서 매월 170만원나옴. 융자 80%가능
- 대지는 8×6미터. 코너젙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도량

010-3166-8483

사찰안내
- 큰 바위산 밑 농장 12000평 (호도, 매실, 밤 나무)
- 스님방(욕실있음), 친견실, 법당, 공양간 큰방2개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514-7575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
- 부지: 31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8천
- 바다가 보이는 야산
- 위치: 부산 근교
- 부지: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4억 8천
- 위치 교통양호
- 위치: 경주
- 대지: 400평
- 건물: 30평
- 요사채 : 100평
- 가액 : 8억
- 시내에서 10분거리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급)안내
- 요사채, 법당, 산신각, 공양간 총 200여평 가량 됨 은행 1억 2천 융자안고
- 가액 : 3억 4천 170만원

010-3012-4404

암자 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 삼존불,약사여래불, 신중,산신,용왕
- 전세 양도 가액 : 2천 3백만원

052)282-4969
018-550-7260

토굴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재산면
- 산세수려. 청정하고 약수, 식수 풍부
- 평수 : 1,518평
- 평당 : 1만 5천만원

054)674-1832
011-9398-1832

산중수련원 및 개인선방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평수 : 980평(대지 + 전)
- 건물 : 본채 2층(60평, 방 4개, 화장실 3개)
- 별채 1층(10평 방 2개)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4천만원
- 특징 :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전통적인명당 마을과 동떨어져 산꼭대기에 위치함

017-470-017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법화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밑
- 법당, 친견실, 스님방, 욕실 공양간, 큰방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011-514-7575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망우2동
- 평수 : 3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50만원 권리금 : 1천만원

011-280-8020

토굴 안내
- 위치 : 마산시외
- 가액 : 3백 50만원
- 평수 50평,법당1,방2대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5)222-7346

사찰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홍재동 (주차장에 100m오솔길 걸어야함)
- 평수 : 24평
- 가액 : 전세 4천 3백만원 권리금 1천만원 (뒷산 마을제일 끝집) 즉시법회가능

02)3216-95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동구 길동
- 3층. 약 3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방2, 공양간1, 화장실2, 도시가스시설
- 몸만들어와도 즉시 법회기능

010-9907-3157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 돌탑영험부처님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033)766-005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4층중 2층
- 방3개, 부엌1, 화장실1
- 법당 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814-901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홍재 전철역 부근 10분거리 상가건물 1층
- 평수 : 약 50평
- 전세 : 3,206만원 시설완비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2)3216-1118
017-766-2788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포교당안내
- 위치: 성남시 중원구 신흥전철역 옆
- 2층건물중 2층. 평수: 17평
- 임법당, 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용도: 철학, 불교미술 적당

011-806-4867

사찰경내에 독채전세
- 가액 : 4000만원
- 방3개, 욕실, 마루
- 평수 : 27~ 30평정도

017-751-77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 평수 : 50평
-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

052)293-1237
017-856-361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700만원

011-9238-9960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부근
- 법당 : 1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평 : 25평,방 1개,공양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016-9393-13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물 : 요사채 18평(방 4개)
- 특징 : 불심있는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정可)

011-9576-1648
054)832-1648

토굴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마을끝집
- 총평수 : 250평 30평 주택 2채
- 황토목조 건물 주방, 욕실
- 가액 : 5천만원

011-9212-507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신축사찰
- 가액 : 1억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33)534-0407
010-9478-168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동부산 관광지,버스에서 5분거리
- 평수 : 36평, 2층 법당
- 1층 방 2개, 법당 12평 요사채 15평
- 가액 : 7,250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일체 없음. 시설일체

016-819-0318
051)721-67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큰시장 입구 1층
- 구조: 법당(지장보살, 신중단, 영가단) 방2칸, 사무실(기름보일러)
- 조건: 보증금 없이 월세만 35만원 시설금 1500만원(절충가능)
- 여법한 구조, 사무용품, 불기 등 일체양도
- 시골 사찰에 불사를 위한 포교당 용도 좋음

0505-242-2404 / 011-502-8033
신축사찰에 근무할 종무원 구함
(인터넷 필수, 웹프로그래머 우대함)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대지 120평, 하천부지 500평
- 2층 법당 23평, 큰방 1, 1층 요사채, 큰방 4, 목욕탕, 창고, 부엌, 다용도실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7163-19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사지 옆 (3층건물중 2층 시내)
- 건평 65평, 법당, 방4개, 거실, 세면장, 부엌, 수돗물 지하수 이용
- 보증금 2000만원에 월50만원 권리금 1500만원(절충가능)
- 집기일체 양도

043-268-9183
017-378-838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33평(삼존불 모셔져있음)
- 7층 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좋고, 산세수려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8천만원

011-9143-0098

토굴암자 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진주에서 20분 단성 IC에서 5분거리
- 자연경관 수려함. 아담하고 조용한 정남향의 터
- 평수 : 1,030평
- 예상가액 : 평당 5만원

011-570-1317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후일 지급해도 됩니다

011-678-0807

암자안내(작은)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70평, 건평: 40평(무허가)
- 가액: 7천 5백만원
- 즉시입주가능

051)643-4109
055)323-2858
011-9542-5726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55)674-2202 / 010-8019-4862
고성(경남)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 평수 45평, 3층건물 2층
- 큰법당 1칸, 방 2칸,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불 및 산신탱화, 용왕불 및 용왕탱화 영가단 설치
- 전세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모든집기 포함) 1500만원
- 몰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타지역 이사 관계로 급히 연락바람

051)327-0477
019-556-60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사찰겸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부천 부천역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법당 1개 방2개 거실 욕실
- 대웅전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5십5만원 시설비 1천 4백만원 포교요충지
- 스님개인사정상 급매.비구니스님, 비구스님.법사님.보살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주차는 80%. 주인직거래

032)667-84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 (목조,단청,삼포 칠포)
- 요사 : 70평(2층)
- 산신각 : 20평(목조, 단청)
- 가액 : 4억 1천만원
- 특징 : 법당 불사에만 7억이 소요됨

동진불사 서울 018-536-4064
대구 018-689-0455

창원중심지역 불교용품점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평수 : 12평. 1층
- 물품대금 일체 3500만원

주간)051-208-7074
야간)011-872-404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중구
- 평수 : 57평, 전관
- 삼존불, 삼존탱화, 한옥식으로 잘꾸며져 있음
- 가액 : 합 6천 5백만원 (보)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 위치 : 부산 진구
- 평수 : 47평
- 가액 : 합 2천 5백만원에 월 40만원 권) 5백만원

010-9469-0032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2005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
사찰명, 주소, 연락처 인쇄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염불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모집
행자, 공양주 구함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창녕 구화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使用許可書
• 신청인 : 김영화
• 신청번호 : 2M0304O9-0742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우성아파트 101동 709호
• 추모단번호 : 불교형 부부단 114L 3-6번
상기 추모단 사용을 許可합니다.
2003년 7월 5일
본허가서는 海印寺 미타원에서 발행한 使用許可書임을 증명함.
海印寺 미타원 011-9252-5959

바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2기 역학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神 비법 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과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담 법경 합장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緣
• 강 의 : 매주 월 회수 10시 30분부터~17시 30분 까지 5시간 강의
• 연락처 : 055-573-7832 / 010-3189-3525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신묘한 구성학
사주없이 간단한 숫자만으로
래방객의 래정 및 처한
상황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성학을 개인지도함
(출장가능)
02)2274-0443
019-446-4755

불교유치원 조리사 구함
(자격증 무관)
숙식가능한자
일 · 공휴일 휴무
011-9129-5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장기도 영험도량
▷ 부산
051)781-0089
011-1751-5552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철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기도스님(비구) 모십니다
▷ 산중사찰
010-3383-4111

비구니 부전스님,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40-50세)
▷ 경북 청도
011-540-7739

사찰 부전스님 자리 구합니다
(비구스님)
▷ 서울, 경기도지역
011-837-3207

저는 조계종의 혜담스님 입니다.
2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기도 중 신병을 얻어 병원에 반년 간 있었으며, 거의 2년간 고생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안성의 도성사 도성큰스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널리 알려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성큰스님은 이런 신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016-562-3533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041)864-9143
011-392-6885

조용한 암자에서 무보시로 기도스님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011-850-017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경기 곤지암
011-844-43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공양주보살님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54)636-02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출, 퇴근 가능.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016-475-1108
010-5541-6568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모십니다
▷ 나이 : 20 ~ 40세
부산 시내 포교원
018-801-23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까지 하실분
50대이하
017-751-7757

조용한 암자 황토방 1개 사용하실 기도나 공부하실 비구스님 원합니다 운전하실 줄 알면 더욱 좋습니다
011-9126-2266

기도스님 원하시는 사찰에서는 연락바랍니다
010-6264-5799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용왕,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041)541-3545.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불모 오재택의 작품 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재택

불교, 홍범구주학, 명리학, 한의학 고전, 고대사, 문화사 분야의 출판원고 대필
• 한문고전 번역.
• 천지명양 무차대회, 생전예수재, 구병시식, 천도재 등을 학문적으로 기획하여 집전합니다.
소양호 청평사 토굴
최남석 (일묵) 011-368-3910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간, 월~금)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 (본학회 회장)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임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발명특허 (주)황토만세 웰빙황토
氣
• 사찰암자토굴법당제작 및 리모델링
• 황토방 팔각정 가정찜질방 원두막 흙집 ※ 전국출장상담
〈주〉황토방주택사업부
전국시도 영업소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017-409-9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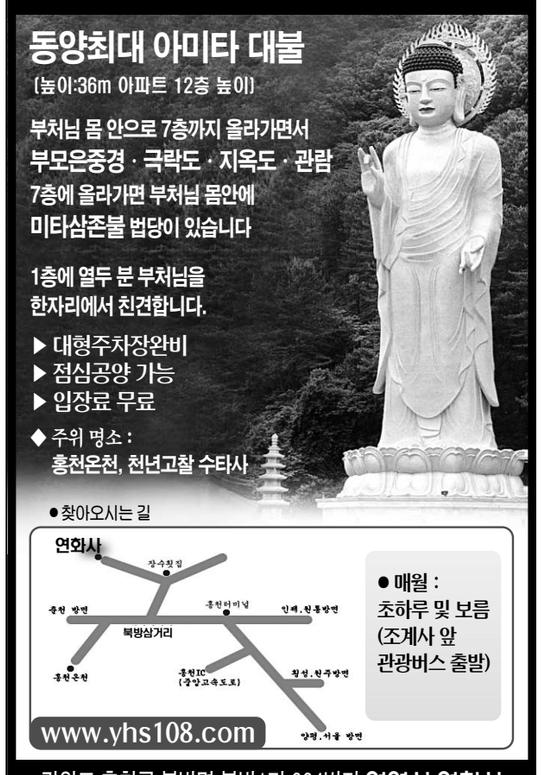
이십팔숙 특별 지도
• 사주를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 쉽게 설명 – 이십팔숙은 부처님이 설하신 묘법 –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역학수강생모집
• 매주 금요일 15시 (초보, 주야반)
• 특수비법 : 영가찾는 법, 개운법, 신살암기법, 쉬운 오행비법, 초보자도 들으면 기억됨
• 역학프로그램 공급 • 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백세 역리원(신사역 6번출구) 02)542-8404
011-9150-2284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 (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40포入 : 20만 원) ●2BOX (120포入 : 35만 원)
사 은 가
● 1BOX (60포入 : 15만 원) ●2BOX (120포入 : 25만 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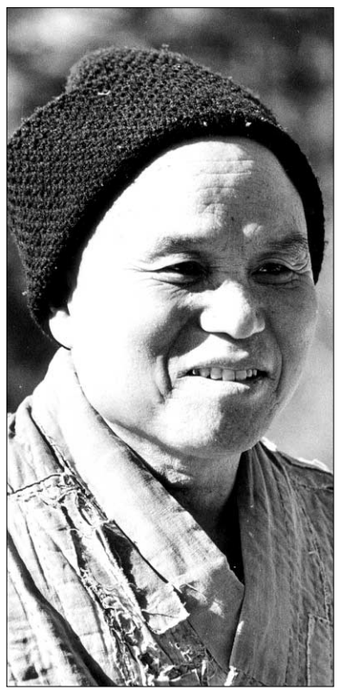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4. 12. 1.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성철 스님의 '진면목'을 논한다

백련문화재단 11주기 맞아 5일 고려대서 학술회의

생애와 사상 다각적 연구… '돈오론' 재조명


윤원철 교수


김광식 교수


김영욱 박사


박해당 박사

퇴옹당 성철 스님을 동아시아 선종사상사의 맥락에서 조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스님의 진면목에 다가서기 위한 학술회의가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주최로 11월 5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다.

성철 스님 열반 11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돈오돈수론뿐 아니라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성철 스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골 주제인 돈오돈수론을 직접 다룬 논문으로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의 '돈오돈수론의 문화비평적 의의'와 김종인 고려대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성철의 돈오돈수'를 들 수 있다. 윤원철 교수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과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론은 각각 상이한 근기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김종인 교수는 성철 스님의 주장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해 있던 한국 불교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뤄졌다는 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허우성 교수(경희대)는 성철 스님의 사상을 실천적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허우성 교수는 간디와의 비교를 통해 '순수절대불교'를 지향한 성철 스님의 실천적 측면을 평가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논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논문은 김영욱 박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퇴옹의 간화선'과 박해당 박사(서울대 규장각)의 '성철의 법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 전자는 다루기 쉽지 않은 저술로 정평이 나 있는 <본지풍광>을 통해 성철 선사상을 밝혀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후자는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해당 박사는 <한국불교의 법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철 스님의 오류를 파헤친다. 다음은 이들 두 편의 논문 요약.

김영욱 '퇴옹의 간화선' "'본지 풍광'에 간화선사 면모"

성철 스님이 직접 100칙의 공안을 선별해 해설을 붙이고, 게송 등을 비평한 형식의 <본지풍광>에는 조사선의 세계와 한 몸이 돼 살아간 수행자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안목과 간화선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 점에서 <본지풍광>은 성철 스님의 간화선사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다.

<본지풍광>에서 성철 스님은 알려진 선어와 게송 등을 재구성해, 또 하나의 화두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두를 겹겹으로 배치하는 방법 △허언(虛言)을 던져 착각을 유도하는 방법 △경계에 의탁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철 스님의 선법을 이해하면 '돈오'의 내적 맥락 파악이 훨씬 용이해진다. 본질적으로 은산철벽일 수밖에 없는 화두를 겹겹으로 배치해 접근할 길도, 빠져나갈 길도 막힌 상황에서 화두는 어떤 의미로도 환원되지 않기에 단계적인 공부란 가능하지 않다. 어떤 공안이든 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은산철벽이며 그것을 타파하는 방법은 돈오일 수밖에 없다.

간화선은 돈오를 종지로 표방하거나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상적 맥락에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으므로 간화선의 사상과 수행법에서 돈오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성철 스님 간화선의 핵심을 밝히는 일과 통한다.

박해당 '성철의 법맥…' "이념적 사자상승 선택"

성철 스님의 태고종조설 옹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 <한국불교의 법맥>에서도 법맥 형성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제자의 깨달음에 대한 스승의 직접적인 인정'을 정작 자신의 태고종조설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고종 조실은 '태고보우-환암혼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휴정'의 법맥을 주장하지만 이들 스님 사이의 직접적인 인가관계는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법맥은 휴정 스님 자신이 밝힌 법맥과도 상이하다. 보조 · 태고종조설의 핵심 쟁점이 휴정 스님의 법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간과될 수 없는 오류다. 즉 벽송지엄 · 부용영관 스님의 법맥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으며, 벽송지엄 스님은 멀리 고봉 · 대혜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휴정 스님은 밝히고 있지만 그 사이의 구체적인 인맥은 제시한 바 없다. 이런 법맥관은 '뒤에 깨달은 이가 증득한 경지'에 의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인가를 중시하는 성철 스님의 법맥관과는 상반된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며 자기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태고종조설을 옹호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자상승(師資相承)보다는 이념 · 명분적인 사자상승을 선택한 결과로 봐야 하며, 여기에는 임제선풍을 통한 한국선불교 수행전통 확립에 대한 서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十'자 건물지 첫 발견 경주 남산 인용사지서

금동여래 입상등 다량 출토


통일신라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전(傳) 인용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당나라 감옥에 갇힌 신라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628~694)의 석방을 기원하기위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경주 남산 인용사지에서 '+'자 형태의 건물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을 2002년 11월부터 발굴조사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10월 29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2기의 탑지 외에 중문지, 금당지, 동 · 서회랑, 익랑, 담장 등 통일신라시기의 사찰가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기초시설 유구들을 공개했다. '+'자 건물지는 중문지로 추정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발굴팀은 중층의 누각형 건물 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종 와전류, 토기류, 자기류와 소형 금동여래입상(4.2㎝), 치미(잔존높이 100㎝, 폭 70㎝), 토제 소탑(높이 6.5㎝), 팔부중상(八部衆像)이 부조된 탑 기단면석, 다수의 명문와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 치미는 복원할 경우 높이가 약 120㎝ 가량 돼, 황룡사지 출토 치미(높이 182㎝, 폭 105㎝) 다음으로 큰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불교 가르침 韓 · 日 상생의 뿌리 확인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 '21세기 한일간의…' 성료

"국가간 공생원리 실현은 시민주축돼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상생(相生).' 하지만 지금 보이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은 '상생'이라기보다는 '공멸'을 향해 치닫는 것만 같다. 이 같은 시점에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소장 홍윤식) 주최로 열린 제3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1세기 한일간의 상생을 위한 제문제'는 상생의 철학적 개념부터 한 · 일간의 정치 · 경제적 상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최근 홍윤식 교수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표방한 "일본 연구를 위해서는 불교연구가 필수적이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불교 관련 주제 논문이 다수 발표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일본 불교 연구에서 한국불교 인식의 문제', 김영필 박사(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한 · 일간의 공생정치', 김도형 계명대 교수가 '한 · 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를 일본측에서는 호리에 야스히로 규슈대학 교수가 '글로벌화 속의 일본경제', 이시가미 젠노 다이쇼대학 교수가 '불교와 공생의 이념과 실천'을 발표했다. 또 롤란드 피취 뮌헨대 교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대행스님의 공생론 고찰'에서 비교종교학적 관점으로 두 인물의 공생 사상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피취 교수는 논문에서 "엑카르트(1260~1328 · 독일)는 만물이 하나라는 공생론을 주장한 엑카르트와 만물만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진리를 한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며 비교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피취 교수는 "엑카르트가 말하는 신과 합일된 '영혼의 근저(Grund)'는 대행 스님의 '근본자리'와 같으며, 인간이 되돌아가야 할 지점으로 봤다는 점 또한 일치한다"며 "'놓음' '초연' '관법' 등의 수행 방법상의 유사점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은 다름 아닌 "우주 전체의 만물만생이 다 함께 연결돼 돌아가며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체험을 통해 공생은 당위가 아닌 사실로 확인됨을 피취 교수는 강조했다.

김영필 박사는 한 · 일간 공생을 위해서는 "한 · 일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단 뒤 "양국간의 국가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 중심의 공생프로그램보다는 양심적인 한 · 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공생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시가미 교수는 1920년대 일본 내에서 활발했던 불교 공생활동 조직 '공생회'를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미술사학회 ·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 추계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미술사학회는 11월 5 · 6일 통도사에서,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서용동덕여대 강사의 '중국 돈황 예술과 벽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쿠다께 규슈산업대 교수의 기조강연 '설화를 통해 살펴보는 불교회화'를 비롯해 6명의 소장 미술사학도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화엄과 선'을 주제로 열리는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는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초의의 다선사상', 석길암 전임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의 '화엄의 상즉상입설 고찰' 등이 발표된다.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은 쉽니다.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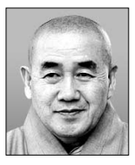
태고 보우국사 탄신다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1시 북한산 고양 태고사에서 태고보우국사 탄신 703돌 탄신 다례법회를 봉행한다.



봉은사와 공양미 실천 협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1월 7일 도농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봉은사와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소쩍새 가족과 한려수도 순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10월 28~29일 소쩍새마을 가족 70여명과 직원 12명 등 총 82명과 함께 통영 한려수도를 방문했다.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조계종 자원봉사단장 지원 스님은 11월 5일 안성 너리굴문화마을 연수원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한다.



대웅전 복원 준공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0시 삼존불 · 탱화 점안 및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순국선열 위령 만등불사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향산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0시 남원 만인의 총에서 순국선열 위령대재와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학생들과 서사극 관람

금강대 김유혁 총장은 11월 3일 재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공연되는 뮤지컬 서사극 '더 플레이 엑스'를 학생들과 함께 관람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제 2대 원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제 2대 회장에 김인숙 국민대 명예교수(사진)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김 교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4년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발전의 싹을 틔우고 있다"며 "기존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추진, 부처님법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민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여교수연합회 재정위원장, 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취임식은 11월 24일. **강신재 기자**

금강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외국인 교수 3인이 본 '한국불교'

화엄과 선의 조화 '절묘'

이시이 코세이(코마자와大)



"한국불교의 화엄사상은 중국 · 일본과 비교할 때 실천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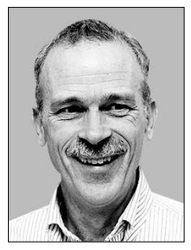
화엄학의 대가 이시이 코세이 교수(코마자와 단기대 · 사진)는 한국불교의 특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시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화엄경 신앙이 존중되며 선종사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발전해왔다"며 "화엄신중을 신앙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원효 스님의 통불교 사상에서 찾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불교에서 주류는 의상 스님 계통이었고 원효 스님은 비주류였다"며 "원효 스님이 20세기 들어 부각된 것은, 그가 중국 · 일본에서 공통되게 존경받는 선사였기에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재발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8세기 신라불교'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듯이 특징은 엄연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활용 세계화 필요

찰스 뮐러(뉴욕 스토니브룩大)



"한국불교는 살아있는 불교,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불교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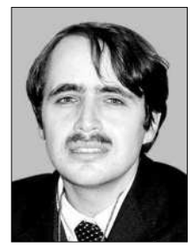
뉴욕 스토니브룩대에서 '함허 기화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불교에 정통한 토요가쿠엔대 찰스 뮐러 교수(사진). 전자불교사전을 개발, 불교정보화의 선구자로 꼽힌다.

한국불교 서적 번역이 미진해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뮐러 교수는 "해외 연구가 원효 · 지눌 스님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두 스님 외에 소개된 스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근대 고승에 대한 소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번역 사업 외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외국대학 내 한국불교 학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내 불교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용어표준화에 대해 "필요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로, 단어에 매몰된 표준화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문제 해결 최적의 종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大)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교계의 화두가 돼야 합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모스크바대학에서 고대 가야사를 전공했으며 2001년 한국에 귀화, 여러 저술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 · 사진). 금강대 국제불교학술회의 참가차 귀국,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를 면회, 격려하는 일만큼은 잊지 않는 열의를 보였다.

"계를 받은 바도 없고, 신도증도 없는 엉터리 불자이지만 부처님 법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불교야 말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극단적인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출세주의와 소유욕의 허구성을 깨우쳐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불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경찰 포교 더 노력할 것"

대통령 표창 장곡 스님



10월 21일 제5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들의 정서 순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충남지방경찰청 경승지단장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 · 사진)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회의 대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곡 스님은 부여 · 공주경찰서 등을 창립시키며, 경찰불자들의 활동을 장려해왔다. **김은경 기자**

"교화 활동 더 큰 관심을"

법무부장관상 성원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사진)이 재소자 교화 활동에 힘써온 공로로 10월 25일 법무부장관상을 받았다. 스님은 인천구치소, 안양소년원, 영등포구치소 등의 재소자들에게 정기적인 재정 후원 뿐 아니라, 각종 명절 때마다 따뜻한 손길을 보내왔다.

성원 스님은 "불교계에서 교화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이웃과 함께할때 행복"

서울사랑시민상 법경 스님



서울 능인정사 법경 스님(사진)이 19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10월 28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 왔다. **김은경 기자**



"학술 · 학인대회 통합할 터"

전국승가학인연합 새 의장 인오 스님

"전 강원의 스님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학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박하고 학인승다운 행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10월 25~2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17대 전국승가학인연합 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인오 스님(해인사 강원 사교반 · 사진)은 "전국승가학인연합이 열어온 주요 행사인 학술대회와 학인대회를 하나로 통합해 학인스님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후원의 밤



미국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도영 · 종상 · 지명) 발족식 및 후원의 밤이 10월 27일 열렸다. 이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10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고령화시대 노인의 성(性)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노인문제 연구 소장 홍미령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개원 1주년 심정 스님 초청법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1월 28일 대만 불광산사 종장 심정 스님을 초청,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심산 스님은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 · 호흡 · 운동요법 · 물리요법 · 자극요법 · 자세동작교정요법 · 정신심리요법 · 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 · 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곡 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수험생을 위한 합동영가 천도

선망부모 유주무주 태아령, 조상령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10만 영가 구제서원 국난극복 소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재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옵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재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번에 합동천도재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재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재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재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재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재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 항상 어께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재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재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장애가 있는 줄을 알고 몇차례 천도재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재를 지낸 그날 밤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꾼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 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재 이후 짖눌렀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또 어떤 불자님은 여러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 보았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정진이 잘 안되었는데 합동천도재 이후로 늘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두통증세까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재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오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재 동참 보시금 : 20만원 동참 [수자령 영가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수험생을 위한 합동 천도재 :** 자녀들이 자기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자녀를 둔 불자님들께서는 동참을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윤 세 원
인천전문대 교수 · 우리는선우 운영위원장

관습헌법과 '갑신칠적'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후처리의 짐과 향후의 과제를 던져주면서 여러 측면에서 만만찮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누구도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을 것' 이라는 언급에서도 그 전조를 감지할 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치판에서의 여야 대결은 상생보다는 사생결단으로,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의 싸움으로 일관하는 것이 일종의 관성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충돌과 대결 양상이 여야라는 정당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과거와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달라진 하나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집권층이 안정을 선호하고, 야당은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오늘날은 대통령과 여당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야당은 그것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대체로 동일한 상황인식을 갖는 국민들과 공무원, 법관, 교수단체, 시민단체, 언론매체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당의 변화시도 예컨대 행정수도의 이전, 보안법 폐지, 과거사청산 등을 가능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대항 세트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끝없는 저주의 언사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법리적 타당성도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논리적 설득력도 충분치 못한 관습헌법이라는 용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국대전까지 동원하는 기발함은 결국 대항 세트측의 손을 덜어 주기 위한 묘수로 보이며, 재판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헌재는 기득권의 관성체계를 유지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국가의지의 최종적인 결정을 시정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성매매와 호주제도 관습이라는 준거를 들이대면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법 해석에 저항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조짐을 대중적 지지도와 명성을 가진 어느 철학자가 그들에게 붙여준 '갑신칠적' 이라는 딱지에서 읽을 수 있다.

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지키고 유지되어야 할만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박제된 관습이 산 사람의 미래를 망치는 불행한 결정인지를 가리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습헌법' 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리논쟁에 한가지 의견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안이하게 대처하여 정부정책을 따른 국민들의 희망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 집권여당과 노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인식과 시대정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현실인식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들의 시대정신은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역동적 변화의 세기인 지식정보 사회에서 농경적 현실인식과 전근대적 시대정신의 소유자들에게 국가의사결정의 마지막 과정을 맡기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마냥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란 무상(변화) 연속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고, 사회는 변화의 현장이며, 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의제' 보다 중요한 건 '실천'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은 오늘날의 불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구체적인 실천활동이다. 그리하여 지난 2년간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을 위한 2차례의 불교환경워크숍 등을 통하여 불교환경의제21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10월 28일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제3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알다시피 불교환경의제21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불교계의 약속이고, 실천방안이다. 그러기에 단순히 일회용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작성된 의제21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100여개의 크고 작은 불교계내의 환경문제를 통하여 그것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피해(被害)이건, 아니면 내부적 요인에 의한 자해(自害)이건 간에 그동안의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불교환경의제21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래도 불교계 내부의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성적인 참회를 바탕으로 한 지난 2년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불교계의 기본적인 환경에 관한 청사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일부의 불교환경단체와 사부대중과 종단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범위를 불교계 전체로 확산하고, 사회로 환원하는 실천적인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불교환경의제2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계 전체의, 특히 종단내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종단내부의 관련법제정과 조직의 정비, 예산의 확보, 교육 홍보 등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와 각 교구별 조직정비,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내의 모든 사부대중들도 이 시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면서 현실과 우리의 생활속에서 불교환경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병인(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돈에 물든 교육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열반경〉

과외교사 8백여 명과 학생 3천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 과목당 1백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기에 유명 인터넷 과외알선 사이트가 검정고시 출신을 명문대 졸업자로 둔갑시키는 등 교사들의 학력은 물론 학원 강의경력까지 위조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삐뚤어진 사교육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좋은 대학, 직장에 취직해야 '대접'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교육이 지나친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돈' 에 물들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과외가 판 치고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면서, 학교 교육 자체는 붕괴됐다. 결국 교육이 '벌이' 의 수단으로 전락된 셈이다.

현실이 이쯤 되다보니, 스승도 제자도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 으로 스승도 사고 제자도 살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그럼 부처님은 참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 도리에 맞게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적어도 오늘의 교육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비싼 교육=명문 대학' 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작금의 현실이 씁쓸하다.

■김철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회활동 불길 '활활' 타오르길

지금까지 불교계가 하는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다. 불우이웃 돕기 모금 현황 리스트만 봐도 개신교 단체들의 이름은 줄을 잇고 있는데 불교계 단체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497호 대안학교 기사를 보면서도 '역시 불교계는 사회 참여를 참 못하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 개신교야 워낙 신도 조직이 체계적이고 재정도 좋아 사회참여를 통한 전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유명하지만 원불교가 우리 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도 수로 보면 원불교와 불교의 덩치 차이는 엄청나지 않은가. 항상 뒤처지는 듯한 불교계를 보며 이래서야 불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불씨는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계에 하나 밖에 없다는 '작은학교' 때문이다. 종단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뜻있는 불자들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아름답게 여겨졌다. 종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 시설의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기는 힘들다. 종단의 지원을 바라기보다 스스로 팔을 걷고 나서는 불자들의 활약상이 더 기대되고 감동적인 것은 악전고투를 마다않는 용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불교>가 앞으로 불교계의 사회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박길남(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하다

요즘 절에 다니다보면 상식 이하의 스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찰을 스님이 임의적으로 매각했다는 등 불미스런 일들이 불자들에게 회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비단 불교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주변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교의 폐해가 심각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던 모양이다.

종교단체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비영리단체다. 종교단체의 재산이나 수입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교가 성역으로 간주되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 현 법률체계로는 종교단체가 부패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교법인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도덕한 종교단체를 규제하는 일은 이 보다 앞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종교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제공해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화(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조계종 인권위에 바란다

조계종이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 없다.

사실 불교에는 어느 종교보다 우수한 인권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며 무차의 법을 설했다. 이러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교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이웃 종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형제 폐지 운동을 비롯한 인권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 사형제 폐지운동과 같은 큰 이슈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보듬는 일까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번 조계종 인권위 출범을 통해 불교가 명실상부한 인권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제갈도(서울 종로구 내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2. 교 과 목 :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맛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3. 교육기간 :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4. 지원자격 : 학력 경력 제한없음

5. 입학일시 : 2004년 11월 11일(목) 13:00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內



인 사 말 씀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2기 교육생을 수련시키면서,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스님과 불자님들의 반응 또한 기대 이상이라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연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 一路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혈액암 투병 지연 스님에게 도움을

O형 혈액 급구…치료비 1억여원 예상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자연 스님이 치료를 받고 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한 비구니 스님이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연 스님이 혈액암 치료에 필요한 O형 혈액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

자연 스님은 올 8월 정상적인 혈액이 생성되지 않는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쓰러져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면역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경 속가의 언니에게 골수이식을 받아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혈액이 부족해 8명이 수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 스님을 돕고 있는 중앙승가대신문 편집장 종걸 스님은 "혈액 부족도 심각하지만 전체 치료비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혈과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연락처 019-434-7044(종걸 스님) 후원계좌: 농협 241033-55-000363(학교법인 승가학원)

유철주 기자

미얀마선원 연내 재개원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본사 나눔캠페인 통해 법당 임대·3천여만원 모금


산디마 스님이 미얀마선원이 들어설 가회동 한옥 앞에서 법당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도움 주신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진의 마음을 간직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포교에 전념하겠습니다."

8월부터 진행된 본지 나눔의 손잡기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 돕기' 캠페인에는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이 1억5천만원을 들여 법당을 임대해준 것을 비롯 당진 보덕사등 4개 사찰과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법회등 3개 모임, 정안 스님등 12명의 스님 · 83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총 3천1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특히 청송 보리사 일진 스님이 1천만원을 보시한 것을 비롯해 정안 스님등 비구니 스님 아홉명이 300만원을,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행모임인 한법회에서 100만원을 보시했다.

이미 30만원 성금을 기탁한바 있는 이종명 보살은 최근 이사한다는 보도를 듣고,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보내왔고, 문영숙 보살도 200만원을 보내오는 등 두달 동안 불자들의 보시가 줄을 이었다.

10월 초 서울 가회동 한옥으로 이사 한 미얀마선원은 12월 개원 일정을 잡고, 현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도움주신분

일진스님 1천만원 불일선원 10만원 만인스님 20만원 인철스님 50만원 정안스님 등 도반스님 9명 300만원 미타선원 10만원 고림사 3만원 용마사 10만원 산유화 30만원 대구 한마음선원 한법회 100만원 윤병식 100만원 이정명 530만원 김종남 문영숙 김원석 김유리 김유정 200만원 임종덕 3만원 박태원 10만원 김윤희 10만원 이연희 1만원 이준엽 10만원 김유 20만원 정수연 10만원 윤병석 2만원 고영조 2만원 장찬석 3만원 정연호 5만원 권정현 10만원 장성우 5만원 강부옥 10만원 이만채 5만원 장성우 5만원 양경철 10만원 강성진 3만원 정성원 3만원 산유화 20만원 이석진 1만원 양유미 10만원 황정심 10만원 김덕화 10만원 양지숙 30만원 임완숙 10만원 도양숙 1만원 방미애 5만원 이용채 6만원 이석순 2만원 양승희 10만원 양경철 5만원 김화자 5만원 임종덕 2만원 이명옥 3만원 이숙희 10만원 정재설 1만원 이정명 30만원 보덕사 50만원 손태원 2만원 김경옥 20만원 박건주 2만원 한정희 10만원 윤순화 30만원 최세훈 1만원 장보혁 20만원 손문철 3만원 김현자 3만원 이한노 5만원 김정옥 3만원 김원우 5만원 김경옥 20만원 이연희 1만원 최정숙 50만원 민경희 20만원 박말수 5만원 강성진 6만원 이석순 2만원 임종덕 2만원 김광태 1만원 이강대 10만원 이연희 1만원 강성진 6만원 이석순 2만원 양경철 5만원 양승희 5만원 김화자 5만원 양지숙 5만원 이연희 1만원 이석순 5만원 이종하 5만원 김운숙 10만원 송정숙 30만원 조원조 3만원 옥정자 3만원 김광태 1만5천원 나무아미타불 2만원 총 3천10만원

예관거사가 현대불교신문사에

본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 돕기'를 보고,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하고 있는 애독자 혜관 거사(광명 금강정사 신도)가 본지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편집자 주〉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동안 산디마 스님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 세상에 알리고 도와주신 현대불교신문과 많은 불자들 덕분에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부산 여여선원장이신 정여 스님의 도움으로 산디마 스님이 서울 가회동에 안착하시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 산디마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진 스님이 계신 토굴이 머지않아 수몰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후일 수몰 후에 불사할 계획으로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셨던 거금을 흔쾌히 보시해 주신 것이라고 전해들은 산디마 스님이 제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10월 21일이 임시 휴무일이어서 아침 6시에 가회동을 출발했는데 대구를 지나 영천 톨게이트를 나와서도 한참을 더 가서 청송이 나오고 보현산 기슭으로 접어들어도 현판도 없고 이름도 새겨 놓지 않은 보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지나칠 뻔 했었는데 염불소리를 듣고 저 토굴이 보리사인 것 같아 차를 세우고 들어가 보니 눈에 익은 일진 스님께서 염불전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시금 절반 돌려드리러 현판도 없는 청송 보리사로 산디마 스님과 동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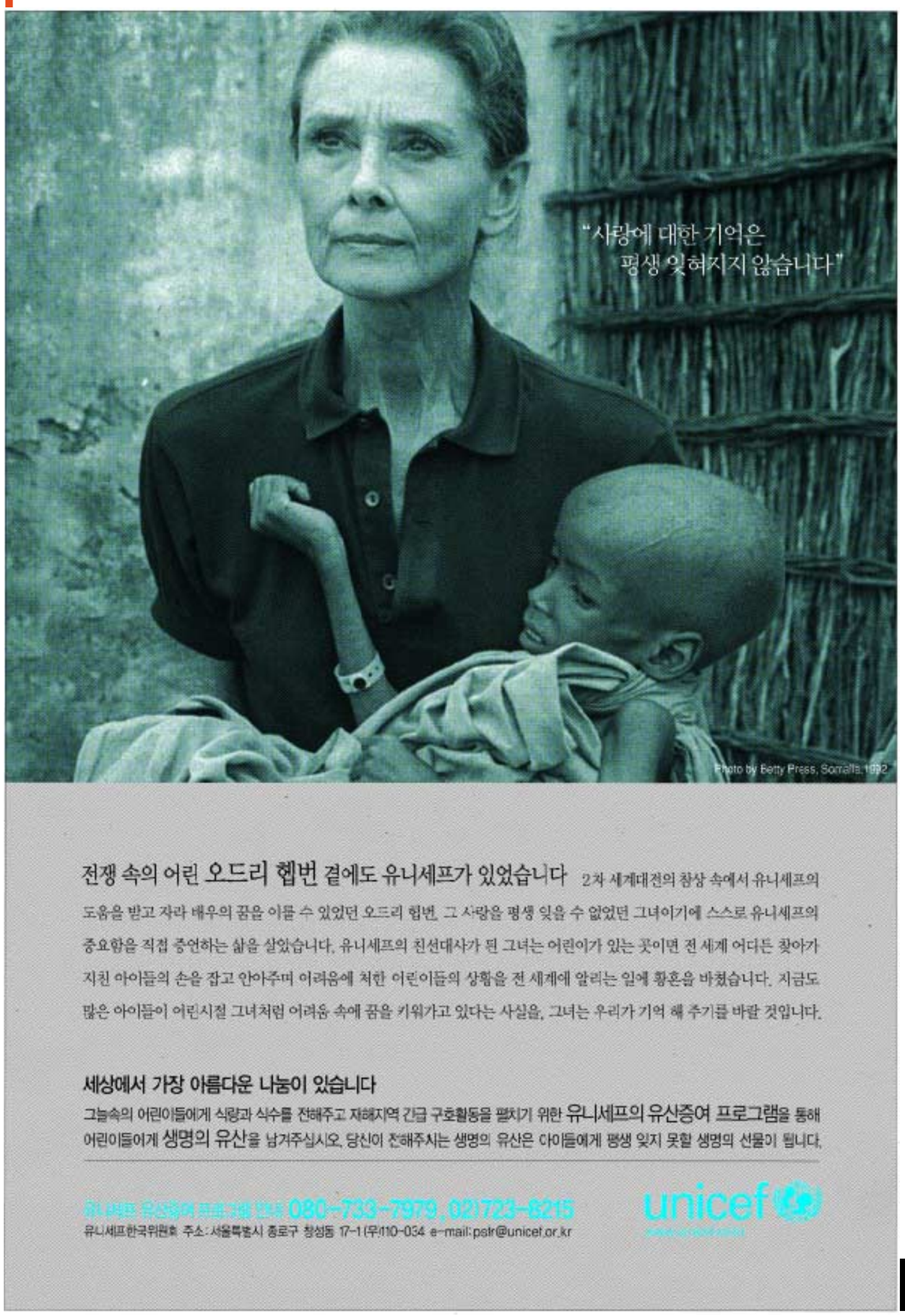
일진 스님의 기도가 끝나고, 산디마 스님은 준비해 가신 500만원을 다시 내어 놓으시면서 "스님께서 보시해 주신 보시금이 불요해졌기 때문에 다시 보시하고 싶어서 내려왔다"고 뜻을 전하면서 봉투를 내어 놓으시니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일진 스님은 "이미 떠난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도로 갖고 가셔서 나중에라도 불사를 하는 일에 보태 쓰시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산디마 스님은 당황하셔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머쓱하니 계셨고 일진 스님은 돈이 필요 없이 사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출가하신 후 선방으로 수행을 하시던 일진 스님은 수년 전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보시를 받으신 돈으로 이곳에 토굴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토굴 주변에 콩도 심고 깨도 심고 여러 작물을 심어 가꾸시면서 쌀을 빼고는 거의 모든 작물을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은 다시 신도분들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타국이지만 작으나마 안락한 마음의 고향 같은 장소라도 마련하여 자국의 근로자들을 쉬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산디마 스님을 위하여 더 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금을 다시 산디마 스님에게 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보현행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나눔축제 1천여명 참가 성황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나눔 실천'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중앙신도회 등이 불교사회복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29일 조계사 경내에서 펼친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축제'가 바로 그것. 사회복지시설 및 국제구호단체, 사찰 및 종립학교 관계자 1천여명이 함께 한 이날 축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자비마당과 어울마당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발마사지 시연을 하고 있다.

자비마당은 행사 참가단체 홍보 및 개별사업 안내, 장애체험 및 노인성 질병 예방캠페인 등으로 꾸며졌으며, 어울마당은 헌혈운동 및 북한장애우 휠체어 보내기 모금활동 등의 나눔운동과 사찰음식 맛보기, 불교음악 감상 등의 불교체험, 투호, 사방치기 등의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는 자원봉사 공연팀의 공연과 자원봉사 사행시 짓기 프로그램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잠재적인 후원자를 개발 · 관리해 새로운 불교사회복지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월1일 리틀앤젤스예술회관서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전문단체인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11월 1일 리틀앤젤스예술회관에서 제2회 소아암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실내악인 세레나데를 연주했으며, 서연 스님(대구불교방송 예술단 솔리스트)의 플룻 독주, 김성희(채리터 체임버 앙상블 멤버)씨의 피아노 연주가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다.

이어 유기준(kbs 국악관현악단 악장)씨의 대금 독주, 윤문숙(국립국악원 단원)씨의 해금 연주와 김해람(서울 우암초 6년) 어린이의 판소리, 은석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등으로 진행돼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이번 음악회는 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환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완치율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암환아돕기 계좌 국민은행: 852501-04-040046 예금주 니르바나(소아암음악회) 김원우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23년간 13만4천 여 권의 고서를 모아 자신의 호를 딴 '화봉 책박물관'을 개관한 여승구 관장의 책 사랑은 가족사랑만큼 애틋하다.

오래된 책향기로 역사·문화·삶을 배운다

고서 모아 박물관 연 여승구 씨



여승구 관장은 일일이 포갑을 씌워 귀중본을 소중히 관리한다.

1983년 '서울 북페어 행사' 개최 후 고서 모으기 20여년

고서(古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달려가는 고서 전문 수집가 여승구 화봉 책 박물관장(68). 그는 1955년 학비를 벌기 위해 고서적 전문점 '광명서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83년 국내 최초로 '서울 북페어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고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져 가는 게 안타까워서였다.

23년간 고서를 수집한 끝에 드디어 지난 10월 15일, 그간 모아온 13만 4천여 권의 고서로 자신의 호를 딴 '화봉(花峰) 책 박물관'을 개관했다. 고서적을 모아 인쇄 · 조판 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박물관을 만들겠다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고서 수집을 시작한 이후 책을 찾아 도쿄, 마드리드, 파리 등 안 가본 도시가 없을 정도"라는 여 씨는 "화봉 책 박물관은 그동안의 결실"이라고 했다.

밀수품으로 오해 세관에 압류 당하기도

83년 당시 해외에 있는 한국 고서적을 찾아 여행하던 여 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고서점에서 <천로역정(天路歷程)> 한국어 초판본을 발견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서양소설인 동시에 원근법을 사용한 기산 김중근의 삽화가 들어있어 자료사적 가치가 충분한 책이었다. 여 씨는 '제대로 된 물건을 만났다'는 생각에 120만엔(한화 약 1200만원)을 외상으로 긋고 책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천로역정>은 김포세관을 통관할 때 밀수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서 압류 당했다.

당시 김포세관장까지 만나 "우리나라 책을 들여오는데 무슨 밀수란 말인가"라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봤지만 책은 결국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 당시의 상황을 여 씨는 "돈이 없거나 책이 없어서가 아닌, 폐쇄된 사회구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설명한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국제간 교류를 금지하고 제한법을 만든다고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낮추고 문화재를 더 많이 접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는 "문화재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문화재를 더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책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는 원성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사재를 털어 고서를 모아 박물관을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여 씨가 박물관을 세울 수 있었던 데는 불자인 부인 황선(64 · 경희대 음악대학 학장) 교수의 힘이 가장 컸다. 황 교수는 가족사랑보다 책 사랑이 더 큰 것(?)처럼 보였던 여 씨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인내하며 곁에서 지켜봐 준 든든한 정신적 후원자다. 황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수원포교당에서 열린 나혜석 추모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佛經은 우리 인쇄 · 판화사의 산증인

고서를 수집하면서 여 씨가 특히 주력한 부분은 우리나라 책의 발자취와 인쇄발달사를 보여주는 고활자 · 고판화 · 고지도 영역의 인쇄본들. 덕분에 여 씨의 고서 콜렉션 중 7천여 권을 차지하는 조선시대 활자본과 약 500편의 고지도 등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고인쇄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불경(佛經)도 1천여 권 가량 소장하고 있다.

"불교가 우리나라 인쇄술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전하는 과정에서 인쇄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이나 <직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찬란한 인쇄발달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또 불경은 우리나라 판화의 발달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불교경전 속에 등장하는 '변상도(變相圖)'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판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은중경>등의 경전에서도 판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판화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 씨가 밝히는 불교경전의 사료적 가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고서들과는 달리 불경은 특이하게도 책 뒤에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와 시기, 편찬한 장소를 비롯해 시주자, 화주자, 각수(刻手)까지 소상하게 밝혀 놓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은 책이 편찬된 시대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관심과 중요성 깨닫는 것이 문화재 지키는 길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인쇄술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금속활자가 발명되고서야 비로소 책을 싼 값에 널리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넓게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서양 민주주의의 싹이 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책 역사와 인쇄술은 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현재 독일 마인쯔에는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함께 박물관 부설 인쇄대학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는 그간 제대로 된 고서박물관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인쇄출판 문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대국들의 외침과 약탈로 고서들이 유실되어 버린 점을 안타까워했다. 또 그나마 남아있는 고서 또한 일반인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한다.

'화봉 책 박물관'은 일반인들의 '고서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지우는 한편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 씨의 노력이 배어있다. 박물관 한 쪽에는 고인쇄체험실도 설치해 놓았다.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관람객들이 직접 목판에 먹을 묻혀 인쇄를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쇄술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결국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더 사랑하는 것만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고서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고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간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냐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 –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 –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 –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3>



칭명염불법

염불선에 들어가기 전에 칭명염불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불설아미타경에 대하여 "불설(佛說)은 금구(金口)로부터 말씀하신 것이어서 천대를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요, 아미타는 참다운 덕을 싸안고 있음을 세운 것으로 만겁에도 다함이 없는 이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칭명염불은 정토왕생의 조인(助因)을 밝히는 것으로 집지명호(執持名號) 일심불란(一心不亂)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 명호이기 때문이다. 일일 내지 칠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사람은 속히 이루고 열등한 사람은 더디게 성숙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니라,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사이에 자연히 밖으로 내 쉬게 된니다. (3)한 숨에 무리하게 명호를 여러 번 부르게 되면 숨이 차서 들이쉬는 숨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 사이에 명호가 한동안 끊어져 버립니다. 물론 숨쉬는 동안 잠깐은 끊어집니다. 들숨을 자연스럽게, 날숨도 자연스럽게, 명호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명호 부르기를 너무 빨리하면 처음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염불이 끝난 뒤 여운이 남지 않고, 호흡을 고르게 하기 어렵고, 삼매를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5)염불하는 소리를 스스로 들으려고 하면 처음은 집중이 잘 되지만, 염불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유상염불 음률에 맞춰 소리-동작 함께
무상염불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이 정인(正因)이며, 명호를 부르는 칭명은 정인을 돕는 조인(助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칭명염불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유상(有相)염불과 무상(無相)염불이 있습니다. 유상염불은 "나~무 아미타~ 부울~ "이라고 명호를 부르거나, 명호를 부르면서 염주를 세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등 소리와 동작이 곁 드린 염불이며, 무상염불은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 부울~ "을 부르는 염불입니다. (1)소리를 내서 할 때는 먼저 숨을 고를 필요 없이 음률에 맞춰 "나~무 아미타~ 부울~ "을 천천히 부르되 보통 사람은 한 숨(일념)에 5번 정도의 템포로 합니다. "아미타"의 "타"를 강하게 합니다. (2)계속하다 보면 자연히 숨을 들이 쉬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십념) "나~무 아미타~ 부울"을 부릅니다. 이 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 쉬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소리로 하는 사람, 생각으로 하는 사람, 소리와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와 생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상입니다. (6)무상염불은 소리로 명호를 부르는 정진이 끝난 뒤에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여운이 들리는 듯 남아 있으면 그 소리를 잡아 마음속으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염하는 것입니다. (7)염불(念佛) 즉 '부처를 생각하는 것' 혹은 '무상염불'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우선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아미타"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끊이지 않게 염하고, 만약 순일하게 잘 되면 "아미타불" 넉자만을 염합니다. 이와 같은 칭명염불은 무량광명의 아미타불 명호를 알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고, 믿음을 성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양산 정토원 원장

고우 스님, '내가 부처' 주제로 재가자들에게 '선요' 특강

"달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쳐내라"

"달마와 부처의 자리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쳐내라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바로 선입니다. <선요(禪要)>를 쓴 고봉 스님은 이를 어록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은 주관과 객관을 나눠 보는 '이원적 사고' 부터 마음에서 세탁해 내라고 말했다. 그래서 선(禪)은 부정의 연속이고, 이런 과정에서 본래 자기 존재가 부처임(本來成佛)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 는 이치. 그 원리를 밝힌 것이 바로 <선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10월 26일, 불교TV 대구지사 무상사에서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요> 특강. 고우 스님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 <선요>는 선수행의 필독서라고 법문했다. <선요>는 선가에서 내려오는 선에 대한 지침서로, 중국 송나라 혜능의 23대 고봉현묘(高峰玄妙, 1238~1295)가 쓴 선어록. 현재 <서장(書狀)>, <도서(都序)>, <절요(節要)>와 함께 우리나라 강원의 사집과목 중 하나인데 재가불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강의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강은 12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053)754-6633

그럼, 고우 스님이 출가자의 전유물로 여겼던 <선요>를 재가자들에게 논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요>는 고봉 스님의 속가 제자 홍교조가 어록을 정리했기 때문에 <선요>야말로 재가불자의 선수행 방향과 방법을 가장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지침서다. <선요>의 가르침을 압축한다.



3백여 재가불자들이 고우 스님에게 <선요>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 일체를 세우지 않는다

'법상을 뒤흔든다. 청중에게 고함을 지른다. 쓸데없이 법문을 들을 것도 없으니 가라고 말한다.' 고우 스님은 <선요>의 구절을 인용하며, '철저한 부정' 에 <선요>의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 듣는 이 순간조차도 부정해야 본래불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로 통일된 그 자리를 발견하면,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끝끝내 부정을 해야 한다. 주관과 객관을 나눠 보려는 이원적 사고를 깨는 것과 진리의 '달' 을 가리키는 방편의 '손가락' 도 단호히 쳐내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결국 '일체를 세우지 않는다(無住)' 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부처와 중생, 해탈과 구속, 지혜와 번뇌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대로다. 심지어 깨달음조차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를 선을 통해 생활화하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선의 사회화다.

● 놓고 또 놓아라

본래의 내 마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의미다. 귀와 입으로 비교해서 내 귀와 입에 상처를 줘 스스로 자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있다' 는 생각이 문제다. 원래 자기존재가 부처이고, 우리가 부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다. 선은 그 마음자리를 알려주는 길이다. 그런데 선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선은 간단하다. 복잡하게 된 것은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는 사고 때문이다. 발가벗은 그 상태로 선을 단순화시켜 놔야 한다. 벗어야 할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가. 왜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가. <선요>에서는 없는 짐까지 짊어지려는 것을 없애라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 만 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라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상태'. 분별과 경계에 길들어진 생각이 순간 '꽉' 막히는 찰나다. 조주 스님의 '무(無)자' 화두가 운문 스님의 '마른 똥 막대기' 공안이 경계에 노예가 된 생각에 시비를 거는 순간이다. 그것이 생각의 '부딪침' 이다. 그 부딪침을 한 번 두 번 수십 번 받는 순간, 분별심을 거둬내야 한다. 그래야 깨칠 수 있다. <선요>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초짜리 화두참구' 를 1분, 하루, 한달, 평생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마치 조각조각을 누빈 옷을 한 장의 옷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요>는 수행과정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선수행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주 · 객관의 이원적 사고를 녹이고, 말과 생각의 길을 끊긴 부딪침의 순간을 늘리는 변화과정을 '서있는 것이 익어가고 익었던 것이 스러진다' 고 설명하고 있다.

● 일속에서 정(定)과 혜(慧)를 닦아라

선과 일은 둘이 아니다. 생활 그 자체가 선이다. 때문에 선은 일상에서 말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 를 발견하게 된다. <선요>에서 말하는 '활발발' 의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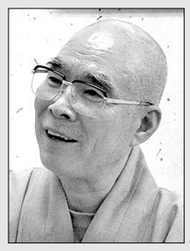
이러한 원리는 특히 재가불자들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재가불자들이 선을 수행으로 생활화하고, 포교로 사회화할 수 있기에 그렇다. 이 같이 수행해 선을 '자기화' 하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삶이 역동적으로 변한다. 사는 보람도 뒤따른다. 때문에 <선요>에서는 '선이 생활' 이라고 하고 있다. 또 '선은 체험'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터뷰

고우 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선요' 는 이원적 사고 깨는 길잡이



"'나' 다 '너' 다, 우리는 이원적 사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법 원리로 보편화돼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착각인데도 말입니다. <선요>는 그런 착각을 깨부수지요."

때문에 고우 스님(사진)은 <선요>가 '선수행의 교과서' 라고 말했다. 수행과정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선을 '생활화' 하는데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가불자들에게 강원 사집의 하나인 <선요>를 강의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요>는 이론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체험의 이야기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요>의 처음과 시작은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안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님은 이와함께,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선요>를 꼭 공부하기를 강조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굿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氣치료를 받고 나서 새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빙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054)638-2224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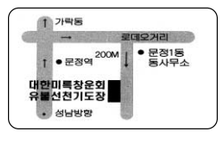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파동명상연구소 회향특강

본 연구소의 파동명상에 대하여 이제까지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삼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본 연구소는 올해 甲申年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끝으로 파동명상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두달을 회향 특강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저 알려드립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빙의령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빙의령을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매주 화~ 목요일 (3일간) ◈ **수련장소 :** 서울 · 부산

수 련 비 : 70만원 (3일간 수련으로 수료증 수여)

방송출연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4년 7월 SBS 세상발견 유레카 출연

저서 :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빙의「그 영혼의 노숙자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53-6156, 02) 996-6156, 051) 817-6156

명상-정신치료 접목 '본격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명상' 주제 첫 포럼 화제

최근 '명상'은 수련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신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요가나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데 이어, 90년대 이후부터는 검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명상을 환자 치료에 본격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0월 21일 '명상과 정신의학'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국내 정신의학계에서 '명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00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해 명상과 정신치료의 관계성에 주목했다.
포럼에서는 특히 명상을 성격에 따라 통찰명상과 집중명상으로 분류하고 정신치료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폈다. 또한 명상치료의 효과와 바람직한 치료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포럼 현장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정리했다.


10월2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한 '명상과 정신의학' 포럼이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최훈동


임승택


조옥경


함봉진

300여명 참가…정신치료 가능성 모색
명상법 체계화 제도화 필요성 제기
포럼 계기로 '명상치료연구회' 발족 예정

● 통찰명상과 정신치료

순간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통찰명상. 위빠사나로 대표되는 통찰명상은 이날 포럼의 주된 화두였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은 "통찰명상을 수련하면 '과거'를 수반하지 않고도 '현재의 탐욕'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모았다.
환자의 현재 장애가 과거 기억의 소산이라 판단하고 잠재된 과거 의식에 집중하는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낯선 얘기였다. '통찰명상'을 발표한 임승택(동국대) 교수 역시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쾌·불쾌 등의 느낌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깨닫게 되며, 결국에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이며 통찰명상의 정신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소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정신과 전문의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찰자를 상정하지 않고 관찰하기만 하는 상황이 가능한지, 관찰자가 남아있다면 무아사상에 대치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바라보는 자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관념"이라며 "관찰자없이 보는 행위만 남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집중명상과 정신치료

매순간 알아차림을 중시하는 통찰명상과는 달리 집중명상은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무념무상의 삼매를 얻는 수행이다. 호흡, 만트라, 점, 정신적 주제 등 집중하는 대상이 다양한 집중명상은 대부분의 명상을 포괄한다.
이날 포럼에서 조옥경(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치료학) 교수가 대표적인 집중명상의 하나인 '요가명상'을 발표하며 정신치료와 요가명상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조 교수는 "라자요가는 하나의 집중대상을 선택한 후에 주변 대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집중대상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명상 중심의 라자요가를 통해 지각하는 자, 지각대상, 지각작용이 하나로 녹아드는 삼매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조에 가까운 동작이 요가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요가의 작은 부분일 뿐, 요가에서 말하는 궁극의 삼매는 "명상이 한 결같은 상태에 있어서 그 대상만이 빛나고 나는 없어지는 상태(요가수트라 3장 3송)"라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조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집중을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 '소리'를 제시했다. '소함(soham)' 만트라의 경우, 숨을 들이쉬고(소) 내쉴(함) 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이를 집중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 만트라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호흡과 소리의 조화로 평온과 안정을 맛볼 수 있다.

● 명상치료의 현재와 미래

현재 미국의 경우, 메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밧진 교수가 79년 명상센터를 설립한 이후 위빠사나 명상을 정신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천만 인구가 생활화하고 있다는 초월명상(TM) 역시 마하리쉬 관련 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에 두루 응용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최훈동 원장·전현수 원장(전현수 신경정신과) 등이 명상 치료를 실시하며 연구와 치료 방법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해 함봉진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명상의 임상적용'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의학계에 일고 있는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주장했다. 명상이 정신치료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련장에서 통용되는 명상법을 의료권에서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함 교수는 "환자에 맞게 보완·개선한 명상법을 체계화시키고 명상지도자-의사-환자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최훈동 원장과 함봉진 교수를 주축으로 한 '명상치료연구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02)2168-3114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선의 세계 ⑥④

돈오(頓悟)-7

돈오라는 개념을 두고, 개인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사건이 갑자기, 단박에, 빨리, 심지어 뜬금없이 일어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혼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물론, 선사들의 행장에서 오도(悟道) 대목을 보면, 홀연히 깨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 사건들도 다 전후맥락이 있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들 치열한 수행을 하던 중에, 또한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한 것이지, 수행을 모르고 불교도, 선(禪)도 모른 채 그저 범부의 일상생활에 얽혀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행의 과정이나 아무런 인연이 없이 깨달음의 체험이 오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돈오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깨달음은 현실이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돈오라는 개념의 뜻이지, 한 개인이 깨달음을 이루는 시각(始覺)의 사건이 수행방편도, 아무런 인연도 없이 단박에 뜬금없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전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만 참답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전일주의(全一主義)'가 돈오론의 입장이라고 하였다(김진무, '중국불교의 돈점 논쟁,' <불교평론> 20호, 2004 가을, 391쪽). 점오론은 이를테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수행이 진전되면서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서 마침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을 양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산에 오른다고 산 볼 수 있나
전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참답게 봐

적으로 다 점오(漸悟)라는 주장도 있다. 깨달음의 사건이 아무리 갑작스레 일어났다고 해도, 하다못해 오랜 전생을 거쳐 인연이 무르익어 온 과정이 배경으로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선종 초기의 여러 가지 계보가 내세우는 수증론(修證論)을 분류하고 평가한 규봉 종밀(圭峰 宗密)도,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도 그런 식으로 언급하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 개인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사건으로만 돈오라는 개념을 보면 그런 비판도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오는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이치인지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즉 진리관을 말하는 개념이지, 진리를 깨닫는 체험의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남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앞에서 썼던 용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모두가 이미 부처이고 세상 전체가 워낙에 진리 그 자체라는 본각
또는 산에 오를 때 아래서부터 차근히 길을 밟아 나무, 바위, 숲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오르고 또 오르는 데 비유할 수도 있겠다.
이에 반해 아예 처음부터 산 전체를 보아야 산 자체를 보는 것이지 각각의 길목과 나무, 바위, 숲이 산 그 자체는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돈오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을 오르는 길목에서 보는 풍경 하나하나를 합쳐서 산의 모습을 가늠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래도 아무튼 산에 오르는 과정, 즉 수행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꼭대기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마조록(馬祖錄)>에 "도(道)는 닦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道不屬脩)"라 하고 또 "도는 닦을 것 없고, 더러움에 물들지만 말라(道不用脩但莫汗染)"고도 한 대목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하다.
도를 닦지 말라? 즉, 수행을 하지 말라? 이에 관해서는 다음 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한·일 국제학술교류대회 및 일본 밀교문화 체험

본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에서는 일본의 고야산대학과 더불어 한일 국제학술 교류대회 및 밀교문화 체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12월 13일 ~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특히 이번 일정 중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주관 하는 한·일 국제학술교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학술교류대회의 주제는 '밀교행법중의 금강계 37존'으로 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종단의 학술·문화교류의 폭을 한층 넓히고 밀교의 다양한 이해 속에서 종단사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대 회 명 : 한·일 국제학술교류대회 및 일본 밀교문화체험
● 장 소 : 일본 고야산대학
● 일 정 : 2004년 12월 13일(월) ~ 17일(금)까지 4박 5일
● 접수인원 : 선착순 30명
● 접수마감 : 11월 15일(월)까지
● 접수방법 : 전화 02)913-0133~4 / 팩스 02)913-0135, 913-0755
진각종 홈페이지 www.jingak.or.kr / E-mail : blackgirld01@naver.com
우편접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종학연구실 (136-865)
● 경 비 : 1,180,000원
● 은 행 : 국민은행 065901-04-000525 / 예금주 : (재)대한불교(종학연구실)
※ 접수인과 입금인이 동일인 이여야 하며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종학연구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8) 12연기 가운데 10번째 항 有(존재)란 무엇인가

백정은 버드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저번 강의에서 12연기를 통해 자아가 어떻게 강화되고,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2개 항목 가운데 아직 4번째부터 9번째 항목까지 밖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붓다고사의 분류에 의하면, 현생의 고리밖에는 다루지 못했지요. 그 나머지를 더 살펴봅시다.

직업, 취향, 습관, 기분 등등에 따라 어떤 자극을 수용하고 어떤 자극을 배제할 것인가는 각기 서로 다른 지형도를 그립니다. 예를 들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리." "백정이 버드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요. 이 속담들은 직업과 개성에 따라 자극과 반응의 수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망각, 혹은 고향상실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앞의 '과정'을 거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삶을 대해는 고유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개성과 그들의 '세계'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쳇말로 "나, 이렇게 살다 갈래"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들을 억지로 붙들어 교육시키거나,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는 "진정, 너는 행복하냐"고 딴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그 행복의 이면에 있는 삶의 근본 조건과 그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불교는 단호히 말합니다. "탐욕과 공격성에 의해 추동되는 삶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고, 그것은 갈등과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대상을 향한 소유와 지배는 어느 한 대상을 취득하고 동화시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또 다른 대상을, 그리고 보다 큰 대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헉헉거립니다. 그 대상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재산,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자인 인간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들'도 또한 너의 소유를 탐내고 너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유'와 '탐욕'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는 박제되고, 사람은 소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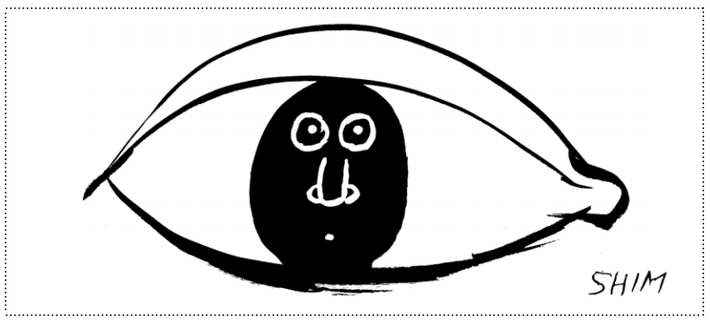
이리하여 본시 고요했던 세계는 인간의 관심에 의해,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12연기의 10번째 항목인, '유(有)'가 바로 이 사태를 의미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와 축적!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바로 이 사유(私有)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라, 보려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도시나 나라인데, 누군가가 거기 있거나 살았다는 기억으로 하여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역시 세계는 주관적으로 '의미화'되어서만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보게 되었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욕망'이 눈을 만들었고, 들으려는 '의지'가 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려는 욕망이 없으면 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앞에 두고도 언제 있었더냐 싶지요. 보려는 욕망이 없으면 눈도 또한 없습니다.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다 그렇습니다. <반야심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공중(空中)에는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둘이 교접한 결과인 안이비설신의 식(識)도 없겠지요.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저대로, 세계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세계는 그 의지를 통해 구성된 표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불교식으로 번역하면 곧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의식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유식입니다. 유식에서 선명히 갈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法)과 상(相)입니다. 여기서 법(法)은 객관적 실제를 가리키고, 상(相)은 의지와 표상으로 하여 드러나는 주관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시급히 할 일은 각자가 가진 것은 상일 뿐, 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자아의 주관적 환상 속에서, 그 편견을 의지하여(住) 살고 있다는 것을 화들짝 깨닫는 일입니다. 이곳이 불교의 첫걸음이고, 주춧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불교의 목표인 무아!에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변계소집성(徧計所執性)이란 무엇인가

유식은 삼성(三性), 즉 '우리가 사물을 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째 것이 변계소집(徧計所執)입니다. 변계소집이 바로 '인간의 의지와 표상에 의해 드러난 세계'를 가리킵니다. 제가 보는 한문본 <금강경오가해> 끝에는 몇 가지 부록이 달려 있는데, 거기 삼성(三性)을 두고 읊은 부대사(傅大士)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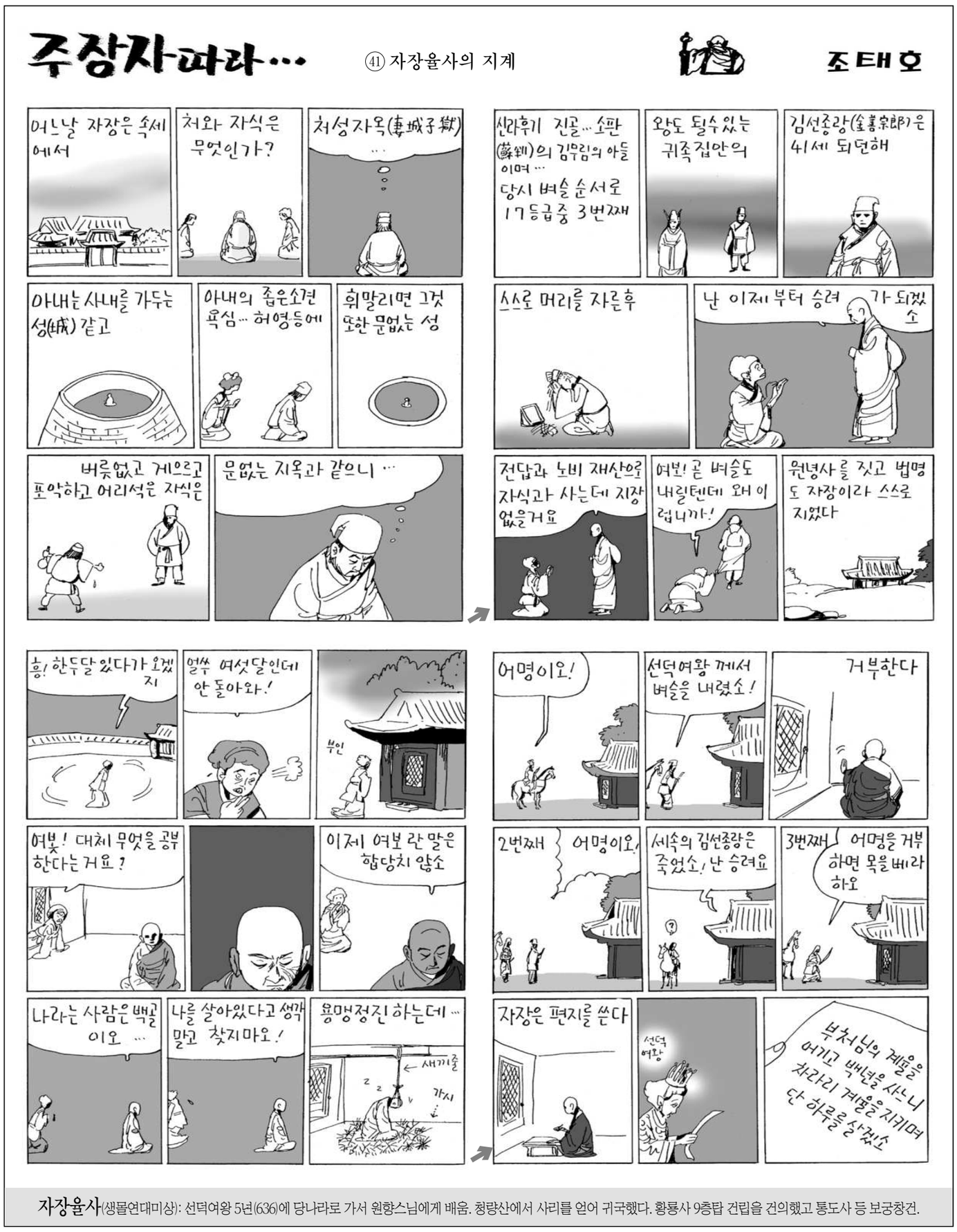
"망계(妄計)로 인한 집착인 게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다니. 마음 속 의심이 곧 암귀(暗鬼)가 되고, 눈에 병이 들면 허공에 없는 꽃이 어지럽지. 풍경은 하나인데, 세 사람이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명(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거야. 그럼, 백우거(白牛車)를 유유히 끌 텐데."

망계는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고, 집착은 '의지와 욕망의 추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판단 이전에 '의지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사람이나 사물이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암귀(疑心暗鬼)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열자(列子)>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웃집 꼬마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걷는 것을 보아도 도끼도둑이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아도 영락없는 도끼도둑처럼 말하더란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 '의거(住)'하는 바가 사물을 보는 태도와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풍경은 분명 하나인데, 세 사람이 본 것이 서로 다르고, 사태는 하나인데 의견들은 서로 갈리는 것입니다. 명부실(名不實), 우리들의 모든 인식과 판단(名)은 그러므로 개인적 집단적 집착과 편견의 소산이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㊶ 자장율사의 지계

조태호



자장율사(생몰연대미상): 선덕여왕 5년(636)에 당나라로 가서 원향스님에게 배움. 청량산에서 사리를 얻어 귀국했다. 황룡사 9층탑 건립을 건의했고 통도사 등 보궁창건.

네티즌 교리문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색과 공을 하나로 보라는 뜻일 텐데, 아직도 저는 둘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자 네티즌 여러분의 자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D 태극)

답1 : 색과 공을 가려 보려는 '분별심' 때문입니다. 이를 전도몽상(轉倒夢想)이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색(물질)과 공(허공)이 다르지 않은 것을 체득하면 무집착과 무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반야행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상구보리'하는 과정이 되고 상구보리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화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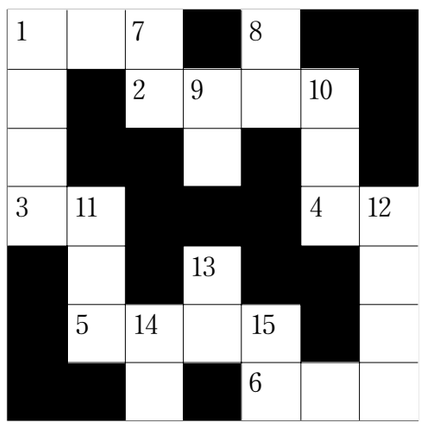
답2 :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색(물질)이 생성소멸함으로서 고정된 실체나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공(텅빔, 헛것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것들(空)에 매여 생사윤회의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허망한 이 세상과 거짓된 나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추구가 바로 허망한 색(물질)의 허무(공)에서 탈피해 그 것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과객)

답3 : 색즉시공이란 말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의 하나하나가 모두 공(空)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역부여시라고 수, 상, 행, 식을 차례차례 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이란 "오온은 무아(無我)이다" 혹은 "오온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 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색에는 색을 이루는 주체 혹은 실체가 없다, 수에는 수를 받는 주체가 없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대승에서는 공과 색을 이(理)와 사(事)란 용어로 설명하여 이사무애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헛것이라든가 허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공이라 말할 뿐입니다. (후박나무)

답4 : 귀하게 보이면 귀하게 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천하게 보이면 천하게 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천하게 보이는 것을 굳이 귀하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십시오. 색과 공을 나누려고도 말고 합치려고도 말고 보이는 그대로 보되, 원래가 둘 아님을 믿고 가는 가운데 서서히 불이법문의 관문을 통과하리라 생각됩니다. (무극)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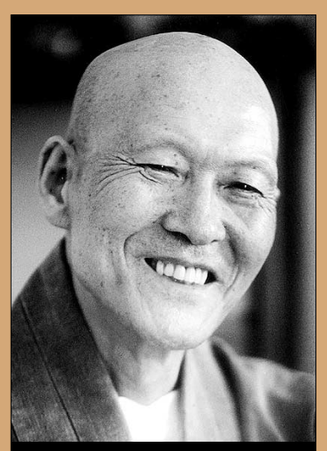
가로 1. 소유하려는 욕구 2. 광해군 때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 김씨의 생활을 기록한 것. 3. 실제 이야기 4. 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 증권 5.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 등 선종의 다섯 종파를 일컫는 말 6.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음.

세로 1.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음 7. 삼계(三界)의 하나로, 식욕 · 음욕 · 수면욕을 갖고 있는 유정들이 사는 곳 8. 길한 날 9. 쫓아내거나 몰아냄 10. 미결수의 상대적 의미 11. 화물을 실은 배 12. 겉과 속이 다름 13. 크게 깨달음 14.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것 15. 종파의 가장 높은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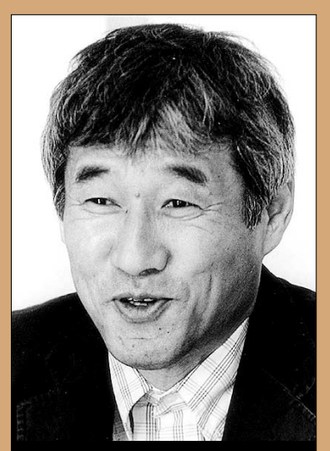
명사 4인이 풀어놓은 인생



대화
피천득, 김재순, 법정, 최인호 지음
샘터 | 9천원


법정 스님

VS


최인호

만남에는 대화가 있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사람의 향기가 담긴다. 2003년 어느 봄날, 매화 꽃 핀 서울 길상사에서 만난 법정 스님과 소설가 최인호 씨가 나눈 대화가 그랬다.

강원도 오두막집에서 생사를 걸었던 일흔의 출가사문과 스님이 되려했던 예순의 천주교 신자 소설가. 그들이 만나 인생을 말했다. 종교와 죽음, 사랑, 가족, 행복, 교육 등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인생전반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3시간 넘게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월간 '샘터'가 펴낸 <대화>. 우리 시대 지성인 4명의 이야기를 일상의 언어로 담아냈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과 13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재순 샘터사 고문, 법정 스님과 소설가 최인호 씨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와 경륜을 두 편의 대담에서 꾸밈없이 쏟아냈다.

특히 아흔, 여든, 일흔, 예순 줄에 들어선 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어쭙잖게 살아온 주변 인생들에게 삶의 지혜로 다가온다.

우선 법정 스님과 최 씨의 대화는 '행복'이란 화제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과 쾌락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최인호)

"안목은 사물을 보는 시선일 텐데 그것은 무엇엔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갖추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의 가치로 보지요. 이는 똑같은 눈을 가졌으면서도 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법정 스님)

이들이 공감한 '안목의 차이'는 이후 사랑, 가족, 깨어있음 등의 화제로까지 이어진다. 나눔과 보살핌, 관심을 본질로 한 사랑이 소유욕 때문에 '이기적인 흥정'으로 변질됐다는 법정 스님의 생각,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공양미 3백석이 우리 마음의 깨어있음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최 씨의 이야기 등이 바로 그렇다.

법정 스님과 최 씨의 내면성찰은 '바보의 벽' 허물기로 정점을 이룬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양미 3백석은 있어야 한다는 자기 논리, 그게 일종의 바보의 벽이다. 그 벽을 부서뜨려야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최 씨가 말하자, 법정 스님은 "깨어 있음은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맑고 투명한 영혼과 정신을 지니는 순간, 바로 그 때가 본래의 자아로 돌아간다"며 심지어 화두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답한다.

대화의 내리막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기존의 '인식틀 깨기'로 계속된다. 나눔의 문제로 화제가 모아진다. 먼저 법정 스님은 '베푼다'는 말에 상당한 저항감을 표한다. 이 단어에서 수직 · 주종 관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누다'라는 말에 수평적인 관계가 담겨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바로 나눔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최 씨는 '너와 나'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불교의 무주상보시가 나눔의 필수 덕목이 된다고 스님의 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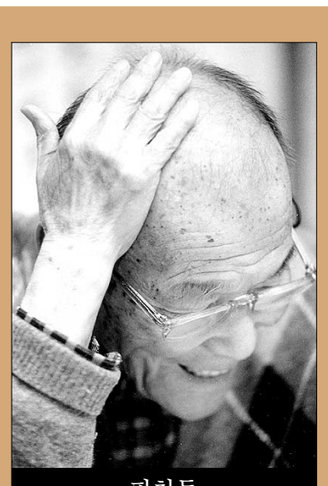
올해 94세인 피천득 선생은 자신의 수필집 제목이기도 한 인연과 예술, 신앙, 여성, 나이 듦 등을 주제로 김재순 고문과 이야기를 나눈다. 무엇보다도 피 선생은 "내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 정말 명성 그대로라고 느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강산 또 하나는 도산 선생이다"라고 도산 안창호와의 인연을 회고한다.

"선생의 삶은 진실 그 자체였죠. 아마 일생을 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을 듯싶습니다. 살다보면 부득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생기지만, 도산 선생은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동지에게 큰 해가 돌아갈 때만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럴 때도 침묵을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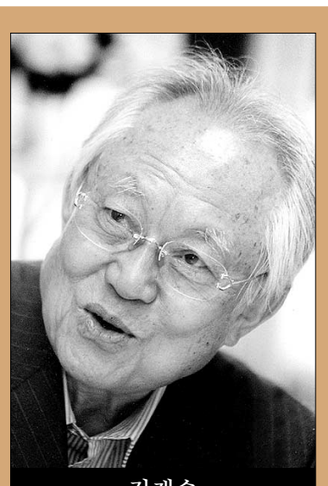
이들의 대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김 고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철학자의 종착지"라고 하자, 피 선생도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만년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은 날의 욕망, 분노, 초조감 같은 것들이 지그시 가라앉고 안정된다. 죽음도 배워야 한다"고 말을 잇는다.

고령으로 집필활동을 거의 중단한 피천득 선생과 대장암으로 투병했던 김재순 고문, '맑고향기롭게'의 회주조차 버린 법정 스님과 신문 연재소설 집필로 바쁜 최인호 씨의 대담. 이 책은 좀처럼 성사되기 어려운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향기로운 삶이 무엇이고, 영혼을 어떻게 울리는지를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피천득

VS


김재순

전문가 서평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김동선 지음 | 궁리출판 | 9천원

'나는 사람이다 고로 늙어간다'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늘 핑크 빛 희망을 떠올린다. 하루하루 내일을 기다리고 꿈을 꾼다. 시간이 흘러 맞이하는 미래에는 노인으로서의 삶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리지만 몇십 년 후 당면하게 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로마의 정치가며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노년의 외롭고 불행한 이유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노년에는 오랜 항해 뒤에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인생의 원숙함이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에 반하여 유년기에는 연약하고 청년기에는 인생의 격렬함에 떨며 중년기에는 장중함에 힘겹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너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도 미흡하다.

일본에서 배우는 행복한 노년

노인정책의 한계와 고충, 새로운 시도

이 책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은 일본 노인정책의 한계와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배울 점을 찾아 나섰다. 효사상과 맹목적 희생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노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1년에 걸친 취재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바람직한 노인수발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유명한 니가타 현 야마토마치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자세히 다루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식 복지가 가져온 문제점을 기자출신답게 냉철하게 꼬집고 있으며 그 대안은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한 힘겨움은 가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본문 중 20년 동안 시부모와 남편을 수발한 5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는 노인수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구체적인 노인관련 통계자료와 참고할 만한 서적과 전문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노인복지나 노인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읽을 만한 참고서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한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게 하고 있다. 그 속에서 노인과 부양하는 가족들의 감정적 피폐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었던 일본의 야마토마치에서는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개인과 지역공동체 행정이 나누어 역할분담을 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세 명의 청년의사 활동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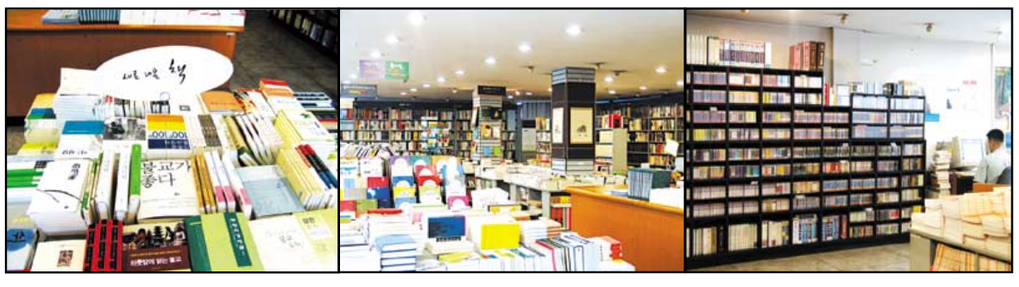
야마토마치를 이끈 청년의사들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선 누가 맡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사회복지 아니 노인복지실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든다.

■송화진 (서울노인복지센터 홍보팀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건강하게 사는법
신비의 호흡요법

스와미라마 지음, 길연 옮김
신국판 / 240쪽/값 10,000원
관음출판사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이경화 글, 사진 유남해 외
신국 양장판 / 496쪽 / 값 45,000원
다른세상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멍텅구리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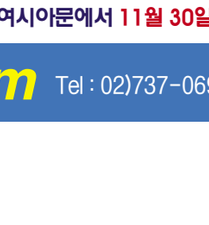
불영자광(임봉준) 지음
신국판 / 338쪽 / 값 9,500원
도피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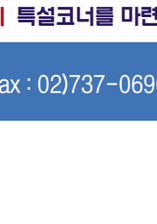
365일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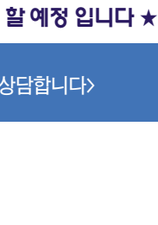
윤창화 엮음 / 4×6판
287쪽 / 값 7,500원
동승동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양장 / 604면 / 값 20,000원
문예출판사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김용덕 엮음 / 전2권
각권 값 8,000원
도서출판 부용

바로보인 환단고기1,2,3

문재현 역저/ 신국판
1권268쪽, 2권610쪽,3권341쪽
값 1권12,000원 2권15,000원, 3권15,000원
바로보인

그 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효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바보새
※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은 효림 스님의 그림이 있는 다포를 드립니다.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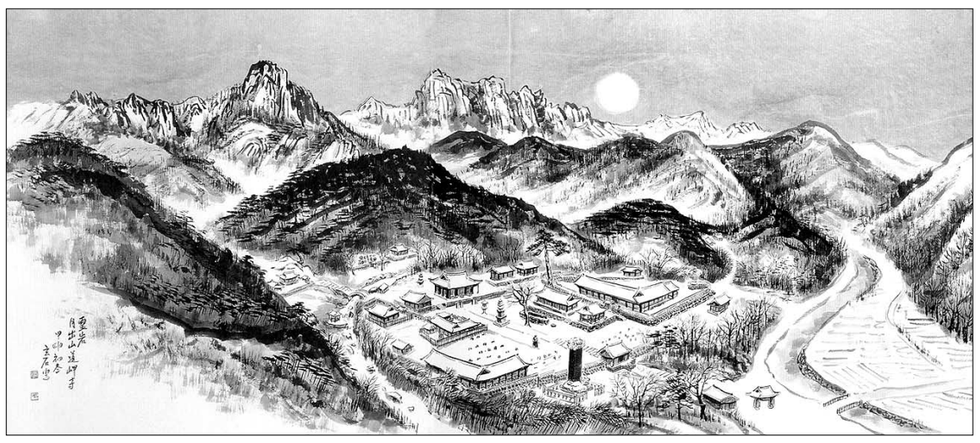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화폭에 담은 영암의 빛 · 바람 · 사람들

이호신 화백 3년 걸친 그림순례 결실 … 12월 5일까지 그림展도 열어



달이 솟는 산마을
이호신 글/그림 | 현암사 | 1만5천원



출간 전시회가 끝난뒤 도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될 이호신 화백의 '월출산 도갑사의 겨울' (270×115㎝).

사진이 넘치는 시대다.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는 사진 자료가 넘쳐나고 가구별 디지털 카메라 보급률은 이미 40%가 넘었다. 하지만 한 마을이 엮어온 역사와 풍광,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는데 사진만으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호신 화백은 카메라가 아닌 화첩(畵帖)을 챙겨 '우리마을 그림순례'를 떠났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을 답사하며 그린 그림과 글을 묶어 펴낸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나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의 책에서 볼 수 있듯 화가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서 나고 빚어진 얼굴과 그 흙의 숨결'이다.

<달이 솟는 산마을>에는 지난 3년간 전남 영암에 머무르며 그린 풍광이 펼쳐져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가 "자연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맑고 따뜻한 그림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평했듯이, 이 화백의 그림은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먹고 잠자며 마을을 돌고 산을 오르내리며 그린 '발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마을의 역사를 전하는 대목에선 영암군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샅샅이 뒤져 사료(史料)를 찾아냈을 수고로움도 전해진다.

또한 책에는 마을의 풍광과 함께 마을이 형성된 역사와 풍습 그리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는 생활모습 등도 꼼꼼히 옮겨져 있다. 수대에 걸쳐 한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자연환경은 바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꽃이 피거나 눈이 내린 마을 구석구석의 정겨운 풍경과 고추 모종을 이고 가는 이순 할머니, 작가에게 머물 집을 제공한 동구림리의 문영숙 씨 등 주민들의 모습도 화폭에 자리 잡아 정겨움을 더한다.

월출산과 도갑사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빼놓을 수 없다. 월출산 곳곳에 자리 잡은 마애불의 모습도 따뜻한 수묵으로 다가오고 눈 속에서 흔들리는 풍경(風磬), 달이 휘영청 뜬 도갑사의 장관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순례'가 단순히 '풍광'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작업만은 아니었다. "그림 그리는 이가 배낭 메고 산천과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감회는 늘 시대와의 불화"라고 말하는 이 화백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터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자본의 논리가 행복 추구로 치닫는 마당에 버림받는 농토와 깎이는 산, 미풍양속이 와해되고 만 오늘날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염려하고, 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이 화백은 출간을 기념해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영암 도기문화센터에서 '영암의 빛과 바람'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영암의 풍경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 50여 점이 선보인다. (061)470-2566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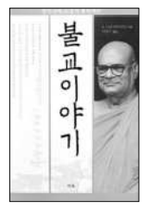
조선시대 지배층 불교의례 올렸다

유교를 국교(國敎)로 삼았던 조선 시대, 그 중에서도 중종 때는 유교적 의례가 점차 뿌리내려 생활 속의 관혼상제로 토착화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는 여전히 불교의례가 성행했음을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광주대 이희재 교수가 펴낸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는 중종 때 왕실이 행한 기신재(忌晨齋)를 통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있어 불교가 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기신재란 죽은 자의 기일(忌日) 새벽에 재를 올리는 것으로, 왕실에서는 선조의 신령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도록 한 불교식 제사를 말한다. 이 교수는 <중종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중종이 연산군 때 없어진 기신재를 복원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 기원하는 의례로 모셨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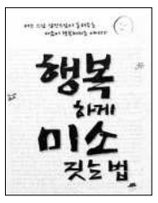
이 교수는 "조선 시대에 왕실에서 불교 의례가 행해진 것은 유교가 종교의례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이는 불교가 가진 종교성의 생명력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례와 관례와 혼례, 상례 등의 통과의례가 갖는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
이희재 지음
동양의문화와문화재 | 8천8백원

"무조건 웃어라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미소짓는 법
성전 스님 지음
도솔 | 9천5백원

당신이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돈과 높은 지위, 큰 집과 자동차…. 가진 것이 하나씩 늘수록 필요한 것은 더욱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전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법'은 단순하다.

"무조건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월간 <해인>과 <선우도량> 편집장을 거치며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글을 선보여 온 성전 스님은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에서 자신이 삶의 화두로 여기고 있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마음'을 풀어내고 있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마음속에 맑고 투명한 빛을 떠올리기. 그러면 육신의 무게가 사라지는 가벼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만나는 모든 것들과 대화하라" "행복을 위한 구절 하나씩을 기억하라" "호흡을 통해 고요한 이완의 즐거움을 터득하라" "손해로 화가 날 때는 전생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라" 등 생활 속에서 불쑥 치솟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나는 내 삶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행복이 그것이다. 내게 출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 깨달음은 행복을 의미한다. 슬픔에도 고난에도 한결같이 행복하게 미소 짓는 마음을 만나는 일, 그것은 내 꿈이고 수행의 완결이기도 하다."

책은 출가한 이에게 세 가지 소중한 인연으로 꼽히는 스승과 도량, 도반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스승이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보여준다면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은 훌륭한 길잡이이며 때로는 좋은 경책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그들과 함께 인연 닿는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 또한 바로 출가자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책 곳곳에 자리 잡은 풍경사진을 통해 산사의 풍광과 스님의 여유로운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이 책을 십분 활용하는 법이다.

여수령 기자

의상대사 삶 소설로



꽃들이 하나로 핀다
신지견 지음
조이에듀넷
9천8백원

<다비장 가는길> <벗어버린 사슬> 등의 소설가 신지견 씨가 의상대사의 삶을 그린 소설 <꽃들이 하나로 핀다>를 펴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조이에듀넷이 한국소설가협회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펴내는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102' 시리즈의 하나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의상 대사(625~702)는 화엄종의 개조(開祖)로, 중국 당나라에서 지엄 선사를 스승으로 화엄종을 연구했다. 670년 귀국한 스님은 경북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평등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화엄사상을 신라인들에게 설파하는 등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은이는 "의상 대사는 1300여년 전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며 "우리도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구별 없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소설은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일지'가 경주 황복사로 출가해 의상이란 법명을 받은 후 66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을 배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유학시절과 깨달음을 얻기까지 겪었던 고뇌 등을 면밀히 좇는다. 꼼꼼한 고증을 통해 당대의 풍습을 또렷하게 살려내 읽는 맛을 더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2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조계종출판사 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 림 원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 른 아 침
5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여 시 아 문
6	서장	전 재 강	운 주 사
7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9	선방 가는 길	정 찬 주	열 림 원
10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연락바랍니다
- 승려가 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 승려가 되고자 하나 불우한 청소년기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
- 이미 삭발은 하였으나 조계종 승려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께 학비 일체와 승려가 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승려(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행자도 모십니다
연락처 02-932-1412 / 934-2230 (팩스겸용)
청화 법조 합장

대승불교 사상 대강연회
주제 : 정역(正易)과 대승사상 (후천사상의 불교적 이해)
● 내용 : 가) 정역의 핵심사상
나) 대승불교의 본질
다) 법신사상과 후천사상의 관계
라) 일승신앙의 의미
마) 주역에서 본 정토신앙
● 대상 : 스님 및 신도
● 일시 : 2004년 11월 13일(음 10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사 : 대승불교대학 학장 원통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헌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손연칠 교수가 청동불로 재현한 '석굴암 본존불'.

손연칠 교수 석굴암 본존불 재현
11월 3일 '제20회 불교미술대전'서 발표

석굴암 본존불은 고도의 과학적인 제작기법과 빼어난 조각미로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여년전부터 보문사를 시작으로 롯데월드 모형관 등 적지않은 사찰에서 본존불을 기본으로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모작됐다. 하지만 본존불은 과학적이고 독특한 조형기법으로 만들어져 완벽한 재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10회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손연칠 교수(56 · 동국대 미술학부)는 재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본존불이 '좌우 비대칭 구조'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재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크기(높이 125㎝) 등 원형 그대로 재현된 손 교수의 작품은 화강암 대신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위풍당당한 자태와 상호의 원만함을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은 철저히 좌우 비대칭으로 조성돼 각기 상반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기법으로 제작된 본존불 재현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1백여회가 넘게 석굴암으로 올라가 본존불을 감상하고 사진 촬영을 한 손 교수는 본존불이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릎 좌우 크기와 높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깨 높이와 넓이, 귀의 높이와 크기, 머리 나발도 좌우의 나발 숫자와 양감의 표현에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상호에서도 이마의 높이와 넓이가 좌우측이 서로 다르며, 눈썹의 휘는 각도와 길이뿐만 아니라, 눈의 크기와 눈동자의 표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 볼에 흐르는 선과 양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계 어떤 불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석굴암 본존불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손 교수는 주장한다.

본존불의 재료가 단단한 화강암이기 때문에 조각하기 어려워 비대칭 구조로 제작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손 교수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본존불은 한마디로 완전성, 완벽성을 뛰어 넘는 최고의 결정체로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선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 걸작이라는 것이다.

1백여회 답사, 2년여 작업… 원형 그대로
'미소' 표현 가장 힘들어… 화강암 재현도 계획 중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재현이 이루어 졌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좌우 비대칭의 특수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손 교수는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손 교수도 본존불이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수십번씩이나 재현에 실패했다. 제작 기간이 2년씩이나 걸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손 교수가 이번 작품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일 듯 말 듯한 본존불의 '자연스러운 미소' 불보살상의 원만한 상호는 지혜스런 표정과 함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동시에 띠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표정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바로 재현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손 교수는 기존의 미술사적 실측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져 오직 사진에 의존해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손 교수는 앞으로 컴퓨터 실측을 통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존불의 원래 재질인 화강암 재현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이번 손 교수의 석굴암 본존불 재현 발표 작품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 20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6-1020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송강 스님 영산 범패 발표회

제자 24명과 함께 공연

송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의 '영산범패 발표회'가 11월 7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

공연은 괘불을 옮겨 걸어 영산회상을 상징화하는 괘불이운(掛佛移運), 불단(佛壇)에 권공예배를 드리는 상단권공(上壇勸供), 불교식 식사예법으로 공양의 공덕을 일깨우는 식당작법(食堂作法), 천수바라, 법고, 다게 순으로 진행되며 '화청'으로 회향한다.

상주권공(常住勸供)이나 각배재(各拜齋)에서는 관음시식(觀音施食)을 하는 데 비해 영산재에서는 식사의례를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했던 법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발전해 왔다. 음악과 무용, 미술이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종합예술로 꼽히는 영산재는 근대에 들어서는 신촌 봉원사를 중심으로 전승됐다. 지난 30년 동안 영산재 전승의 중심 역할을 하던 인간문화재 보유자 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제 1세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일응 스님이 지난해 입적함으로써 이제 영산재는 완전한 세대교체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구해 · 일운 · 기봉 스님과 함께 준보유자중 하나인 송강 스님이 제자 24명과 함께 펼치는 이번 공연은 의미가 남다르다.

송강 스님은 "스승인 송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문화 유산인 범패를 전승시킴은 물론 대중화 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02)58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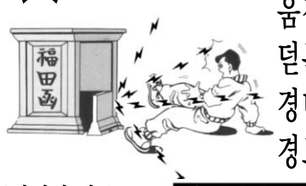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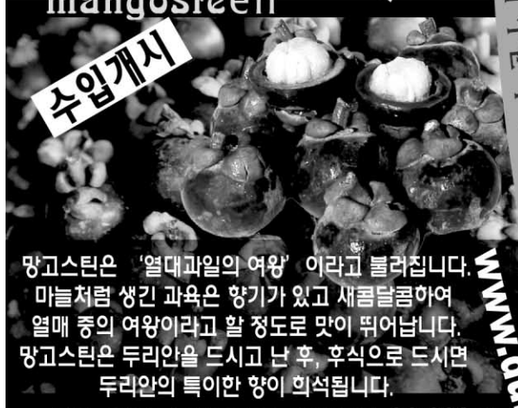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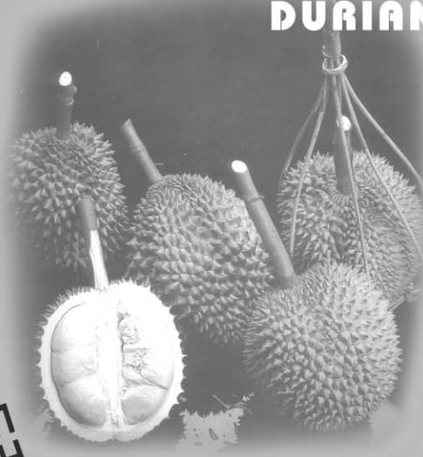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mangosteen
수입개시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마늘처럼 생긴 과육은 향기가 있고 새콤달콤하여
열매 중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뛰어납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드시면
두리안의 특이한 향이 희석됩니다.
가격 : 1박스 4.5KG(45개~50개들이) 90,000 원
망고스틴을 드시는 방법
과일의 중간지점을 손끝으로 눌러서 돌리신 다음,
약간 비틀면 잘 따집니다.
자주색 껍질 안에 눈처럼 새하얀 과육이 숨어 있습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E-Mail : durian1357@hanmail.net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예금주 조명숙)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과일의 왕 두리안
부처님도 즐겨드셨습니다
강장효과가 뛰어난 과일의 왕
DURIAN

가격 : 3kg 35,000원
6kg 60,000원
12kg 120,000원
두리안과 망고스틴은 가장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영하 40도에서
급냉보관하여 수입하므로 원산지맛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



복권으로 인생 역전되나요?

결국 우리 동네, 그 나지막하고 아담하던 우리 동네에도 복권방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엊그제 버스 정류장에 나갔더니 그 앞에도 한 곳 생겼더군요. 가게 유리에는 지난 주 당첨번호와 이번 주 1등 당첨금이 24시간 반짝거리며 오가는 이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1등에 당첨되면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까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 고급동네에 살고 더 비싼 옷을 입고 훨씬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아가겠지만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질 높은 변화'를 줄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아난 존자와 함께 넓은 들판을 지나시다가 어느 밭두둑에 엄청난 황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난아,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독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습니다. 독사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독사입니다."

나날을 보내던 농부는 황금을 처음 발견했던 그 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난이시여, 정말로 독사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짜 흉악한 독사였습니다."

이런 외침은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왕에게 불려간 농부는 그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처님과 아난이 '독사다, 흉악한 독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일가친척이 모두 고통을 당하듯이 재물도 독사의 해악과도 똑같아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큰 재물을 보고도 유혹을 당하였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대장엄론경' 6권)

그럼, 가난한 사람은 큰 돈도 만지지 말라는 법이냐며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덩어리를 독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요

요행으로 거머쥔 큰 재산은 맹독 품은 독사
한탕주의와 욕심·기득권 모두 한줌씩 덜자

때마침 그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부처님과 아난이 '독사, 독사'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독사가 있는데 저리들 난리람?'

농부는 확인하러 그곳에 갔더니 독사가 있다고 하던 그 자리에는 황금빛 찬란한 금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농부의 눈이 뒤집혔지요.

"세상에나…. 이 좋은 걸 독사라고 하다니…."

농부는 부리나케 황금덩어리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입고 싶은 옷 한번 제대로 못 해 입었고 먹고 싶은 음식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떠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보니 이제 입성이며 먹을거리는 여느 부잣집 못지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살림살이가 확 편 것을 못내 수상쩍게 여기고 있던 관리가 급기야 그를 끌고 갔습니다. 농부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임자 없는 보물이라 생각해서 가져간 것이라며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할 리 없지요.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죄는 더욱 무거워졌고 결국 농부는 황금덩어리를 고스란히 빼앗기고도 사형대로 끌려갈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불안하고 억울한 행으로 거머쥔 큰 재산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망치는지를 일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사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그건 요행이 아니다. 며칠 지나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게 뻔하지만 추첨하기 직전까지 맘껏 꿈꿀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심 이 한 장으로 인생이 역전하리라는 어마어마한 한탕심리가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 원 어치 복권을 사서 천 원짜리에 당첨되면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아, 이런! 돈만 버렸네!"

적어도 복권에 있어서는 본전치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백, 수천 배의 이득은 챙겨야 본전을 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복권입니다.

노력한 만큼 갖게 되는 정당한 부 보다는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사회풍조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미 소유한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들로 바글거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생이 역전된다 한들 좋은 방향으로 역전되겠습니까? 큰 재물을 바라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욕심과 기득권을 한 숟가락씩이라도 덜어내는 일, 이것만이 맹독 품은 독사를 죽여 버리고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얼마나 아냐보다 실천이 중요



정무 스님은 늘 '효'를 강조한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효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지상 백고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를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리와 도덕과 예법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 무엇에 기대고 살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1956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웃 선생님한테 '一心正己(일심정기)'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마음이 옳아야 몸뚱이가 옳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은 안 차리고 육신만 자꾸 치장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개 값만도 못합니다. 정신이 중요한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 알고 은혜 갚는 이가 보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몇 달러 가지고 삽니까. 인도나 방글라데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검약 아니겠습니까. 검약은 쓸데없는 것은 안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하는 사람은 쓸데 있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예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고, 선생이 선생 노릇 못하기 때문에 예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고, 학생이 선생을 이기고…,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세요, 자식이, 학생이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국가는 커다란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부모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일체중생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해주자는 발원으로 출가했습니다. 자기 일신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고 일체중생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인성 어둡게 하는 직업 피하라

목련존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구출했고, 고구려의 아도화상은 어머니 명령대로 했다고 해요. 신라 원광법사도 세속오계에서 효도로써 부모를 섬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대조사가 다 어머니 모셨어요, 30년 동안 생식을 한 어떤 조사는 어머니가 하도 익힌 것을 먹으라고 해서 먹긴 먹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생식을 했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웃음거리 되죠. 효자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은혜 알고 은혜 갚는 이가 보살'이라 했어요. 능히 은혜를 갚는 자는 선업을 짓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능히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은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부모 은혜입니다. 부모 은혜는 양육하고 근심걱정 해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모두 열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를 다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면 보답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천지신명을 다 받들어도 부모님 섬기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극한 대효(大孝)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출세해서 조상 이름을 날리는 것이 대효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도 중생이니 인과를 알게 해주고, 삼보를 모르면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대효라고 하셨습니다.

효는 곧 예의입니다. 예의는 남을 배려하고 부끄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등산법회 겸 태화산산신제
오는11월 7일 일요일 오전10시 우리절에서는 등산법회를 봉행합니다. 수십억년에 걸친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된 아름다운 태화산에 올라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산신제도 함께 봉행합니다. 등산복이나 캐쥬얼 차림,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신제에 공양물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곡≫제13권 발간
등산법회와 태화산산신제에 즈음하여 우리절주지 동붕스님의 ≪일원곡≫제13권이 발행됩니다. 이번 제13권에는 영산재작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불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사언절완역본입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출가 · 재가를 가리지 않고 다 나누어드립니다.

◆고암대종사생신재
오는11월 16일 화요일(음력10월 5일)은 고암대종사의 탄신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절에서는 이를 앞당겨 오는11월 14일 일요일 오전10시에 생신제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무 스님. 스님은 지금도 밭일을 직접 한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인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지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사치하고 낭비하죠. 이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광명 환희 원만성취, 바로 이런 마음이 연(緣) 따라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자비심 내고, 부정한 것을 보면 정직한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것을 보면 지혜를 내고, 이렇게 인간 본성은 연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과' 알게 해주는 것이 大孝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요. 맞는 말이지만 필요할 때는 귀천을 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품성을 회복하고 인성을 회복하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대악업(四大惡業)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인성을 모질게 하고, 거칠게 하고, 어둡게 하고, 타락케 하는 직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禮) 답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오계를 만드셨고, 원광법사는 세속오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요즘엔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할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는 인성을 해롭게 하는 직업은 버리고, 넷째는 시간과 돈은 일의 가치 순으로 쓰며(잘 써야 하며,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 다섯째는 음식은 자연식으로 하며, 여섯째 자연건강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참선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참선을 하면서 무슨 해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곧 인생공부 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탐구하는 것인데, 사실 인생 공부는 벌써 끝났어요. 부처님 성도하는 순간에 일체중생이 다 성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평생 실천했지요. 바로 실천이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특성에 맞춰 찾아야 합니다. 글을 잘쓰면 글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 자기의 소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중생을 편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는 법을 모릅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을 모릅니까?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포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요.

참선이나 철학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탐구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인생론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화두로 삼아 보세요.

살다보면 여러 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쫓으려고 하면 더 생깁니다. 그냥 놔두고 시비하지 마세요. 번뇌와 시비하는 것은 마치 못된 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참을성이 부족해서 이것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인내심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참을성뿐만 아니라 화합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사는 지혜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자

세상을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사세요. 의식과 생각이 싸우면 생각이 이깁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의식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이기는 것이니까요. 물론 실천이 어렵겠지만 '人不願 聖不護(인불원 성불호)'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원치 않으면 성인도 굽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처님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봉사하며 사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장수하는 비결 중 꼭 들어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둘째,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셋째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견성성불 생사해탈 진리실현에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세요. 이 세상 올 때는 정신없이 왔지만 갈 때는 분명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30여년 孝 바로 세우기 법문

정무 스님은 정무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효다. 그리고 효 사상을 바탕으로 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30년 전 용주사 주지로 있을 때 부모은중경탑을 세우고, 현재 주석하고 있는 석남사에도 작년에 똑같은 탑을 세웠다. 언제 어디서나 '효'에 대한 설법도 빠지지 않는다. 바르게살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항상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며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수행과 노동을 강조하지만, 신도들에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따뜻하다. 1968년 영주포교당에서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도수련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도 처음으로 여는 등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 임피에서 태어나 57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한 뒤 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전강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5하 안거를 성만했다.

1971~2001년까지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 이천 영월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안성 석남사에서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 선곡 스님 (下)

선곡 스님은 선암사에 내려와 있다가 용성 스님이 함양에 농원을 내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청정수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함양으로 갔다. 농원에서는 백장의 선원청규를 따라 '하루 한 때라도 일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지 않는(一日不作一日不食)' 살림을 살았다. 스님도 3년간 농사짓고 좌선하며 용성 스님을 시봉했다. 그뒤 지리산 칠불선원(七佛禪院)에서 조실을 살았다.

이때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에는 선곡 스님의 은법사인 선파 스님이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을 모시다가 칠전선원에 내려와 조실을 살다가 열반하셨다.

선암사는 흔치 않은 육방살림(六房山林)의 전통이 있는 사찰이다. 전체를 여섯 덩어리로 나누어 전각 자체가 특별한 가풍을 이어가는 별도 수행체계를 갖추어 생활하면서 그 여섯이 모여 하나의 총림체제(叢林體制)를 갖춘 것이다. 달마전, 미타전 등 일곱 개의 전각으로 이루어진 칠전은 출가한 지 30년이상 되는 구참납자들이 결제와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일년내내 안거에 드는 상선원(上禪院)으로, 스무 명이 넘지 않는 단촐한 살림을 살았다. 바로 오른쪽 옆 무우전(無憂殿)은 정업원(淨業院)이라 하여 능엄주나 대비주 등의 진언을 외우는 전각이다. 50여명의 수행자가 밤낮으로 진언을 염송하며 살았다.

칠전을 내려와 원통보전, 불조전, 장경각 등을 지나 왼쪽의 천불전(千佛殿)은 강원(講院)으로 40여명의 대중이 함께 살았다. 바로 아래 창파당(蒼波堂)은 도감원(都監院)으로 총림내 모든 행정 및 법회 등의 절차와 살림살이를 살피는 곳이다. 만일(萬日)은 염불원으로 만일염불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심검당(尋劍堂)은 하선원(下禪院)으로 결제동안 열심히 정진하는 신참납자들이 모여 살았다.

각기 전각에는 별도의 조실(祖室)을 모시고 살았으며 공양간과 뒷간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일정한 독립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총림전체의 의사를 표하거나 밖에서 대표할 일이 있으면 칠전선원의 조실이 전체의 조실로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장(方丈)역할을 하였다.

선암사 스님들은 선파 스님의 다비를 모시고 얼마 안 있어서 칠불선원으로 선곡 스님을 찾아와 칠전선원에 머무르면서 납자들 지도해줄 것을 요청해 스님은 본사인 선암사로 향했다. 그러다가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서 절이 어려워지자 주지까지 맡아 살림을 살았다. 선암사는 산이 깊어서 낮에는 경찰이 무대로 삼고 밤에는 반란군이 무대로 삼아서 대중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대중들은 피란을 가고자 하였지만 스님은 대중들만 보내고는 혼자서 선암사를 지켰다.

그러자니 밤낮으로 당하는 고생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낮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내주고, 밤에는 빨치산이 그러면 또 내주고는 하였다. 그런데 고마워해야할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경찰에게는 빨치산에게 밥을 해준 사실이 밀고 되고, 빨치산에게는 경찰에게 도움을 준 일이 고변되어서 양쪽에서 선곡 스님을 못살게 군것이다. 낮에는 경찰이 닥달을 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매질을 하였다. 사정없이 쏟아지는 뭇매를 맞으면서 스님은 다짐했다.



그림 · 문병성

여순반란때 경찰 · 빨치산에 시달리면서도 가부좌 안풀어

"부처님 당시 포교제일 부루나 존자는 수로나 지방의 험악한 사람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돌과 나무로 때려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상한 인생을 중단하고 평안한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을 원망을 하지 않았다. 나도 부루나존자처럼 하리라. 아니 경허 스님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좌선하는 자세를 풀지 않으리라. 수행자는 앉으나 서나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내 그것을 제자들에게 늘 말해 왔는데 이번에 내 스스로 그것을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는 몽둥이질에 밀려서 이리저리 구르면서도 가부좌한 다리를 풀지 않았다. 도망간 상대편들의 간 곳을 대라고 매질해도 아무 말없이 좌선만 하고 있자 매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 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그 불편부당한 마음에 감동해서 풀어주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상황이 좋아지자 선암사에는 다시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상초유의 승단분규 즉 법란을 겪으면서 수행자연 하는 이들을 엄하게 꾸짖고 초연하게 도량을 지키면서 납자들을 제접했다. 1968년 제자들에게 "해가 뜨니 서방을 비추고, 달이 떨어지니 서방을 떠나는구나(日出照西方 月落離西方)"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6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 21세기 정신세계의 대혁명 >
대 자유인이 되는 길



도서출판 다나 / 신국판 287쪽 / 값 10,000원

인류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해 온
종교적 무지와 맹신을 남김없이
몰아낼 수 있는 혁명적 가르침.

깨달음이 실종된 진리의 암흑시대에
구도자를 참된 길로 이끌어주는
명쾌한 지침서.

해공선생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명상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 장소 : 정신세계원(02-747-7033)

전시

엽전에서 찾은 書道 필치

하나아트갤러리 김일도 화백 '脈-文字' 展



김일도 화백이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 '엽전 속 세상'.

'脈-文字(맥-문자)'라는 주제로 김일도 화백(청담정보통신고 교사)이 11월3~10일까지 서울 하나아트갤러리에서 네 번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 화백은 음양사상과 서예 그리고 조형예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작품 '엽전 속 세상'은 '엽전의 원형은 가장 근원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우주'라는 이번 전시회의 부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밖은 둥근 모양을 하고 안은 비어 있는 네모 형태를 한 엽전에서 서도(書道)의 획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그의 서예 작품 중 속도감이 큰 행서, 초서는 활달한 필치로 중첩되어 추상성을 보여준다. 또 서예의 기본 문자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의 오체를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세 번의 개인전을 통해 단청과 민화, 오방색을 발현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031)691-8095 **노병철 기자**

조세현이 찍은 '가족 그 따스함'

서울광장 '사랑의 사진전-천사들의 편지 II'



탤런트 김정은 씨가 장애아동과 함께 한 다정한 시간이 조세현 작가의 시각으로 따뜻하게 표현됐다.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작업한 '사랑의 사진전-천사들의 편지 II'가 11월 1~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시돼 감동을 선사한다.

대한사회복지회가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두 번째 시도되는 것으로 입양아동, 시설아동들과 유명인사들을 촬영한 '가족' 사진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확대하여 사랑으로 맺어진 큰 의미의 가족들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것이다.

사진전에는 국내외 입양가족과 위탁가정의 모습, 지휘자 정명훈, 변호사 오세훈, 국회의원 장향숙, 가수 인순이, 탤런트 이정길 김정은 지성 김민,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아나운서 김범수 등 유명인사 · 연예인들이 장애아동, 미혼모 아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출품된다. (02)567-8814 **강지연 기자**



도심 속에서 노랗고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며 걸어보자. 사진은 여의도 국회 주변(왼쪽)과 청와로 방향의 경복궁 주변.

어쩌란 말이냐 걷고 싶은 이마음을

서울 · 대구시, 낙엽 · 단풍 · 열매의 길 지정

매년 이맘때쯤 노란 은행잎을 달고 있는 은행나무가 늘어선 거리는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가 된다. 상쾌한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진 낙엽들이 푹신한 양탄자처럼 깔린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올 가을 낙엽의 거리, 열매의 거리 등을 지정, 연인과 가족 모두에게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전통사찰도 단풍 축제를 열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시내 총 51곳을 각각 '단풍의 거리' '낙엽의 거리' '열매의 거리'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한다.

시청 앞 정동 돌담길, 삼청동길(동십자각~삼청터널), 남산 언덕길 등은 대표적인 '낙엽의 거리'이며, 화랑로(태릉입구~삼육대)에서는 1천 그루의 버짐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등이 만드는 낙엽터널을 지날 수 있다.(02)731-6114

#대구시는 수성못과 두류공원 등 11곳을 11월 4~24일 '낙엽의 거리'로 지정했다. 인도와 산책로의 낙엽을 쓸지 않아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시 낭송회를 비롯,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낙엽 밟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053)422-1191

#화려한 단풍축제는 천년 고찰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다. 11월 4~7일까지 열리는 대흥사 단풍 축제에는 노래자랑, 단풍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6, 7일에는 제 13회 초의문화제를 개최, 추모제와 기념사생대회, 음악회와 천도다례제 등을 지낸다. 또 가족들이 함께 하는 '100가족 들차회'와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차향을 느끼는 '차의 향연 템플스테이'도 실시한다. 대흥사(061)534-5502, 해남 삼산면사무소(061)534-6130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단풍 · 낙엽 · 열매의 거리

지역	길 이름	구 간	지역	길 이름	구 간
서울	중랑천 제방	묵동교~장안교	서울	구로 안양천변길	
	성북 감나무길	석관로		금천 시흥역길	
	목동중심축 도로	안양천변로		금천 호압사길	
	장승배기길	동작구청입구삼거리~장승배기		여의서로	서강대로~국회뒤~파천교
	낙성대길	낙성대입구~서울대후문		노량진로 지선	숭의여중~대방동 대림아파트
	단감나무길	신림8동~신도 브레뉴아파트		관악산 주진입로	관악산 주차장~제 2광장
	성내길	신명초교~생태공원		관악로	서울대역 입구~서울대 정문
	삼청동길	동십자각~삼청터널		서초 헌능로	염곡사거리~헌인마을
	종로 청와로			강남 밤고개길	수서역~세곡사거리
	중구 덕수궁길			강남 양재천길	영동6교~영동2교
	소월로	힐튼호텔~하이야트호텔(남산공원)		송파 위례성길	
	성동 송정제방			송파 석촌호수길	
	능동로	어린이대공원~뚝섬유원지역		강동 고덕동길	고덕역~상일역
	동대문 제방길			약수터길	대명초교~고덕소방파출소
	중랑천길	묵동교~이화교		상일동길	상일IC~강일동 입구
	구민회관길	성북구민회관 진입도로		서울대공원	대공원 외곽순환로
	월곡동길	서울사대부고~일신초교		남산공원	북측순환도로
	하월곡동길	아남아파트 주변		보라매공원	
	한천로 제방	신창교~월계2교		시민의숲	
	도봉산길			하늘공원	억새밭 길
	화랑로	태릉입구~삼육대학교	대구	수성못길	두산오거리~수성하와이
	통일로	박석고개~구파발 인공폭포		두류공원	두류도서관~산마을휴게소
	진흥로	신사오거리~역촌오거리		앞산공원	은적사~대성사
	서대문 홍제천길			이천로	봉산육거리~건들바위네거리
	안산 산책로			체육관앞길	경북도청~대구체육관
	마포 연남동길			팔공로 2곳	공산댐~공산터널, 미대동~동화사 입구
	양천 해바라기길				
	양천 양명길			팔공산순환도로 2곳	파계사삼거리~동화사입구, 백안삼거리~갓바위지구
	우장근린공원 내 조각거리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파계로	파군삼거리~파계사 삼거리
	구로 거리공원길			서재로	신당네거리~신당재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일 08:05 특집 다큐 '아라리로 일군 무릉도원, 정선'
2일 19:00 박진선의 트롯시대
3일 22:05 영화음악실
4일 07:05 고운기의 아침저널
5일 20:05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
6일 18:15 BBS 집중토론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일 07:50 명상음악산책
2일 23:40 다시 듣고 싶은 법문
3일 09:20 지운 스님의 대승기신론
4일 17:3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5일 14:30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6일 16:10 부처님경전이야기
7일 13:50 한국의 명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11월 5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과 기지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청취자가 '배추머리 노래방' 코너에 참여해 노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다.

■**불교텔레비전**: 지운 스님의 대승기신론(11월 3일 오전 9:20~10:00) 지운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쉽게 풀어서 강의 한다. 강의는 <대승기신론>의 총론부분을 다룬 뒤 각론과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진주합장주



진주는 사람의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예로부터 약용으로 몸에 지녀온 보석이다. 미용 · 정신안정 · 해열 · 해독효과를 내는 진주 합장주는 건강도 챙기고 장신구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일석이조의 상품. 가격 8,000원(소) 12,000원(중) 16,000원(대) 세 종류이며 재질은 양식진주, 크기는 6~8mm이다. (02)732-1520

기차타고 떠나는 내소사 여행

11월 6 · 7일 템플스테이

단풍이 익어가는 가을,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내소사의 꽃살문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내소사 템플스테이를 11월 6 · 7일 선보인다.

고속철과 연계해 개발한 내소사 템플스테이는 발우공양, 산사음악회, 걷기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참가비는 108,000원, 모집인원은 40명이다. (02)2011-1975 **강지연 기자**

12회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11월 10일까지 우편접수

보리방송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제 12회 보리방송문화상'을 공모한다. 2003년 11월 이후 제작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의 추천서, 개요서, 비디오 테이프를 11월 10일까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총무원장상 △일반TV 부문-작품상, 최우수상, 우수상 △불교TV 부문-개인상, 공로상 △불교방송 부문- 개인상, 특별공로상 등이다. 입상작 발표는 11월 25일이며, 시상식은 12월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2)745-5811 **노병철 기자**

20면 상식 퍼즐 정답

소	유	욕		길		
탐		계	축	일	기	
대			출		결	
실	화				수	표
	물		대			리
	선	가	오	종		부
		시		정	중	동

게시판

공부합시다

범어 티베트어 팔리어 강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 범어 티베트어 팔리어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범어초급(금 17시)은 이영진 교수가, 티베트어 연습(토 18시)은 허일범 교수가, 팔리어 강독(토 16시)은 이자랑 교수가 강의한다. (02)765-9602

함께 해요

무료산림학교 개설 경북대는 11월 6~7일, 13~14일에 나무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산림학교를 개설한다. 희망자는 강좌 개설 2일 전까지 신청 가능. '울창한 숲은 산림종합병원' 등의 강의와 '나무 이름 알기' 등의 현장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053)950-6850

밑반찬배달 봉사자 모집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 밑반찬 배달은 격주 화요일에 실시된다. (02)2203-3677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대한안과학회는 11월 7~13일 '2004 대한안과학회 눈 주간'을 맞아 녹내장 수술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 안구기증운동, 외국인근로자 무료 녹내장 검진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02)3487-4444

자원봉사자 모집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주방보조, 대학생 대상 방과후 푸르미 교실, 홀로 어르신 건강음료지원 등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자인면 일대 독거 어르신을 위해 11월 26일 자인성단에서 영정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053)811-1347, www.bcsw108.org/given1.htm

무료 폐질환 검사 · 강의 순천향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11월 4일 오후 2시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해소천식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폐기능 검사 및 알레르기 피부반응 무료검사,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강의 등을 개최한다. (02)709-9220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컴퓨터 기초에서 자격증 교육까지 폭넓은 컴퓨터 관련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정신지체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 '맑은소리터'와 내원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도 모집한다. (051)264-9033

우울증 무료검진 대한 우울 · 조울병학회와 제약회사 한국 GSK가 11월 5일까지 전국 23개 병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강의와 무료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02)709-4114

재활상담전문요원 교육 대구장애인복지관은 11월 3일부터 매주 수 · 금 오후 7~9시에 장애의 특성과 재활서비스, 재활상담원의 역할 및 기능 등 4주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참가비 2만원. (053)767-0770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캐릭터 공모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이미지 변신을 꾀하기 위해 수련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기간은 11월 8일~25일. (02)834-7233, www.boramyc.co.kr

간병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간병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11월 23일 시작한다. 수강료 30,000원. (02)723-5101

청소년수련관 건전영화 상영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은 11월 6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위한 건전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상영한다. 상영작은 스쿠비두(13일) 원더풀데이트(14일) 망치(20일) 천공의 성 라퓨타(21일) 라이온 킹(27일) 슈렉2(28일)이다. (032)465-6828

자원봉사자 모집 신길복지관은 방과후 교실, 신길시니어아카데미, 경로당활성화사업, 홍보 및 기획사업, 재가복지팀 등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31-2755

가족잔혹사 연극 '가족 왈츠' 오해가 불러온 가족 잔혹사를 그린 연극 '가족 왈츠'가 11월 28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제 7회 국립극장 신작 희곡 페스티벌 당선작. (02)762-0810

'하늘을 나는 새'展 고양시 복합문화예술공간 덕양어울림누리가 12월 5일까지 이중섭의 미공개 그림 엽서(1939-41) 6점, 조선후기 작가 해부 변지순, 이당 김은호, 제당 배렴, 정재 최우석의 미공개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는 '하늘을 나는 새'전을 연다. (031)960-9730

즐겁게 떠나요

2004 신라문화답사유적 신라문화진흥원은 11월 7일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 순흥벽화고분으로 151회 신라문화 유적답사여행을 떠난다. 답사비용은 회원 15,000원, 비회원 17,000원. (054)746-1950

남도 맛기행-고창 · 영광 · 보길도 · 해남 옛돌은 11월 6일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사 단풍숲, 대흥사 단풍터널, 보길도 세연정, 화순온천을 돌며 단풍과 장어 · 전복죽 등을 맛보는 남도 맛기행을 선보인다. 참가비는 일반 230,000원, 회원 및 중 · 고생 220,000원, 어린이 200,000원이다. (02)953-1313

만산홍엽 내장산 백양사 영투어는 11월 5일 · 6일 무박2일로 내장산 내장사와 백양사 단풍기행을 떠난다. 내장사 일주문 원적암 벽련암을 거쳐 추령장승축제를 관람하고 백양사 단풍길 산책의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일반 55,000원, 어린이 45,000원, 회원 및 중 · 고생 53,000원이다. (02)736-9025

신행수기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하〉

최순옥 (경북 구미시)



그림 · 김홍인

화장실 청소하며 분별심 버려 매순간 마음관찰, 깨인 삶 추구

오랫동안 청소부가 없어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인지 스무 개가 넘는 화장실은 썩어있는 듯 했고, 오물 따위들을 치울 때 나는 고약한 냄새는 며칠 씩 코끝에 남아 영 거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오물은 음식물의 변형일 뿐인데 왜 그리 언짢아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윤회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음식물일 때는 좋고 사람을 살게 해주느라 똥이 되면 왜 더럽다고 생각하나. 이런 분별은 내 마음의 간사한 작용일 뿐이다.

나는 주리반특을 생각한다. 주리반특은 바보일 뿐 나처럼 영혼의 때는 없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하셨거늘 나 같은 사람이야….

나는 <금강경>을 독송할 때마다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만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에 그리도 많이 분별하고 집착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 주인공이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빗자루로 쓸고 나면 일차로 깨끗해지고 물걸레로 닦고 나면 환해진다. 그 위에 마른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유리마냥 투명해진 아름다운 검은 대리석은 본래의 빛을 띠고 그 곳에 내 얼굴이 비친다. 나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다.

난생 처음 하는 회사생활이 나는 즐겁다. 내가 하는 일이야 가장 밑바닥 일이고 더러움을 씻는 천한 것이라 하나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힘은 들어도 머리 아픈 일도 직업에서 오는 고민도 없다. 일할 때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소리없는 염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행선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루 종일 주인공과 얘기를 나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생각들은 주로 망상들이지만 주인공과 의논한다.

'방금 그 생각은 중생이라 한 것이다'라고 내가 변호하면 '너를 합리화시키지 마라'고 즉각 주인공은 꾸중한다. 맞다. 주인공 하면 그래 네가 주인공이라 부르는 나는 바로 너다. 또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화장실 거울을 닦으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묻는다.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모른다. 도저히 모른다. 하나 한 가지 사실만은 안다.

나는 스스로가 아주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잘났다는 기분에 빠져서 마음속에 오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란 것만은 안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기 위해 이렇게 깨끗한 물로 좍좍 나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나의 삶을 순간순간의 마음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발림 말이 아니었나? 또 지금하고 있는 이 생각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죄짓는 생각을 하는가? 하며 얼른 생각을 바꾼다. 매 순간을 깨어 있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매불망 공부 못 시킬까 전전긍긍하던 아이들 공부도 3년 전에 끝났고 모두 결혼까지 하였다. 아이들 공부할 때, 대행 스님의 말씀 가운데 "되고 안되고를 몽땅 놓아라"고 하시던 말씀이 내게는 풀길 없는 화두였다. "내가 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놓으면 어쩌란 말씀인가?"

그 말씀을 푸는데 얼마나 미련했으면 나는 5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결과는 주인공에게 맡기면 되는 이렇게 간단하고도 간단한 것을 왜 그리도 무겁게 안고 고민하며 뒹굴었는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며 살고 있다. 스님 말씀처럼 뿌리가 제 나무를 죽일 리가 없다고 하는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나이 우리나이로 예순 하나, 이순(耳順)이다.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귀 이에 순할 순. 아마도 이 나이가 되면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순하게 들어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나이에 하필이면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순하게 들어야 할까?

사람이 육십 년 이상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아집도 그만큼 오랜 세월 단단하게 고치를 지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잘 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계의 표지가 생겼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고 화려하고 대우받는 자리에 가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복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격해 마지않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고 그 분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상 무슨 복을 더 바라리.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아난다여, 너 자신이 너의 등불임을 알라. 너 자신이 너의 안식처임을 알라. 너 자신 이외에 다른 안식처를 찾지 마라. 등불인 진리를 단단히 붙들라. 안식처인 진리에 굳건히 안주하라. 너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안식을 구하지 말라." (끝)

릴레이 수행일기 〈하〉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예불로 일과시작 육바라밀 실천 노력 편양선사 자비행 귀감 삼아 복지공부

서옹 스님께서는 소식(小食)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일상에 매이는 일도 없이 자유자재하시면서도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경지를 보이셨다. 마치 칸트처럼 매일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셨는데, 내가 출가를 두고 고민을 하자 하루는 매일 가던 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진 길로 산책을 가시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생각하니, 출가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가는 것이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 같다.

자비하신 스님. 제게 정광명(淨光明)이란 법명과 함께 세계일화, 자비무궁, 수처작주, 오역문뢰라는 글씨도 내려주셨는데, 항상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기곤 한다. 또 집에 불상을 모시고 싶다고 했더니 점안도 해주셨다.

그 전날 나는 꿈을 꾸었는데, 무수한 스님들이 내게로 향해 행진해 오는 꿈을 꾸었다.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불보살님이 출현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불상에 청정수와 향을 피우고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사홍서원으로 아침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참선수행을 하다보면 경전 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은 문자에 집착하고 분별하다 보면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나중에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경전의 소중함을 새삼 알 것 같다.

그러고 보면 편양언기 선사는 책에서 만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치는 성자>에서 편양 선사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처음 오도를 하신 후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깨달은 후에 경전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하던데, 나의 경우는 경전이 수행에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보임하시는 동안 걸인으로 사시면서 어린이, 노인, 무의탁자나 임진왜란때 다친 부상자들을 돌봐주신 행적은 불교복지를 하는 나에게는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어떤 수행법이든 수행의 목적은 탐 · 진 · 치 삼독을 제거하고 본래의 진실한 자기를 회복하는데 있다. 수행을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다보면 살아가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이나 자신의 본분사를 망각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는 한 갈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실과 괴리되거나 착각을 하면서 깨달음의 현상이라고 고집하는 수가 간혹 있다.

수행과 일상, 현실의 삶을 병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내가 겪었던 불교공부와 수행법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삶으로 구현해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육바라밀' 수행인 것 같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이 수행법의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육바라밀은 출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보살의 수행법인데, 용수 대사는 <보리자량론>에서 육바라밀을 복덕지혜 이종자량의 깨달음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수행이며, 자리와 이타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아이고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아의 사회적인 실현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자아가 실현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이고 복지사회의 실현일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방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맛보기한 것에 불과하다. 살아가면서 경계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경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도 수행이고 보면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③

주제와 소재 직접 체험한 이야기 명료하게 전개해야

●주제는 글의 중심사상

주제란 그 글이 담고 있는 중심사상을 말한다. 중심사상이란 곧 작자의 인생관 내지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선명할수록 명료한 문장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주제는 그 글의 핵심적 사상으로 생각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글에 초점이 없다면 그 글은 산만해져 통일된 사상을 오롯이 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주제를 고를 때에는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중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에 맞는 것을 골라야 무리가 없다. 되도록 관념적인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고, 주제는 되도록 한정되어야 하며 주제를 위해서 동원되는 소재의 선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소재는 글의 재료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주제를 위해 동원되는 재료를 말한다. 가령 비행기 추락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A라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때 '운명'이라는 문제로 글을 쓴다면 주제는 '운명'이 되고 '비행기 추락사고'는 소재가 될 것이다. 허나 똑같은 '운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선택되어지는 소재가 제각기 다른 것은 작자의 인생관 내지는 생활의 폭과 많은 관련을 갖게 된다.

자신의 내부를 촉발할 만한 어떤 대상과 소재가 만나면 그 순간 스파크처럼 충격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때의 충격을 일러 감동 또는 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충격을 분석, 정리해서 주제로 삼으면 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기도처 자광원 지연속에 보금자리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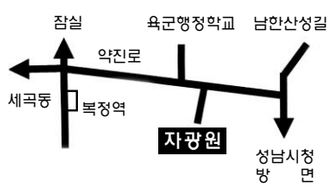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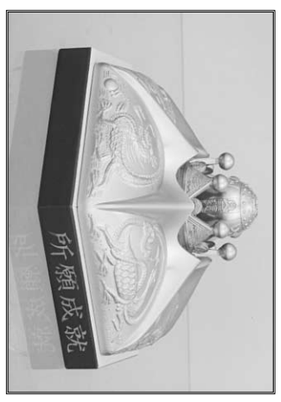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토피 · 비염 · 천식

완치 성공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지정한의원 마고

진 료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마고한의원

문 의 02)587-0001

※ 아토피 · 비염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논문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차문화의 세계화를 화두로…"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들차회 모습. 들차회에서는 녹차와 연차 등이 제공됐다.

10년사 발간 및 논문 8편 발표

"한국차학회는 10주년을 계기로 학회의 창립 이념과 목표를 재인식하고,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차 학문의 발전과 새로운 차 문화유산 창달에 기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 · 원광대 교수)가 10월 22일 전북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2004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차학회 10년사>를 발간하는 등 10주년을 자축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차학회가 주최하고 원광대 생활자원개발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제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과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 한국제다 서양원 대표, 원광대 정갑원 총장을 비롯한 전국의 차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미경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까지 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본다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이다"며 "차학회는 앞으로 우리나라 차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갑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차는 우리의 정서를 윤택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으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차학회 회원들이 차문화 연구와 발전에 더욱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박용구 교수가 학술상에, 성균관대 이혜자 겸임교수와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박장현 연구원이 논문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차학회 회장을 역임한 故 천병식 교수에게 공로상이, 서양원 대표와 정상구 한국다도협회장,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대구 용운사 주지 지운 스님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다선(茶禪)', 중국 강서성 농업대학 위엔(餘悅) 교수의 '다선일미의 3층 경지', 가톨릭대 김경수 교수의 '녹차에 함유된 L-데아닌(theanine)의 건강증진 효과'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차 모임을 수행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운 스님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다선(茶禪)'과 김경수 교수의 '녹차에 함유된 L-데아닌(theanine)의 건강증진 효과'를 요약 소개한다.

글 · 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주목할만한 논문

L-데아닌의 건강증진 효과



김경수(가톨릭대 교수)

데아닌은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정신적 이완효과, 혈압강하,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아닌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를 이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적 이완과 피로도 자각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되었다.

실험은 한 달 이상 피로를 느끼고 있는 30~55세의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1주일 간격으로 대조 음료와 데아닌이 200㎎ 함유된 시험음료를 교차 복용하도록 한 후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1시간 동안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 때 정신적 이완의 지표로서 베타(β)파에 대한 알파(α)파의 파워 비율을 구한 결과 시험음료를 복용한 경우 파워값(알파지수를 베타지수로 나눈 값)이 0.90으로 대조음료 복용시의 0.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주일 간의 병행시험에서 자원자들의 피로도 자각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시험음료를 마신 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데아닌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는 정신적 이완 및 집중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파를 증가시키며 개인의 피로도 자각의 개선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집중력 강화와 긴장이완의 효과를 나타냈다.

제2회 천태 차문화 대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춘광)는 11월 8일 오전 10시 금강대 대강당에서 '제2회 천태 차문화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차문화 대회에서는 '고려시대 차문화 및 대각국사 의천의 다도사상'을 주제로 한 '천태차문화학술대회'와 '헌다작법 시연회'가 펼쳐진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고려시대 사원차와 대각국사 의천의 음다'를, 신미경 교수(원광대, 한국차학회장)가 '차의 성분과 효능 및 이용법'을, 이혜자 성균관대 교수가 '불교 다례의 변천'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043)423-7100

예송갤러리 '서영기 초대전'



도예가 서영기(경기대 교수) 씨의 초대전이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30여년 동안 발 물레와 장작가마로 작업을 해 온 서 씨는 '전국 차도구 공모전' 운영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찻그릇에 대한 조예가 깊다. 특히 서 씨의 작품 중 마애불이 새겨진 산과 바위를 형상화하여 만든 마애불화병은 따뜻한 색감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분청다기세트와 찻잔, 다식접시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053)426-1515

모가 장작가마 6인전

도예전문갤러리 토아트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모가 장작가마 6인전-아름다운 차도구전'을 개최한다. 이천 모가면에서 함께 작업하며 각기 다른 개성과 작품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도예가 여섯 명이 꾸미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다구를 한 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제1회 광주왕실도자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도정요 안창호 대표와 누보도예의 이춘림 대표, 진묵도예의 김상곤 대표 등의 찻그릇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031) 634-3496



4. 삼국시대 ②

中과 교류는 고급 차문화 직수입 계기

이 시기는 우리나라와 국제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때였다. 고구려는 정치기반이 튼튼해지면서 중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교류도 잦았다. 그 중에도 동수(冬壽)의 귀화는 중국 고급문화의 직수입의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는 제후들의 인사를 받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중국은 좌사의 '교녀시', 장재의 '등성도백토루시', 두육의 '천부' 등 차가 문예 작품의 주제로 등장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중국의 음다(飮茶) 문화가 조금씩 들어왔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일본과의 왕래가 잦았으니 우리의 다방면의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것도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영향력이 컸다.

①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동수(冬壽)가 귀화했다면 당시의 중국 상류층의 음다 풍습이 그대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손초(218~293) 서진의 문인으로 <다천(茶荈)>이라는 말을 썼다.

위요는 오나라의 문인으로 손호(임금)가 아껴 술 대신에 차를 마시게 했다.

장읍(230년 전후) <광아(廣雅)>라는 책에서 차 만드는 법과 끓이는 법을 설명했다.

장화(232~300) 서진 사람. <박물지>에 "좋은 차를 마시면 잠이 적어진다"고 썼다.

부함(239~294) 다죽(茶粥)을 파는 노파 이야기를 남겼다.

좌사(250~305) 유명한 '교녀시(嬌女詩)'에서 차 이야기를 썼다.

유곤(271~318)은 조카인 유연에게 차 끓이는 법을 써 주었다.

③ 곽박(276~324) 동진 사람. <이아주역(爾雅註譯)>과 다연(茶碾, 차 맷돌)에 관해 썼다.

부손 위나라 사람. 촉나라에서 벼슬을 했다. 운남차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홍군거 <식격(食檄)>을 지음. 흰 거품이 이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육납 오나라 사람. 손님을 간단한 다과(茶菓)로 대접했다.

장재 서진 사람. '등성도백토루시(登成都白菟樓詩)'에서 "향기로운 차는 어떤 음료보다 좋다"고 했다.

두육 (?~311) 차 노래 '천부(?賦)'를 썼다.

우홍 "단병자를 만나 큰 차나무를 알게 되었다."<신이기(神異記)>

④ 환온(桓溫, 313~374) 동진인으로 원제(元帝)의 부마가 됨. 후에 황제 혁(奕)을 폐하고 간문제(簡文帝)를 옹립했다. 그는 평소 손님을 차와 과일로만 대접했다.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삼국시대		남북조시대	@ 손초, 위요, 장읍, 장화, 부함, 좌사, 유곤 ②
	258 왕인의 도일(유교경전 전달)		280 진(晋)의 통일
			@ 곽박, 부손, 홍군거, 육납, 장재, 두육, 우홍 ③
	337 동수(冬壽)의 고구려 귀화 ①		312 환온 ④
			371. 동진의 건국
	360 <서기>일권 편찬(백제)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펴내서 쓸 수 있어야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문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어떤 장소를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부처님 경전에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용한 데를 찾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정진해 나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답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들 빼놓고, 자식들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 번뇌 망상이 다, 육십이견(六十二見)이 다 공한 까닭에 색이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실상이고요. 망상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하는데 그 만 가지 망상이 나오는 대로,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불심을 키워 주는 바로 보리예요, 보리! 불심을 키워 줄 수 있는 보리! 그러니까 망상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망상이 없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으면 목석이게요? 목석이 무슨 부처를 이룹니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니 그 망상도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놔라 이겁니다. 한데 뭉쳐 녹이는 것이 바로 대자비와 대승 경지이며 그것을 이루어서 이 산하대지를 그냥 홀떡 집어삼킬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고 마구니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그저 부처를 아무런 방편도 없이 막 때려 부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가 맞아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야, 그거를 홀딱 그 자리에 갖다 넣고는 그 물질만 없앴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런단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시장바닥 같아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알았느니라. 어서 가거라. 옷 벗어 놓고,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놓고, 땅도 딛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살 수 있으면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놔라, 땅도 딛지 마라, 나무도 베지 마라,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하고 죄 했으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는 바로, 같이 음파를 타고 돌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겠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 이 말 저 말이 들어가면 산란해서 공부를 못해요. 진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자꾸 이 말 저 말을 해서, 이리로도 갈 수 없고 저리로도 갈 수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면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놓는다면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깨닫는 데에 지름길이며, 또 업식을 다 무효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지름길이며, 나를 건강하게 하는 데도 지름길이며, 모든 것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하십시오. 내가 열 마디 백 마디 해 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 번 잘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끌어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과 동일해야만이 바로 한자리 금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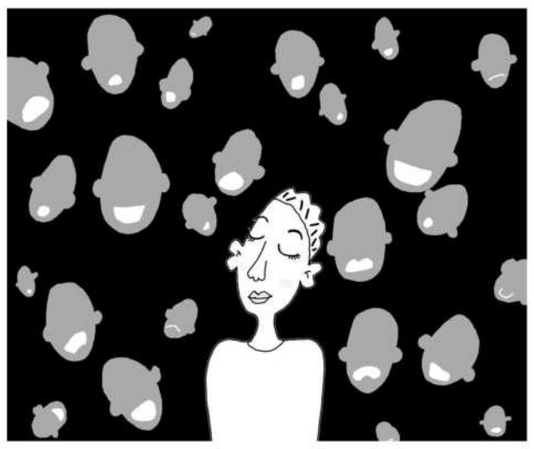
여러분이 살림하면서도 어떠한,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장바닥에 내놓고 공부를 할 때, 모든 일체 만법을 받아들이고 거기 놓을 수 있을 때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도 함이 없이 할 때 시공이 없는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서 오신통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데 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백지장 하나를 뚫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어야만이 바로 상봉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바깥의 저런 은산철벽을 뚫어라 이런다면 은산철벽이 그냥 있어서 뚫으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뚫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의 양면에, 부와 자가 있는 양면에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산철벽도, 그건 무색할 정도예요. 나의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부와 자가 상봉을 못할 때, 공부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봉했을 때 진짜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살이하면서도. 그 때는 맛을 알고, 어떠한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좇아서 용도에 따라서 그 맛을 볼 때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으냐. 참나의 살림살이 그만하면 떳떳함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속에서 이 중생 속에서도 벗어났으니 수억겁의 중생을,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한 참나에 제도가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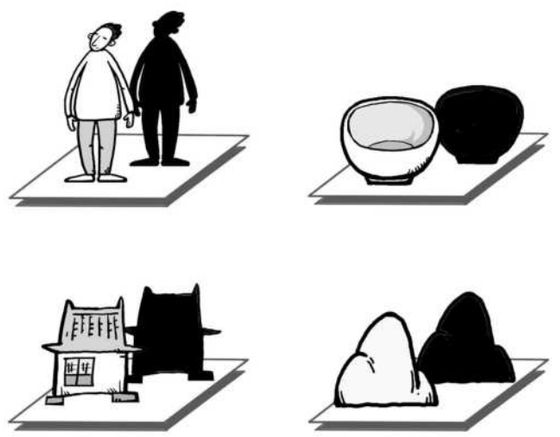
그러니 사생이라 하면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해서 낳는 것 이 모두를 바로 한 참나의 살림살이로서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은 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 불러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대인이라는 행을 하고 그대로 떳떳한 거죠. 나는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남이 뭐라든, "아이구, 별것도 아니야, 뭐. 만나 보니까 똑 고구마같이 생겼고 그저 별것도 아니야. 키는 똥자루만하고." 이래도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좋고 똥자루 같아도 좋아요. 왜냐. 똥자루같다는데, 뭐. 뭐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기의 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겉죽으로만 보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적에 나를, 내가 참나를 알아서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내가 몰랐을 때에 바로 내 모습같구나.' 이러니 그것도 미운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데 내 속이 상하는 거고, 남을 증오하는 데 내 업이 되는 거고, 남을 죽이는 데 나는 바로 죽는 겁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요, 칼산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래서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펄펄 뛰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지옥인 줄 아세요? 그게 화탕지옥이죠. 그러니 지옥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옥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데 내가 생각할 땐 '아이구, 저 사람들 참 이상해. 아니, 백지장 사이 같은데…. 우리가 살림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이끌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믿질 않어?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 하고 쓰다듬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를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어, 그걸?'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참 자기를 왜 못 믿느냐고요?


그림 · 최주현

"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백지장 하나를 뚫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어야"


그림 · 최주현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문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으로 공부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 해외 불자입니다. 공한 도리를 어렴풋이 짐작해 나가고 있는데 근기가 약해서인지 그 때 그 때 다가오는 역경계마다 흔들리고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당장 발등이 타 들어가는 형국인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믿음도 얇고 이리저리 세파에 휘둘리다 보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는 지금 절실한 문제이니 한 말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는 함이 없이 살기 때문에 공해서 따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해 줘도 깨우치는 거하고 죽는 거, 아픈 거, 똥 누는 거, 잠자는 거, 먹는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마음 태연하게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 뛰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 해 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 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근 거니라." 때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 사람은 아주 살게 되고 괜찮은데, 살려고 바둥바둥 발버둥이친다면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 달라면 벌써 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더러 해 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동일하게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더불어 우리가 한생각 하는데 법이 또 세계를 그렇게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항상 얘기하듯 스스로 내 마음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 마음이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기 거가 돼서 스스로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펴내서 쓸 수 있도록 진짜 믿어야 하고 진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과거 씨가 있으니 진짜 믿고 관하라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병고로 인해 숨이 턱에 차올라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쓰고 지극한 마음으로 할 때 참 감개무량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눈물까지도 글썽거려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또 질병을 앓고 그렇게 찾아오실 때, 자손들을 돈이 없어 학교에 못 보내고 등록금을 못 내고 울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할수록, 질병이 올수록 이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절에 가시든지 꼭 타의에서 구하시는데, 그런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절에를 어떻게 가며 부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그 육신이 집이라면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부처님이 계신 까닭에 그 속에 또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그 까닭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끄달리지 마시고 믿는 것은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삼합이 합쳐서 공존하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진면목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다는 그 자체.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기를 못나게 생각하고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남한테 물어보고, 스님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능력

☞30면으로 계속

함이 없이 살기에 공해서 따로 한 게 없다

☞29면에서 계속

이 없으니까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야 하고 이러는 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엎드러지면 여러분은 일어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엎드러졌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질병이 나왔다면 그 속에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과의 업보, 유전, 그 오간지옥의 꼴을 누구나가 면치 못하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바깥으로 끄달리면 못 면합니다. 반드시 그것, 안의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하면서 이거양득, 삼거양득으로 됩니다.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그 감흥을 얻는다 말입니다. '아! 나한테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단호히 이런 것을 믿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때는 선맥을 쥐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참나가 감응이 되고 부와 자가 서로, 즉 말하자면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때로는 일을 할 때는 부는 자식이 돼 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은 부가 돼 주고, 자유자재권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죠. 고거를 못믿겠걸랑 여러분이 남편을 금방 만났다가 자식을 만나보세요. 남편 만났을 때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은 화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딸 같아지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땐 누이도 되고 어떤 땐 어머니도 되고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멋쟁이는 뭐가 멋스러우냐 하면, 묘법이라고 하죠, 그걸. 그 묘법은 마음에 따라서 행도 말도 뜻도, 삼합이 한데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남편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자동적입니다. 한 찰나예요. 그런데 한 찰나에 말입니다, 자식을 만나니까 금방 아내라는 게 그냥 아예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게 됐어요. 이렇게 묘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다구요? 여러분이 그렇게 묘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각할 줄 모르고 자립할 줄 모르고, 자기 진화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며 그대로 철학도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도리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 태어난 것은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량력을 가졌기 때문에 고등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로 된 물건들은 우리 인간이 지배하게 돼 있고 지배를 받는 것은 인간을 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가만히 펼쳐 놓은 이 이치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생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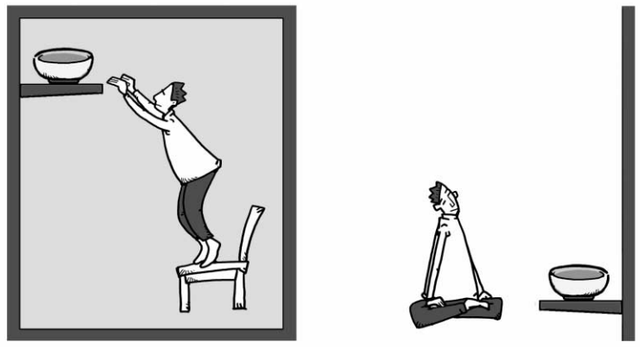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흥겹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날 '한번 괴로움이 있으면 거기 일임해서 놓아라. 아프면 아픈 것도 거기에 놓아라. 아픈 것이 거기서 나왔다면 바로, 낫게 할 수도 있는 능력도 거기 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가난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매사 게 다 그렇다는 것을 진짜로 아시고 눈물 흘리지들 말고 멋지게 사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음공부의 공덕

문 왜 마음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덕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물으셨는데, 우주와 우리의 집인 지구와 세계가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모두 그 수명을 연장하면서, 또 이 말 하기 전에 우주는 모든 물질적인 그 모두를 해소시키고 그 근본만 남아서 블랙홀이라는 큰 별이 그것을 생산을 합니다. 새로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는 없어지고,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도로 돌아가지만 그 근본 종자만은 남듯이, 남아서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다시금 정자 난자를 빌려서 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원이 사 차원, 오 차원, 육 차원, 칠 차원까지 이렇게 이르러야만이, 이 몸은 가만 놔두고라도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이 전 세계 컴퓨터의 모든 문제도 더 성장이 되게끔 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허공에 에너지 있는 거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길게 살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진리의 삶이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되지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살 수 없다면, 우리 힘이 없으니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선반 위에 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키를 키워야 그걸 꺼내 먹죠. 그렇기 때문에 겁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높여야, 겁상을 놓지 않고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물질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놓고 올라서서 꺼내지만 이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단 얘깁니다.

부처님의 그 도리가 그래서 깊고 광대하고 무변하다. 이 마음이라는 근본을 없애고서는 절대 세상이 없다. 세상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방대한 능력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서 벗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모든 각처에 어디든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신이 될 수도 있고 군사로 화해서 대비대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들에 서라든가 우주에서라든가 세계의, 지구 모두 어디든지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도 높다 얕다 이런 것도 없고, 길다 짧다 이런 것도 없고,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찰나찰나 그렇게 용무를 장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공법을 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말을 '용무(用無)'라고 하면 영어로다가 번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들을까 봐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등공법'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벗어나야 전체 어디고 내 도량 아닌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닌 데가 없고,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것 없어요. 지금 사람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도 흙도 돌도 어디고 다 쓸모가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차원을 올려라. 그래서 고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흥겹게 웃고 살 수 있다. 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할지라도 '흥!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고, 또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넓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는 걱정 없이 자기 주인이 나앉으라면 나앉고 들어앉으라면 들어앉을 테지.' 그러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길게 있다 죽어도 모두 자기 주인이 할 탓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를 닦아 나갈 수 있고 차원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됨으로써 전체의 보배를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 어떠한 극난한 문제도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대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복으로,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기복으로 나가는데 우리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네들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생각이라면 생각하는 것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량광대한 공부인데 어떻게 이 도리를 배우지 않고 그냥 스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영험 도량



퇴미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권 해 동 승 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무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 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기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재래식 감 건조대에서 감을 말리고 있는 충북 영동군 주민들.

맛·건강 확실히 감 잡았어!

비타민 C 풍부…홍시는 위보호 · 곶감 삶은 물 지혈 탁월

10월 하순으로 치닫으면서 감나무 수확을 기다리는 손길이 바빠졌다. 집마당 절마당 가릴 것 없이 곳곳에 그 실한 모습을 드러낸 감 열매. 거름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건만 따사로운 볕과 바람에 무르익은 홍시 감의 맛은 가을 하늘을 닮아 높고 진하다.

그러나 감을 맛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다. 감에는 비타민 C가 특별히 풍부해 가을철 감기 예방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떫은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장의 점막을 수축시켜 설사 치료에 도움을 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에도 좋다.

감은 가공한 상태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명의별록>에 따르면 홍시는 술로 허약해진 위장을 다스린다. 위염을 제거하며 입안이 마르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생감 역시 각종 종기에 붙이면 깨끗이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곶감은 여러 효능으로 유명하다. 곶감 삶은 물을 마시면 지혈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곶감 태운 가루를 잇몸에 바르면 치통이 완화되며, 곶감 태운 가루를 섭취하면 치질치료에도 효과를 본다. 곶감 표면에 생기는 흰 가루는 기침도 줄여준다.

감잎을 쪄서 말린 후 차를 만들어 마시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감꼭지를 말려 뒀다가 달여 마시면 딸꾹질이 멎는다.

강신재 기자

■ 감으로 만드는 '건강 요리'

▽감즙
1. 떫은 감의 꼭지를 따서 돌절구, 믹서로 간다.
2. 갈아놓은 감의 10분의 1정도 물을 붓고 고루 주물러 다른 그릇으로 옮긴다.
3. 매일 한 차례씩 휘저어 준다.
4. 일주일이 지나면 베보자기에 넣고 짜둔다.
5. 이것을 물기없는 그릇에 넣고 뚜껑을 덮어 그늘진 곳에서 5~6개월 발효시킨 뒤 복용한다.

▽감식초
1. 감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윗부분을 짚 또는 거즈로 덮은 뒤 돌로 눌러준다.
2. 항아리를 공기가 잘 통하는 천으로 덮은뒤 18~22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5개월간 발효시킨다.
3. 찌꺼지를 짜서 채로 받쳐 거른것을 항아리에 넣어 밀봉해 7개월간 발효시킨다.

▽감단자
1. 단감의 꼭지를 뗀 후 큼직큼직하게 자른다. 냄비에 손질한 단감과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은근한 불에서 푹 끓인 후 체에 내려 거른다.
2. 체에 내린 감을 다시 냄비에 붓고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 양이 3분의 1로 줄 때까지 조린다. 단감이 걸쭉해지면 찹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꽈리가 일도록 익힌다.
3. 밤은 삶아 속살만 발라 으깬 후 체에 내린다.
4. 감과 찹쌀가루 익힌 것을 쟁반에 부어 편평하게 편 후 잘게 끊어서 밤 고물을 묻힌다. 단자는 인절미와 비슷하지만 찹쌀을 알곡으로 찌지 않고 가루를 내어 찐다는 점이 다르다.

▽감장아찌
1. 떫은 감의 꼭지를 따고 씻어서 물기를 없앤다.
2. 장독에 있는 된장을 한쪽으로 제치고 감을 넣고 다시 덮어둔다.
3. 20일 후에는 감에서 독특한 맛이 난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마늘, 깨소금,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무쳐 먹으면 술안주로도 좋은 별미 반찬이 된다.

▽감찜
1. 감(홍시)을 준비해서 설탕을 2~3회 나누어 넣고 졸인다. 찬물에 떨궈서 풀어지지 않으면, 병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뜨거운 상태로 거꾸로 세워 식힌다.

▽감떡
1. 감을 1~3cm 두께로 얇게 썰어 말린 후 햇빛 또는 건조기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쌀가루 20컵, 잣가루 4컵의 비율로 밤, 대추, 꿀물 등을 혼합하여 떡을 만든다.

불법실천이 곧 가족 사랑이죠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9>

강도식 · 남도예 부부

직장, 불심, 부부애가 하나로 통한 강도식(55) · 남도예(54) 부부. 결혼 25주년을 훌쩍 넘기고도 늘 신혼 같은 이들 부부의 남다른 사랑은 성북 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에서 시작됐다. 가족 모임 중심의 법우회는 불심 깊기로 소문난 회원들은 물론이고 부인들까지 신행활동으로 이끌어, 일과 신행이 둘이 아닌 실천불교의 틀을 제시했다.

"2000년 승만부인회가 조직되면서 10여 년간 드문드문 참여하던 교리모임, 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좋다는 절은 다 가본 것 같네요."



태국 푸켓의 불교사원을 찾아 사리탑을 참배하고 있는 강도식 · 남도예 부부.

법우회 · 승만회 등 통해 신행 열심 · 봉사활동

강 거사 말대로 그들은 법우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불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두 명 모두 불자가정에서 성장한 터라 불교가 낯설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공부와 수련은 법우회에서 이어갈 수 있었다. <초발심자경문>부터 <선가귀감>까지 꾸준히 공부해 불자로서의 소양을 키웠고, 틈틈이 절수행에 뛰어들면서 하심을 배웠다. 불교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부부 관계를 넘어 불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도반이 되고자 했다.

이들의 신행은 법우회 밖에서도 지속됐다. 철도 기관사로 30여년을 근무했던 강 거사는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전 독송으로 극복했다. 성북 승무사무소 기지 안에서 철도 신호 점검을 담당하는 현재도 경전읽기와 염불수행을 놓지 않는다. 근무처를 벗어나도 마찬가지다. 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강 거사는 팔도 산천을 유람하며 사찰 참배도 계속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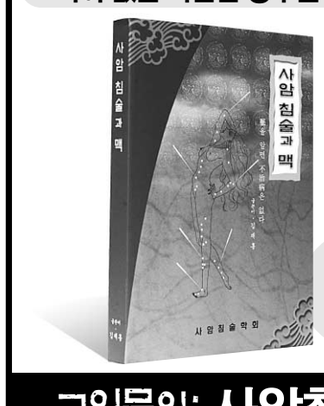
아내 남 보살은 승만회 활동을 바탕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혜명보육원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수년 전부터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이른 새벽엔 가부좌를 틀고 화두에 집중하는 등 참선수행에도 열심이다.

아이들도 부부의 불심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딸은 불교가 낯선 아이들에게 불법의 진리를 소리없이 전하고 있으며,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 역시 아침마다 <천수경>을 들으며 산란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강 거사 가족은 이제 굳이 '신행'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가족 모두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실천한다면 그 실천이 모여 곧 불국토 건설의 밑받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들의 서원에서 문득 피어오르는 보살의 향훈을 느낄 수 있다.

강신재 기자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칸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힘있는 강의! 화끈한 통변!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과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4×6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당하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0) 천축산 불영사



천축에 펼쳐진 불영산수화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엊그제. 옛 사람들은 한로 무렵을 가리켜 '산에 들에 노란 국화가 피고,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드는 절기'라고 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茱萸) 열매를 꽂으면 몸의 액을 털어낸다고도 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솟은 천축산에도 바야흐로 노란 산국(山菊)이 피고, 불영사에도 수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을 것이다.

울진에서 봉화 영주로 이어진 36번 국도는 낙동정맥을 가로 지르는 산간도로이다. 국도라곤 하지만, 10여년 전에야 겨우 포장된 산중도로이다. 불영사 주차장에 내려 일주문을 지나면 왕피천의 지류인 불영천이 맑게 흐르고 있다. 개체수는 많지 않으나, 예전에는 불영천에도 왕피천의 연어들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아래쪽 여러 개의 보에 막혀서 연어가 불영사까지는 못 오르고 있다.

■ 불영천

불영천의 발원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계를 이루는 삿갓봉(1119미터)이다. 고산준령의 융기와 침식으로 인해 상류에서부터 심한 감입곡류(嵌入曲流)를 이루면서 내려와 불영사를 태극으로 한바퀴 감싸돈 후 하류로 내려가 왕피천 본류와 만난다. 불영천에는 서해로 흐르는 서계(西界)의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들도 보인다. 이는 사람들 손에 의해 낙동정맥을 넘어왔다기보다 지질시대에 하천 유로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 불영천의 꺽지

불영사 아래위로는 비교적 맑은 물을 좋아하는 버들개, 꺽지, 돌고기, 자가사리, 동사리 등이 나타나고, 불영사에서 8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주천대 지역에서는 갈겨니, 피라미, 왕종개, 몰개, 밀어, 미유기, 쏘가리, 모래무지 등이 나타난다.

꺽지는 한국특산종으로 유속이 빠르지 않는 곳에 산다. 길이 30센티 정도에 모양은 붕어처럼 납작하다. 몸의 바탕은 회갈색으로 얼룩져 있으며, 몸색깔을 자주 바꿔 '물속의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꺽지는 매우 공격적인 육식성 어종으로 '물속의 표범'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1급수에 사는 산천어는 아직 불영천에서 관찰된 바가 없다. 냉수어종인 산천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은 불영천의 수온이 강원도 심산계곡만큼은 차지 않기 때문이다.

■ 불영교 네발나비

불영천 위로 불영교 다리가 그림 좋게 걸려 있다. 2002년 가을, 매미 태풍 때 유실되고 다시 지은 것이다. 두께가 한 자나 되는 시멘트 상판이 2백미터 정도나 떠내려갔다.

불영교를 건너면 햇살 좋은 숲길이다. 네발나비가 미동도 없이 오수를 즐기고 있다. 네발나비의 날개는 겉과 안의 무늬가 다르다. 그래서 날개를 폈을 때와 접었을 때의 무늬가 전혀 다르다.

■ 산국(山菊)

길섶과 숲속에는 산국, 고마리, 거북꼬리, 여뀌, 미역취, 마타리, 기름나물, 꼭두서니, 며느리밥풀, 참취, 닭의장풀, 노루오줌풀, 큰까치수영, 기름나물, 억새, 달맞이꽃, 개망초, 사위질빵 등이 보인다. 산국은 햇볕을 좋아하는 노란색 들국화다. 감국보다 꽃의 크기는 좀 작지만, 가지끝에 한데 어울려 피면 탐스럽다.

■ 금강송

목본류로는 몇 종류의 참나무를 비롯해 밤나무, 산벚나무, 왕버들, 오리나무, 쪽동백, 단풍, 산초나무, 붉나무, 산수국, 국수나무 등이 잡목숲을 이루고 있다. 아까시나무도 몇 그루 들어와 있다. 그런 가운데 아름드리 금강송들이 장정들처럼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영천 건너 산기슭에도 금강송들이 그득하다.


불영교 건너편 숲속의 네발나비.


불영 계곡.


불영천.

연못과 전각들의 조화 자연미의 극치 … 곤충·식물이 모두 '귀의'한 듯

울진-봉화-삼척을 잇는 지역의 금강송은 우리나라 소나무 가운데 질이 가장 뛰어나다. 일제 때 봉화 춘양역에서 이 금강송들을 많이 실어냈다. '춘양목'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은 것이다. 불영사가 있는 천축산을 비롯해 휴양림이 있는 통고산, 천연보호림지역으로 지정된 소광리 주변에 금강송 원시림들이 남아있다.

■ 사라진 굴참나무

숲길가에 고사(枯死)한 굴참나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 157호로 지정될 당시 높이가 무려 35미터, 둘레가 6.2미터였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불영사를 창건하면서 심었다는 전설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의상대사가 불영사를 창건한 것은 진덕여왕 때인 651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 훨씬 전인, 20대 청년시절이다. <불영사기(佛影寺記)>에 따르면, 경주를 떠나 바닷길을 따라 운수행각을 하던 중, 서역의 천축산과 같은 산이 있어 들어갔더니 마침 연못에 부처님 형상이 비쳐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

■ 영지

전설의 불영지(佛影池)는 주변의 지형지세를 보아 창건 이전부터 있었던 연못임에 분명하다. 불영사는 크고 작은 암봉들이 함지박 모양으로 절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주위의 산에서 내려오는 수기(水氣)가 영지에 한데 모이도록 되어 있다. 영지는 연지(蓮池)와 달리 자연성이 우선된다. 주위 지형지세를 닮아 가장자리가 곡선을 이루고 있다.

불영지에는 오른쪽 능선 위의 부처바위를 투영한다. 가을바람이 시샘을 해서 그림자가 출렁인다. 불영지는 화마(火魔)를 내쫓는 거대한 벽사의 '드무'이다. 드무는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다. 화마가 절 안으로 들어올 때, 드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간다는 속설이 있다.

■ 대웅보전 돌거북

불영사의 전각들은 영지를 앞에 두고 방사선 형태로 앉아있다. 그래서 불영지를 화심(花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웅보전 석축 아래에 머리와 어깨 부분만 드러낸 돌거북 두 마리가 있다. 마치 대웅전을 등에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지관(地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웅보전이 앉은 형국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동해 용왕의 화신인 거북을 받쳐두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 대웅보전 뒤 금강송

석탑 앞에 서면 대웅보전 뒤로 금강송들이 건장하게 병풍을 치고 있다. 금강송은 절을 둘러싼 암봉과 기슭에 울타리처럼 그득하다. 이곳 사람들은 금강송 줄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붉다고 해서 '붉대솔'이라고 부른다.

이곳 금강송은 솔잎흑파리의 공격을 받아 얼마 전에 수간주사(樹幹注射)를 맞았다. 솔잎혹파리 애벌레의 공격을 받으면 솔잎이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 싸리버섯

칠성각 옆으로 난 숲길은 부처바위로 오르는 길이다. 굴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류들 사이로 잣나무, 엄나무, 개옻나무, 산초나무, 쪽동백, 생강나무, 물푸레나무, 철쭉, 조록싸리, 청미래덩굴, 댕댕이덩굴 등이 활엽수림을 이루고 있다.

불영지에 그림자를 나툰 부처바위 뒤쪽 활엽수림에는 싸리버섯들이 군락을 이루며 탐스럽게 돋아나있다. 싸리버섯은 잔가지들이 많아서 산호 모양을 하고 있다. 자실체의 조직은 흰색에 가깝고, 분지의 끝부분은 연한 담홍색이다. 맛과 향기가 좋아 옛 스님들은 국이나 된장국에 넣어 즐겨 먹었다.

의상대로 이어지는 숲에는 이끼와 일엽초가 다양하게 자라고 있다. 참나무엔 벌써 벌레혹이 달렸다. 그 안에는 겨울을 날 곤충 애벌레들이 들어있다. 불영사 일대 금강송은 불영천 상류를 따라 천축산과 통고산, 소광리 일대까지 드넓게 퍼져있다.


대웅보전 뒤 금강송.

■ 천축에 부는 바람

능선의 솔숲길은 천축선원(天竺禪院) 뒤쪽으로 이어져 있다. 가끔 선방 스님들이 솔숲으로 산책을 나온다. 솔숲은 바람소리부터 다르다. 잡목림에서 나는 부시럭거림이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솔바람소리를 '송뢰'라고 칭송했다.

거기서 계곡 쪽으로 돌아가면 또 별천지이다. 마치 거대한 용이 몸을 뒤틀며 지나간 듯이 계곡 화강암반들이 길게 움푹 패여 곳곳에 소와 작은 폭포들을 연출하고 있다. 여울을 만들며 구비 돌아온 물소리가 쏟아지는 벽력같다. 선(禪)이 달리 있는가. 옛 조사들은 바위에 걸터 앉아 물소리로 삼매에 든다 했거니….

소리는 밖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다. 처음에는 밖의 소리에 주목하다가 다음에는 내면의 소리에 들어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듣는 성품마저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법이 곧 능엄선(楞嚴禪) 이근원통(二根圓通)이다. 천길 벼랑 위로는 금강송들이 바위틈을 비집고 저마다 화두를 들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불영산수화가 바로 이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BBS 대구불교방송 개국 8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및 리셉션

대구불교방송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개국8주년을 맞아 BBS 애청자들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좋은 인연의 자리가 되시기길 바랍니다.

- 특별 초청가수 : 김종환(사랑을 위하여, 백년의 약속, 꿈을 향하여)
- 출 연 : 대구불교방송예술단(교향악단, 중창단), 로사가야금 앙상블, 박수관 명창, 플룻 서연스님, 바리톤 임경섭

※ 1부 음악회에 이어 2부 립셉션에서 대구BBS 2대, 3대 사장의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 시 : 2004. 11. 8(월) 오후 7시 ▮장 소 :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망우공원 內)
▮주 최 : BBS 대구불교방송
▮문 의 : 대구불교방송 053)427-5114
공 연 장 053)951-3300
※공연시작 10분전 까지 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협찬 금강대학교, 금복주, 대구은행, (주)대산금속, 동국대의료원, 동국대학교, 룸비니여행사. 불티나통상, 삼영불교, 신세계진단방사선과, 심원한정식, 위덕대학교, 정안화섬, (주)신일, 지산치과, 경북관광개발공사, 대구시청, 화선금사, KT&G, POSCO (가나다 순)